

유고어과/세르비아 · 크로아티아어과

20주년 기념문집

한우리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어과

차 례

[축사 · 인사말]

1. 추억의 인사 / 김성환 교수	3
2. 학과장 인사 / 김철민 교수	5
3. 총장 축사 / 박철 총장	7
4. 주일 크로아티아 대사 축사 / Drago Štambuk.....	9
5. 주한 세르비아 대리대사 축사 / Jelena Bačković	16
6. 베오그라드대학교 총장 축하서신 / Branko Kovačević.....	20
7. 노비사드대학교 총장 축하서신 / Radmila Marinković-Nedućin.....	23
8. 노비사드대 인문대학 학장 축하서신 / Ljiljana Subotić	26
9. Matica srpska 도서관장 축하서신 / Miro Vuksanović.....	30
10.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 참사관 축하서신/ Vladan Šoškić	32

[학과 재직 내 · 외국인 교수 글모음]

1. 고일 교수.....	37
2. 박미령 교수	40
3. Prof. Snježana Zorić.....	45
4. 故 Prof. Svetozar Petrović.....	50
5. Radmila Gikić-Petrović	61

6. Prof. Predrag Piper	72
7. Prof. Božo Ćorić.....	78
8. Prof. Mate Lončar	81
9. Prof. Prvoslav Radić	86
10. Prof. Mirjana Jocić.....	89
11. Prof. Darko Gašparović.....	91
12. Prof. Danijela Bačić–Karković	96
13. Prof. Gordana Dragin	100
14. Prof. Aljoša Pužar	106

[동문 글모음]

1. 김철민 (88).....	111
2. 백종필 (88).....	114
3. 정태동 (88).....	116
4. 정용준 (95).....	123
5. 민병일 (91).....	133
6. 이남준 (99).....	159

[재학생 글모음]

1. 이준형 (02).....	165
2. 김도균 (02).....	169
3. 심명섭 (03).....	171

4. 소필검 (03).....	172
5. 임동진 (03).....	175
6. 전선헤 (05).....	178
7. 정영재 (04).....	181
8. 변여정 (04).....	183
9. 오은비 (05).....	185
10. 김지민 (04).....	187
11. 김이현 (05).....	189
12. 진서연 (05).....	191
13. 조현아 (07).....	195

[한우리 옛 추억]

1. 김지훈 (89) - 소설 “드리나 江의 다리”에 나타난 다리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고찰	201
2. 조준래 (88) - 저주받은 안뜰(Prokleta Avlija)에 관한 고찰	209
3. 안형태 (90) - 유고슬라비아를 다녀 와서	216
4. 김지향 (88) - 하늘을 닮은 아이에게	221
5. 백종필 (88) - 모모 이야기: 영원한 삶 속의 우리	223
6. 김철민 (88) - 勞와 喜.....	225
7. 이태훈 (91) - 사랑의 기술Ⅱ	227
8. 민병일 (91) - 로켓트를 찾아서.....	230
9. 김현 (88) - 다가오지 않는 삶.....	235

10. 이종영 (88) - 자책의 기도.....	237
11. 곽동현 (89) - 굴레	238
12. 이승미 (92) - 세월	240
13. 정태동 (88) - 진짜 친구를 사랑하는 법	242
14. 허지영 (94) - ‘말라 드라마’를 끝내고서	244
15. 안지선 (94) - 1년을 돌이키며.....	246
16. 이희승 (90) - 준비학교를 회고하며	248
17. 김희준 (90) - M.T를 다녀와서	250
18. 이상민 (92) - 소주, 맥주, 막걸리 그리고 위스키...	252
19. 김영길 (88) - 『Poslednji List 日心』 : 본격 포스트모더니즘 극	257
20. 이기택 (91) - 신입생 여러분들께	261
21. 이문왕 (92) - 나의 지난 1년 이야기	264
22. 김영식 (89) - 90 에게 바라는 글	266
23. 양현영 (89) - 어느 전공 시험날	268
24. 88학년도 7대 뉴스	270
25. 유고어과 뉴스.....	273
26. 유고어과가 보낸 1990년	277
27. 아주 옛날에는.....	281
28. 우리는 92년도를 이렇게 살았어요!	282
29. 우리는 93년도를 이렇게 살았어요!	285
30. 94年 ~ 95年 3月 유고어과 주요행사.....	289
31. 날적이에서	292
32. 날적이에서	294
33. 요즘 우리과 사람들은.....	297

[사진모음]

- 1. 옛추억 사진모음 301
- 2. 20주년 예술제 사진 모음 309

[외대발전기금 및 학과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편집후기]

[축사 · 인사말]

1. 추억의 인사 - 김성환 교수

* 다음 글은 한우리 제6호(1994년 발간)에 기고하셨던 교수님의 격려사입니다.

내가 대학에서 첫 강의를 한 날은 1990년 3월 11일 월요일이었다. 유학하던 대학과 국내대학과는 학기가 잘 맞지 않았고 또 폭설로 사흘씩이나 걸려서 귀국하게 되는 다음 날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동안 체중이 많이 붙어서 몸에 맞는 옷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대학생 시절에 입었던 2벌의 양복 중에서 그나마 간신히 입을 만한 것을 걸치고 (정말 입은게 아니고 걸친 것이었다.) 첫 주 강의를 했다. 그렇게 시작한 병아리 교수 생활 4년이 어느덧 지나고 졸업생도 올해로 세 차례나 떠나 보냈다.

학생들은 4년이 지나면 떠나지만, 교수 생활이 4년이 지난 나는 오히려 이제부터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다. 그동안 신설학과의 학과장으로서 가장 힘썼던 일중의 하나는 공부하는 학과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다. 그러나 대학이 어디 공부만을 위한 곳이겠는가? 올해부터는 우리 학과에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나 교수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학과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연주회나 연극을 보러 가 보자. 아마 국립극장이 좋을 것 같다. 남산 기슭 한 모퉁이에 자리잡은 국립극장은 시내 한복판에 우람하게 버티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이나, 공간에 비해 건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서 있어 복잡한 느낌을 주는 예술의 전당에 비해서 훨씬 인

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공연되는 작품들도 상업성이 짙은 알파한 것들이 아니어서 좋고, 무엇보다도 저렴한 입장료가 두둑하지 않은 우리의 주머니 수준에 맞아서 좋다. 공연 관람 후 장충동 쪽으로 슬슬 걸어 내려와 예전에 청계천가에 있었다던 수표교 다리도 밟아보고, 한 때 그 맛을 자랑했던 ‘장충동 할머니 족발집’에 가서 소주 한 잔을 나누는 여유를 즐겨보자.

왕산에 오르는 일도 즐거운 일이다. 정상에 올라서면 눈 앞에 펼쳐지는 전 교정의 모습이 유난히 다정스럽게 다가온다. 그 동안 세 번쯤 올라가보았는데, 저 아래 보이는 교정이 남은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낼 곳이라는 생각에 코끝이 시려오는 잔잔한 감동을 느끼곤 하였다. 5월 초쯤에 함께 올라가서 내 연구실 냉장고에 잘 보관해 두고 있는 라키야를 한 모금씩 음미해 보는게 어떨까? 화창한 주말 오후에 모현 기숙사 탁구장에 한 번 모여보자. 유고어과 탁구 챔피언을 가려서 그에게 조그만 상패도 하나쯤 주고 일년 동안 그의 위업(?)을 기리는 것도 조그만 재미는 될 것이다.

사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시간과 마음을 써서 꾸며 만드는 것이다. 나는 대학 생활이 제공하는 ‘정신적인 여유’를 학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향유’할 것을 항상 권해 왔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여유를 진정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여유로 느껴질 수’ 있는 환경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학업은 뒷전에 밀어두고 정신적인 여유만을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이 공부만 하는 곳도 아니지만, 옛 선비들처럼 吟風弄月만 하는 곳도 아니지 않는가?

2. 학과장 인사 - 김철민 교수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유고어과/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학과장 김철민입니다.

우리 유고어과/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는 유고슬라비아 지역(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의 언어, 문학, 문화, 역사, 정치 및 경제 등 여러 학문분야들을 전공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확대된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적 교류증대를 배경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날로 증대되는 한국과 유고슬라비아 지역 국가들 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와 수출입 교역에 발맞추어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과에서는 첫째,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다변화된 사이버(Cyber) 세대인 학생들의 학습 욕구에 발맞추어, 학과 교수들이 수집한 자료들과 성과물들을 동영상과 더불어 파워포인트(Power Point)로 제작해 강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발표 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기업 그리고 사회 요구에 따른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발표에 있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발표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논리적 사고 함양을 위한 졸업논문 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셋째, 학습 현장에서 배운 언어들을 실제 활용하기 위한 말라 드라마(Mala drama), 원어 연극, 춤패와 노래패인 콜로(Kolo)와 뽀띠쨌(Ptice) 그리고 세크로비전(SecroVison)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이번 20주년 행사와 그 일환인 문집 ‘한우리’ 특별호 발간을 통해 유고 지역을 전공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날로 확대되는 우리나라와 유고슬라비아 지역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교류에 힘입어 계속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학과 학생들과 졸업생 동문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의 애정이 서로 뽄뽄 뭉쳐 만들어 지고 있는 우리 학과의 밝은 미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유고어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학과장 김철민 올림

3. 한국외국대학교 총장 축사 - 박철 총장



Dobar dan, Your excellency,

Distinguish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colleagues and students.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and congratulation to all of you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epartment of South Slavic Studi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철 총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르비아-크로아티아 학과 창설 20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학교를 대표하여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함께하신 대사님들 또 양인모 명예 총영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우리 학과가 오늘 20년을 맞아 오늘 이렇게 생일 축하를 갖게 되어 학교로서도 무한히 기쁘고 그 동안 많은 훌륭한 졸업생들이 배출 되어서 현지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의 1988년 개설된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는 날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러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글로벌 대학으로 이끄는 가장 선두에 선 학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교수님, 권혁재 교수님, 김철민 교수님 그리고 외국인 교수님들과 여러 강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위하여 열심히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 주는 학생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열심히 이 지역의 언어와 또 지역학을 공부하여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대한민국의 글로벌화를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 다시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의 30주년, 40주년, 50주년의 행사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성숙된 모습에 우리 학과와 또 자랑스러운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를 보고 있고, 세계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Čestitam! Congratulation!

4. 주일 크로아티아 대사(주한 대사 겸임) 축사 – Drago Štambuk



Dear prof. Kim Seung Hwan, the Founder of Department of South Slavic studies of Hankuk University, prof. Kim Chol Min, Dean of the Department of South Slavic studies, dear professors of Hankuk University and Croatian prof. Pužar, students and alumni,

I am honoured and proud to stand in front of Korean South Slavic teaching and learning elite, which uses an essential human tool for the meaningful, people to people,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Republic of Croatia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le congratulating you 20th anniversary of teaching South Slavic languages.

Because the Croatian language, the tool I speak about, is

taught at Hankuk University's Department for South Slavic studies, for us from Croatia this University is very special and important one.

I am grateful to your efforts in raising a profile of the Croatia's language and heritage from which many historical and important figures like Tito, Nikola Tesla, three Nobel prize winners: writer Ivo Andrić and chemists Lavoslav Ružička and Vladimir Prelog, have emerged. Also, exquisite verses of the father of the Croatian literature – Marko Marulić, renaissance playwright and important predecessor of Shakespeare – Marin Držić, poet and princ – Ivan Gundulić with his famous and important Hymn to Liberty, prose writers Ranko Marinković, Slobodan Novak and among the recent people of letters – great poets: Nikola Šop, Vesna Parun, Dragutin Tadijanović, Slavko Mihalić and many others.

And now an extremely good and important news for all of us!

On shared demand from Croatian National Library in Zagreb and Serbian National Library in Belgrad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 the new separate code for Croatian and Serbian language treatment in the World librarianship has been officially adopted and has started being used from Sept 1, 2008 (hrv for Croatian language and srp for Serbian language, instead of earlier unifying one – scr). The latter means that these two close, but distinct, languages have been officially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two separate linguistic entities. This also gives credit to the Hankuk's

foresight in treating these two languages and their traditions as two near, but distinct phenomena, for more than 10 years.

Croatian language is tripartite, with čakavian, kajkavian & štokavian idioms, but has also a special, standardized literary entity called Croatian literary language – which means that it's more complex than an average language while its stylistic sophistication, different internal layers and exchanges, make it extremely cultivated, rich and beautiful language.

Allow me to use this particular occasion to announce an exhibition World Heritage Sites in Croatia at this University on 27th October as our gift in showing the nature and the arts of Croatia. I am also honoured to present to your University a Vučedol Dove, symbol of peace coming from the martyred Croatian city of Vukovar, as well as two big books: Lijepa naša and Zagreb through a thousand years; one about my country and the other about its capital.

Another name for Croatia, Lijepa naša (Our beautiful one) speaks volumes about its beauty; and its anthem, of the same title, while counting the blessings of nature only, has been named, the first ecological and green anthem in the World.

If it's true, according to Dostoyevsky that the Beauty will save the World then the role of my country in the Salvation of this Earth will have to be substantial.

Repeatedly I thank you all, the Founder, the Dean, the professors and students for this important jubilee and wish you to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in connecting our two friendly

nations, Croatians and Koreans, toward our deeper understanding through language and tradition studies. For your longstanding patience and hard work I also thank you and invoke the bright future and incessant progress to the highest educational ideas, for your great institution of your great country.

Dr. Drago Štambuk,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Croatia

Seoul, Hankuk University, Oct 11, 2008

친애하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前 학과장 김성환 교수님,
現 학과장 김철민 교수님, 크로아티아 출신의 뿌자르 교수를 비롯
한 재학생, 동문들과 모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수진 여러분,

저는 오늘 크로아티아와 한국, 양국 국민들간의 의미 있는 관
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류의 소통 수단인 언어 활용을
목표로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대한민국의
인재들 앞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럽게 생각
하며,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경축
드립니다.

제가 언급한 대로 양국간의 중요한 소통 수단인 크로아티아어
를 바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에서 가르치
고 있기에 크로아티아 입장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매우 특별

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티토, 니콜라 테슬라와 노벨상 수상자인 작가 이보 안드리치, 화학자 라보슬라브 루지츠키와 블라디미르 프렐로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려한 운문들로 잘 알려진 크로아티아 문학의 아버지 마르코 마를리치, 셰익스피어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문예부흥기의 극작가 마린 드르지치, 자유 찬가로 유명한 시인이자 군주였던 이반 군둘리치, 산문작가 란코 마린코비치, 슬로보단 노박과 현대 문학가들 중에서는 니콜라 솅, 베스나 파룬, 드라구틴 타디야노비치, 슬라브코 미할리치 외 다수의 뛰어난 시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물들을 탄생시킨 크로아티아의 언어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반갑고도 중요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그맣 소재 크로아티아 국립도서관과 베오그라드 소재 세르비아 국립도서관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제출한 크로아티아어와 세르비아어의 개별 부호 처리에 대한 공동 요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예전의 통합형인 scr 대신 크로아티아어와 세르비아어에 대해 각각 hrv와 srp가 공식 채택되어 2008년 9월 1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유사하지만, 뚜렷한 차이를 가진 이 두 언어가 국제 무대에서 비로소 서로 다른 별개의 언어적 독립체로서 공식 인정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미 10년 이상 이 두 언어와 어문 전통을 가깝지만 분명히 다른 별개의 언어 현상으로 구분해온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뛰어난 통찰력에 신뢰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어는 차 방언, 카이 방언, 슈토 방언, 이렇게 세 가지의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크로아티아 문어(文語)라 불리는 특별한 표준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크로아티아어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반면, 다양한 내적 층위와 대체 표현들, 세련된 문체를 가진 교양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언어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또한 이 특별한 자리를 빌어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세계를 보여줄 <크로아티아의 세계유산> 전시회가 오는 10월 27일 귀 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며, 크로아티아의 순교 도시 부코바르에서 온 평화의 상징, 부채들 비둘기 한 마리와 크로아티아와 수도 자그렘에 관한 책 두권 <리예파 나샤>와 <자그렘, 수천년의 세월>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증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뜻하는 크로아티아의 또 다른 이름, ‘리예파 나샤’는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움을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으며, 축복받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동명(同名)의 국가(國歌)는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 최초의 자연보호 국가(國歌)로 명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계 구원에 크로아티아가 이바지한 바는 분명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뜻 깊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설립 20주년 행사를 맞이하여 김성환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 학생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 국가와 국민 간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과 양국 언어와 전통 연구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여러분이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

러분의 꾸준한 인내와 노력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가 있는 한국외국어대학
교가 끝없는 발전을 통해 최고의 교육적 성과를 거두어 훌륭한
국가의 명실상부한 일류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는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드라고 슈뎀부끄 박사
주일 크로아티아 대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년 10월 11일

5. 주한 세르비아 대리대사 축사 – Jelena Bačković



Today we are celebrating 20 years of south Slavic language department at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is a great day, not only for us, representatives of Embassy of the Republic of Serbia in Seoul and Serbians in Korea, but in particular for those among us here, who made the dream about south Slavic language department become reality.

During those 20 years so many young Koreans had the opportunity to acquaint Serbian language and culture and now some of them connected their professional and personal lives with Serbia forever.

That's certainly one of the precondition to establish strong and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I have to tell you, I'm always proud to point out to the visitors at our Embassy that the department of South Slavic languages exists

and that is possible to learn Serbian language in the Republic of Korea.

Our Embassy is grateful for department's cooperation in cultural events organized by Embassy, especially for the performances of your students in 2006 and 2007 at Nami island, a famous tourist site 70 kilometers from Seoul.

But we think there is still a lot of room for the cooperation between our two organizations.

So now,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Serbia in Korea, I would like to offer your department, from the beginning of next year, a special program for your students, consisting of the political & cultural news from the Republic of Serbia, presented by ambassador and embassy officials.

Hoping that our cooperation will be even more fruitful in the future, I'm sending my greetings to everyone here, South Slavic department staff, with special attention to previous chief of South Slavic department Mr. Kim Sung-han, his successor Mr. Kim Chul-min, and professor Ji-hyang Kim.

Thank you!

Jelena Bačković, Charge d'affaires a.i.
Embassy of the Republic of Serbia

오늘 우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주한 세르비아대사관의 대표인 저희들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인들에게도 물론 의미있는 날이지만, 남슬라브언어학과에 대한 꿈을 현실로 바꾼 주인공,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더 없이 특별한 날일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배움을 통해 세르비아의 언어와 문화를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그 지식을 매개로 하여 세르비아와 그들의 개인적 삶을 연결시킨 이들도, 평생 직장을 찾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굳건하고 유의미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선결조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은 본 대사관에서 주최하였던 그간의 문화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주신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2006년과 2007년 서울에서 70여 킬로나 떨어진 한국의 유명 관광지, 남이섬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민속춤 공연을 보여주었던 귀과의 학생 여러분들께는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본 대사관과 귀과가 상호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의 대표로서, 내년 초부터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재학생들에게 대사, 혹은 대사관원이 직접 세르비아의 정치·문화계 소식을 전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본 대사관과 귀과의 협력이 미래에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교수님

들, 특히 前 학과장이셨던 김성환 교수님과 現 학과장이신 김철민 교수님, 그리고 김지향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표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레나 바퀴꼬비치
주한 세르비아 대리대사

6. 베오그라드대학교 총장 축하서신 – Branko Kovačević

DEPARTMENT OF SOUTH SLAVONIC STUDIES
HANKOO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Belgrade, October 7, 2008

Dear colleagues,

Bearing in mind the long lasting and fruitful coope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of Belgrade and the Hankook University, I take exceptional pleasure in congratulating you on the occasion 20th Anniversary of the department for South Slavonic Languages.

In the year when the University of Belgrade itself is celebrating an important jubilee, 200 years of its foundation, we are very proud of the opportunity to extend to you our personal gratitude for the promotion and spreading of the Serbian language and culture among our friends in the Far East.

Let me avail of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and all our colleagues at the renowned Hankook University professional excellence and success for many years to come and we look

forward to further continuing and strengthening the academic ties between our two institutions.

Please accept once again our most sincere felicitations and deepest appreciation.

With best wishes and kindest regards,

Prof. Dr. Branko Kovačević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베오그라드, 2008년 10월 7일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들께,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있는 베오그라드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협력관계를 마음 속에 오래오래 간직하며, 저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20주년 기념일을 축하함 있어 한층 더 기쁨을 느낍니다.

베오그라드대학교가 설립 200주년의 중요한 기념일을 축하하는 해에, 세르비아어와 문화가극동의 친구들에게 퍼져나가고 있

다는 사실에 개인적인 감사를 전할 수 있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뛰어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여러분들과 모든 동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적인 우수성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두 대학교 사이의 학구적인 끈이 더욱 더 지속되고 공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심어린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브란코 꼬바체비치 교수
베오그라대학교 총장

7. 노비사드대학교 총장 축하서신 – Radmila Marinković-Nedućin

POZDRAVNA REČ

Svaki jezik sa sobom nosi kulturu i istoriju naroda koji ga govori. Tako učenje nekog stranog jezika, pored učenja vokabulara i gramatike, uključuje i upoznavanje sa tradicijom, običajima i mentalitetom tog naroda i u stanju je da poveže različite nacije i kulture udaljene hiljade kilometara. U današnjem svetu, u kome engleski jezik sve više postaje drugi jezik planete, čini me veoma ponosnom da mogu da vam čestitam dvadesetogodišnjicu osnivanja Katedre za južnoslovenske jezike na Hankuk univerzitetu u Seulu sa kojim Univerzitet u Novom Sadu već više od deset godina ostvaruje aktivnu dvosmernu saradnju.

Stoga bih vam povodom ovog jubileja u ime Univerziteta u Novom Sadu poželela još mnogo godina uspešnog rada i izrazila nadu da ćete sa istim uspehom nastaviti da širite srpski jezik i kulturu u Južnoj Koreji.

Još jednom vam srdačno čestitam!

Prof. dr Radmila Marinković–Nedućin
Rektor Univerziteta u Novom Sadu

Prof. Ljiljana Subotić
Faculty of Philosophy
University of Novi Sad
Novi Sad
Serbia

안녕하십니까?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말하는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휘와 문법을 배우는 것 이외에도, 전통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게 됩니다. 해당 민족의 관습과 정신세계에 있어서 수 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영어가 점점 더 지구상의 제 2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 벌써 10년 이상 노비사드 대학교와 능동적인 상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가 설립 2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을 축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념일을 맞아 노비사드 대학교의 이름으로 앞으로도 성공적인 교육을 펼치시길 기원드리며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세르비아어와 문화를 널리 알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라드밀라 마린코비치-네두친 교수

노비사드대학교 총장
틸라나 수보띠치 교수
인문대학 학장
노비사드, 세르비아

8. 노비사드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축하서신 - Ljijana Subotić

Prof. Kim Seong-Hwan
Department of South Slavic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Yongin Campus
South Korea

**CONGRATULATION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EPARTMENT**

To Professor Kim Seong-Hwan,
a spiritus movens of the Department of South Slavic Studies

and

To the Department of South Slavic Studies, to professors and
students

Dear Prof. Kim Seong-Hwan,
Dear colleagues,
Dear students,

On behalf of professors and students of the Faculty of
Philosophy University of Novi Sad and in my own name I

congratulate you on the 20th anniversary wishing you all the best in the future!

Twenty years ago, when the Department of Yugoslav Studies was founded (1989) which later was renamed into the Department of South Slavic Studies, Prof. Kim Seong-Hwan was the youngest among the other heads of departments at the College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Studies (established in 1987 with the opening of the Department of Eastern European Studies). Under his hand and wise leadership the Department was growing and developing. Many of the teaching staff have mastered their MA and PhD theses in Serbia. Thanks to prof. Kim Seong-Hwan and his young colleagues the Department of South Slavic Studies is today known to have the best faculty in the field.

Faculty of Philosophy University of Novi Sad has very fruitful coope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South Slavic Studies for more than ten years. Three of our professors had the honor to be visiting professors at the HUFS (Prof. Ljiljana Subotić, Prof. Mirjana Jocić and Prof. Gordana Dragin). Korean students regularly come to our Center for Serbian as a Foreign Language to learn and to improve their knowledge of Serbian language, history and culture. Each summer Korean students regularly come to the International Summer School of Serbian Language, History and Culture at the Faculty of Philosophy University of Novi Sad and we regularly offer one scholarship for the best

one of them.

Imagining beautiful and colorful Yongin's autumnal outfit, with the long ginkgo tree lined path, I wish I were with you. ŽIVELI!

Yours Ljiljana Subotić

김성환 교수 귀하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학과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정신적 지주인
김성환 교수님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친애하는 김성환교수님,
친애하는 동료 교수님,
친애하는 학생여러분,

노비사드 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제 이름으로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두들 미래에 최고가 되길 기원합니다.

20년전, 현재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로 개명된 유고슬라비

아어과가 설립되었을 때(1988), 김성환 교수님께서도 동유럽대학의 교수님들 가운데 최연소자이셨습니다.

교수님의 지혜로운 관리와 리더쉽 하에, 학과는 더욱 발전하였고 커져갔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세르비아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교수님과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젊은 동료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비사드대학교 인문대학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와 10년이 넘는 협력관계를 통해 훌륭한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세 분 교수님(Ljiljana Subotić, Mirjana Jocić, Gordana Dragin)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수로 초대를 받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외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학생들은 매년 세르비아어, 역사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르비아어 언어문화연수원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매년 여름 세르비아 언어, 역사 문화를 배우기 위해 국제 여름학교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중 가장 우수한 학생 한 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은행나무 길과 너무나도 아름답고 각양각색인 용인의 가을 풍경을, 20주년을 맞은 이 순간 제가 당신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릴라나 수보띠치

9. Matica srpska 도서관장 축하서신 – Miro Vuksanović

Hankuk Univerzitet za strane studije
Katedra za južnoslovenske studije

Poštovani i dragi prijatelji i kolege,

Puno Vam hvala to ćete sa nama podeliti jedan lep i srećan događaj dvadesetogodišnjicu osnivanja i rada Katedre za južnoslovenske studije u Koreji.

Uz čestitku za izuzetan dan moramo da naglasimo da smo srećni to smo bili a i nastavićemo da budemo deo Vašeg rada. Dugogodišnja saradnja omogućila je da naše dve institucije približe kulturu, običaje i znanje korejskog i srpskog naroda.

U ime Vaših kolega iz Biblioteke Matice srpske, posebno gospođe Mirjane Stojković kao Vašeg dugogodišnjeg i neposrednog saradnika, kao i u svoje lično ime još jednom Vam od srca čestitam dvadesetogodišnji jubilej.

S poštovanjem,

Miro Vuksanović,
Upravnik Biblioteke Matice srpske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 여러분에게,

한국의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설립과 학문연구 20주년을 기념하는 멋있고 행복한 행사를 저희들이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축하인사와 함께 우리들이 함께 했었기에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학문연구에 있어 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협력은 우리 두 기관이 문화, 관습 그리고 한국과 세르비아 민족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띠짜 스톱스카 도서관 동료, 특히 여러분들의 오랜 그리고 직접적인 협력자인 미르야나 스포이꼬비치 여사의 이름으로, 그리고 저의 이름으로 20주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미로 복사노비치,
마띠짜 스톱스카 도서관장

10.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 참사관 – Vladan Šoškić

KATEDRA ZA JUŽNOSLOVENSKE STUDIJE NA
HANKUK UNIVERZITETU ZA STRANE STUDIJE
Seul, R. Koreja

Poštovani,

Zahvaljujem se na dopisu koji ste mi uputili i najsrdačnije čestitam 20 godisnjicu osnivanja vaše cenjene Katedre.

Vrlo mi je drago ako sam makar malo doprineo aktivnostima vaše katedre, koja je dala veliki doprinos unapređenju akademske i kulturne saradnje R. Srbije i R. Koreje, kao i zbližavanju naša dva naroda.

Ne mogu a da i ovog puta ne istaknem nezaobilaznu ulogu osnivača ove katedre, prof. Kima.

Iako nisam više u našoj ambasadi u Seulu, i angazovan sam na drugim zadacima u Beogradu, moja porodica i ja se vrlo često setimo divnih i nezaboravnih trenutaka koje smo proveli sa predstavnicima Katedre. Oni su nam mnogo pomogli da bolje razumemo i zavolimo Republiku Koreju, njenu kulturu, ljude i običaje.

Želimo vam puno sreće i uspeha u vašem budućem radu.

Vladan Šoškić (raniji savetnik u Ambasadi R. Srbije u Seulu)
sa suprugom Sonjom i sinom Budislavom.
Beograd, 8. septembar 2008.g.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제게 보내주신 서신에 감사를 드리며 훌륭한 여러분들의 학과 20주년 설립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두 민족을 가깝게 했음은 물론, 세르비아공화국과 대한민국의 학문적이고 문화적인 협력을 증진시킴에 있어 커다란 공헌을 한 여러분들의 학과활동에 제가 작은 보탬이 되었었다면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김성환 교수님의 학과 설립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을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의 세르비아대사관에 근무하지 않고 베오그라드에서 다른 업무에 참여하고 있지만, 저와 저의 가족은 학과의 교수님들과 함께 보냈던 너무나 아름답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그 분들은 한국과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과 관습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성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블라단 쇼쉬끼치(전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 참사관)
아내 소냐, 아들 블라디슬라브

[학과 재직 외국인 · 내국인 교수님 글모음]

1. 고일 교수

추억 그리고 미래

고일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과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한다. 사람으로 치면 여린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익혀 능숙한 청년이 된 셈이니 참으로 기쁘고 사랑스럽다. 1988년에 유고어과에 입학하여 졸업한 학우들이 지금은 마흔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으니 세월이 빠르다는 말이 절로 실감난다. 이들 또한 2008년에 입학한 후배들을 바라보며 비슷한 감회에 젖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1회부터 10회 가까이 이르는 학우들에게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기억이 더 많다. 일주일에 하루 용인에 출강하여 두 과목을 강의하며 이들과 씨름했는데 강의를 끝나기 무섭게

고속도로가 막히기 전에 차를 운전하여 서울로 돌아오곤 했다. 아무리 시간강사로서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임교수님이 계시지 않은 마당에 좀 더 시간을 내어 이들을 다독여주며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하여 늘 마음 한 켠에 미안함이 남아있다.

그랬다. 80, 90년대는 유고슬라비아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뚜렷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 하여 왜 ‘유고어’를 익혀야 하는지 그 때 학우들은 동기를 찾기 어려웠다. 졸업하여 당장 활용하지 못할 전공을 익히느니 취업에 용이한 영어와 컴퓨터에 전념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학우들도 많았다. 그런 학우들에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유고어과에 재학 중인 여러분이 전공을 게을리 하면 대한민국은 나중에 ‘유고어’가 필요할 때 누굴 믿어야 하는가. 아무나 못하는 ‘유고어’를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전공을 깔고 닦으라.’고 했다. 영어는 누구나 다 하는 외국어 아닌 외국어지만 ‘유고어’는 절대 아무나 할 줄 아는 외국어가 아니므로 비장의 무기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말하며 러시아어를 예로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데올로기가 힘겨루기를 하던 기나긴 냉전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러시아어를 익혀온 노어과 선학들 덕에 드디어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러시아어가 빛을 보지 않았는가 하고 말이다. 더불어 인문과학은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학문이지 생존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거칠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내 경우가 그러했다.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학우들을 달래며 애기하기보다 질타했다. 돌이켜볼 때마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못한 선생의 호통을 묵묵히 들으며 인내해준 학우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낀다.

유고어과에는 정이 많이 들어 용인을 오갈 때마다 학우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눈에 선했다. 마주칠 때 반갑게 인사하던 학우들, 차 마시며 속 얘기를 털어놓던 학우들, 수업 중 눈을 빛 내던 학우들, 이들 모두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 유고어과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과로 거듭 태어났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과는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학우들도 학업에 매진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고 들었다. 졸업생들의 소식도 간간이 들려온다. 잘 지낸다는 소식에는 마음이 놓이고 어렵다는 소식에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한 때 인연이 닿 았던 곳 그리고 정든 사람들이기에 그러한 모양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인문과학은 사람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성찰하는 지혜를 길러주는 학문이지 물질을 늘려주고 일용 할 양식을 얻게 하는 학문이 아니다. 인문과학 중에서도 특히 외국어문학은 삶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포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취업이나 진학에 필 수가 되어버린 영어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셰익스피어, 헤밍웨이 를 모르고 능수능란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이는 영혼이 없이 말만 잘하는 이와 진배없다. 그럴진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를 익히는 학우들은 오죽 하겠는가. 찬란한 유고슬라비아의 과거, 다문화가 공존하는 이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자신의 시야 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언어를 익혀 문 화유산에 이해하면 나라와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온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과의 창립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 고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계신 전임, 비전임 교수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졸업생, 재학생 여러분의 안녕과 대성을 기원한다.

2. 박미령 교수

유고어과와의 인연

박미령

한국외국어대 노어과

유고어과가 생긴 지 벌써 20년이라니. 살면서 세월이 정말 빠르게 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순간이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간혹 잊어버리고 살지만 이런 순간이 되면 내 나이를,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된다. 유고어과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나에게 글을 써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을 때, 벌써 라는 느낌 때문에 한동안 복잡한 심경이었다. 언제였을까? 내가 처음 유고어과와 인연을 맺은 것이. 어떤 계절이었는지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이 가물거릴 정도로 난 나이를 먹었고 유고어과도 성년이 되었다. 유고어과 조교로 왕산을 처음 내려갔을 때, 정말 낯설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서 조교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날 두렵게 만들었다.

유고어과는 그 당시 상황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전임 선생님이 없는 가운데 루마니아어과 김성기 선생님이 학과장을 대신하고 계셨고, 고대에 계신 노어노문학과 고일 선생님이 국내에서 유고어를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어서 출강을 나오셨다. 이 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선생님은 한분 계신 외국인 선생님이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유고어과 1회인 88학번은 사막에서 꽃을 가꾸는 마음이었으리라. 내가 조교로 내려간 때는 88학번들이 후배를 맞이했고 89학번들의 공부까지 책임지면

서 유고어과를 이끌고 있었던 때였다. 어느 과 2학년보다 성숙했던 88학번들, 그리고 89학번들은 유고어과를 지금에 있게 한 주춧돌이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 낯설어하면서 몇 마디 나 뉘보지도 못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는 그들의 눈동자는 지금도 나를 미소 짓게 한다. 그런 그들이 나를 받아주고 그들 곁에 있게 한 데에는 지금 전임으로 있는 김철민 선생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당시 나의 새끼조교였던 그는 내가 낯설고 힘들어하지 않게 내 곁에서 늘 보조해주고 돌봐주었다. 가장 힘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도움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조교로 내려오던 첫날, 낯설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갈 때 김철민선생은 버스 타는 곳까지 나를 배웅해주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나를 따뜻하게 했으며, 늘 고마운 마음을 갖게 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조교생활은 지금까지 내 생애에서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시기였다. 88학번들과 89학번, 그리고 90학번까지. 그들은 내 삶에 행복한 기억을 심어준 소중한 이들이다. 낯설던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는 김철민 선생의 노력으로 아이들이 나에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이후 과사무실은 거의 학생들이 북적였고 내가 마지막 학교버스를 탈 때까지 시끌벅적했다.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다. 조용히 책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왕산을 내려오는 날은 공부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날이다. 하나를 포기하면 또 다른 하나가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내가 퇴근할 때까지 같이 있던 학생들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을 주기도 했으니까. 88학번의 태동이는 나에게 멋진 추억을 준 친구다.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며, 가장이기도 한 그는 언제나 수줍은 듯 양볼이 빨갛고 웃는 얼굴이 예쁜, 그러면서 너무나 감미로운 목소리를 지닌 학생으로 나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 5시 반이 퇴근버스였는데, 5시쯤이었나, 태동이가 노래를 불러주었다. 내 정확하지 않은 기억으로는 ‘비목’이었던 것 같다. 과사무실 창문에 비치는 노을을 배경으로 불러주는 노래는 그 어느 음악회보다도 멋졌다. 영원히 다시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추억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아름다우리라.

태동이처럼 항상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다. 지금은 러시아로 전공을 바꿔서 유고어와 러시아어를 구사하면서 열심히 연구하는 조준래 선생. 조준래 선생은 나에게 참 의외였던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양볼에 볼우물을 만들면서 여자처럼 조용 조용 말하는 예의바른 그는 기타칠 때면 놀라운 기타솜씨와 함께 다른 카리스마를 내뿜는다. 보컬을 했다던가. 조준래선생 외에도 녀석 좋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내 힘이 되어준 또 한사람 박광원, 그리고 정말 막내 동생처럼 날 의지했던 정훈이, 철준이. 그 하나하나 이름들과 그에 얽힌 추억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내린다. 그림다.

선배가 없던 그들에게 난 조교이면서 선배였다.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면 가서 음료수나 뒤풀이를 책임져야 하고 여자가 적었던 과라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들과 함께 뛰고 술 마시고 웃고 했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나래를 펼치고 눈앞을 스쳐간다. 화려했던 내 젊은 시절들. 한창 공부해야 할 대학원 때 공부보다 조교생활에 더 열중했던 그 시절에 대한 후회는 없다. 오히려 그 추억들이 없었다면 나는 삭막한 인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학생들만큼이나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이 있다. 먼저 학과장이셨던 김성기 교수님. 루마니아어과 교수시면서 유고어과 학과장을 맡고 계셨다. 김성환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과를 돌보고 챙겨주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주신 분이다. 김성기 선생님 덕분에 유고어과 학생들과 더 친근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있을 때, 처음 부임해 오신 외국인 교수님인 테레띠치 선생님. 그 당시 학과장을 맡고 계신 김성기 교수님이 공항에 가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는 특명을 나에게 하달했고 난 부름을 받고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을 맞이하러 김포공항에 갔었다.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으니. 그 선생님은 학자셨고 낯선 외국 땅에 와서 조금 힘들어 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책을 좋아하셔서 책을 빌리는 것을 도와주고 필요한 책을 찾아주곤 했으며 공릉동까지 가서 모시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도와주었다. 아마 유고에서도 공부밖에 아무 것도 모르시는 그런 분이었을 것이다.

또 한분. 고려대에서 후학을 위해 용인까지 출강 나오신 고일 선생님. 노어과 선배이면서 선생님이었던 고일 선생님을 제자로서가 아니라 조교와 출강하시는 선생님이셨다. 처음 만났을 때, 조용한 목소리, 맑은 눈, 해맑은 미소, 그리고 바바리코트. 처음 만났을 때, 고일 선생님에 대한 나의 인상이다. 선생님은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엄하셨던 모양이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공과 사가 뚜렷한 분이라는 점이다. 고일 선생님은 지금까지 가끔 뵙지만 엄한 것보다는 따뜻한 쪽에 훨씬 가까운 분이다.

그리고 김성환 선생님. 김성환 선생님은 전생이 있다면 아마도

나와 진한 인연이 있었을 것이다. 김성환 선생님은 내 대학시절 대학 일학년 때 무서운 조교였다. 과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특유의 폐부를 찌를듯한 목소리로 우리를 주눅 들게 했다. 그런 김성환 선생님이 오신다는 얘길 듣고 반갑기도 했지만 사실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선생님을 모시게 될 것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그런데 정작 오신 선생님은 뭐라 할까? 무섭던 조교의 모습이 아니라 막 부임한 푹푹한 새내기 교수님의 모습이었다. 조금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내가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여서 놀라웠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될 일이다.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학생이 아니라 조교의 신분이니 그만큼 나를 대우해주신 것이리라. 김성환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도 내 복이었고 지금까지 보아온 김성환 선생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가슴 속 깊이 묻혀 있는 기억들이 글을 쓰는 동안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유고어과를 거쳐 간 사람들은 모두 저 나름대로 추억을 쌓았고 그 기억들이 좋은 삶든 자신들의 일부분이 되었을 것이다. 나에게 유고어과와의 인연은 내가 살아온 흔적들 중에서도 즐겁고 유쾌한 한 장을 장식한 시절이었다. 아직 젊었던 그 시절, 지금은 어엿한 선생이나 사회인으로 성장한 그 아이들에게서 그 젊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던 꿈 많던 시절을 떠올린다. 지금은 가장으로, 주부로, 사회인으로 나이를 먹은 그들은 언제나 나와 함께 그 시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유고어과 20주년의 시작에 서 있었던 나는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3. Prof. Snježana Zorić

U Koreju sam došla davne 1988. godine na poziv *International Cultural Society of Korea* s namjerom istraživanja korejske kulture. Nakon godinu i pol dana uslijedio je moj rad na HUFs-u koji je uključivao ne samo daljnje istraživanje korejske kulture i jezika nego i prenošenja znanja o vlastitom jeziku i kulturi. Tako je moj boravak u Seoulu poprimio dva lika – suočavanje sa Stranim i Vlastitim istovremeno. Upoznavala sam sve više korejsku kulturu i jezik što me ispunjavalo i bogatilo u svakom aspektu moga bića. Moje dvoje djece, Tihanu i Tihana upisala sam u korejsku osnovnu školi.

Rad sa studentima bio je prekrasan – razvila se među nama jedna komunikacija koja je prevazilazila akademske okvire – neki od studenata nisu me smatrali samo profesoricom nego i „majkom“, a Tihanu i Tihana sestrom i bratom.

Moment Subjektivnog i osobnog izdigao je taj odnos na jednu egzistencijalnu razinu punu odgovornosti koja je zauvijek obilježila naše živote. Nismo više željeli napustiti Koreju, studente i ljude s kojima je život poprimio kako za nas, tako i za njih jedan novi smisao. Koreja je postala našom „drugom“ domovinom.

Nažalost, administrativna pravila izdižu se iznad ličnih i nisu dozvoljavala neograničen boravak tako da je i moj boravak na Katedri nakon tri godine rada završio. Napustivši Koreju tijelom, ona je u našem duhu nastavila i dalje živjeti.

Moj se rad nastavio u domeni istraživanja korejske kulture i

prenošenja znanja o Koreji na različitim europskim sveučilištima, primjerice Heidelbergu, Marburgu i Würzburgu u Njemačkoj, te na Teološkom fakultetu u Brixenu, Italija. Tihana je završila koreanistiku i sinologiju i nastavila svoj studij u Londonu, a Tihan je ostao zaljubljenik u Koreju.

Svima koji su mi omogućili boravak u Koreji i onima s kojima sam zajedno radila neizmjereno sam zahvalna, među njima posebice profesoru Kim Seong-hwanu i Dr. Hong Sah-myungu, čiju očinsku pažnju neću nikada zaboraviti.

Koreja je jedna kulturom osebujna i bogata zemlja, a svojom glazbom i plesnim tradicijama ne može nikoga ostaviti ravnodušnim. Buddhistički i šamanistički rituali, još uvijek živi u svijesti korejskog čovjeka samo su mali isječak iz raznovrsja što ga upoznajemo u susretu s Korejom i njezinim ljudima.

Sretna sam što Katedra slavi dvadesetu godisnjicu svoga postojanja i želim svima koji tamo rade i studiraju puno uspjeha i radosti u učenju našeg jezika i upoznavanju naše kulture te obogaćenje vlastitog horizonta kako je to bilo meni i mojoj djeci u učenju o Koreji. Za susret s Drugim i Stranim potrebna je velika otvorenost spram njega i posebno bi me radovalo kada bi bilo više korejskih studenata na našim sveučilištima.

Želim Vam još jednom mnoge sretne i uspješne godine u budućnosti te velik broj studenata koji će s entuzijazmom nastaviti tradiciju Stranih studija na Vašem fakultetu.

Dr. sc. Snježana Zorić

저는 오래 전 1988년에 한국국제문화협회의 초청을 받아 한국문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는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편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서울에서의 체류는 - 이국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모든 면들을 채워주었고 풍요롭게 해주었던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저의 두 아이들인, 띠한과 띠하나는 한국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학생들과의 수업은 너무나 멋졌고 - 우리들 사이의 대화는 학문적인 틀을 넘어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 학생들 가운데 몇몇은 저를 교수가 아니라 ‘어머니’로, 띠한과 띠하나는 여동생과 남동생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원인은 영원히 우리들의 삶을 기록했었던 책임감이라는 하나의 충만한 존재론적인 수준으로 그러한 우리들의 관계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과, 학생들과 우리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사고를 얻게 하는 삶을 공유했었던 그 사람들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들의 ‘또 다른’ 조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행정적인 원칙들이 개인적인 것 보다 상위의 것이었으며 끝없는 체류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간의 교편생활 후에 학과에서의 체류는 끝을 맺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한국을 떠났으면서도, 한국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와 한국에 관한 지식들을 전하는 저의 일은 유럽의 여러 대학들, 예를 들면,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마르부르그와 뷔르츠부르그 대학교, 이탈리아의 브릭센 신학대학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떠나나는 한국학과 중국학을 마치고 런던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떠한 역시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가능하게 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일했던 분들에게 한 없는 감사를 드리며, 그 가운데 특히 아버지와 같은 배려를 해주신 김성환 교수님과 홍사명 박사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특별하고 풍요로운 나라이며, 음악과 춤의 전통으로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끄니다. 불교와 무속의 의례행위들이 여전히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지만

그러한 다양함 가운데 우리는 한국 그리고 한국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주 작은 부분들만을 마주했을 뿐입니다.

학과가 20주년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저는 행복함을 느끼며 그곳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언어를 배우고 우리들의 문화를 알게 됨에 있어 성공과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제가 그리고 저의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배웠던 것처럼 자신의 지평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다르고 낯선 것들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넓게 열린 마음이 필요하며 더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우리 대학들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저로서는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매해가 되길 다시 한번 기원드리며 많은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전통을 쌓아나가기길 바랍니다.

스네자나 조리치 교수

4. 故 Prof. Svetozar Petrović

* 이 글은 우리 학과에 1993년 9월부터 1995년 8월까지 외국인 교수로 재직하셨던 스베또자르 빼뜨로비치(Prof. Svetozar Petrović) 교수님께서 재직 기간 중 세르비아의 지인께 보낸 편지입니다. 그 사본을 교수님의 사모님이신 라드밀라 기끼치 빼뜨로비치(Radmila Gikić Petrović) 여사께서 편집위원회에 보내 주셨습니다.



PISMO SVETOZARA PETROVIĆA UPUĆENO PROFESORU BORIVOJU MARINKOVIĆU

Seul, 7. I 1994

Draga Ceco, Miro i Boro,

Ovo nije pismo nego naš prilog za vaš kućni naučni skup o Makariju. Prilog, na žalost, nije ni sopštenje ni koreferat nego nekakvo prethodno obavještenje (da se koristi samo u pratećim priredbama): još o svemu znamo vrlo malo; da ne znamo knjige o temi, nije velika nepravilnost, nismo stručnjaci, o tome se od nas i ne očekuje ništa, ali nismo još ništa od materijala ni vidjeli sami ni opipali, a to je ono što se očekuje od nas kao laika a svjedoka (po principu: „da čito – 'odo'“). Nismo još stigli ni na jedno mjesto koje bi bilo za to odlučno važno. Tek sam prekjuče, nakon mukotrpnih istraživanja, uspio da utvrdim da u Seulu postoji specijalizovan muzej stare knjige, i saznao mu adresu (svi koje ovdje znamo tvrdili su nam da u Seulu, doduše, ima na stotine muzeja ali da takvog nema), tako da ćemo otići do njega iduće sedmice, na vrijeme za proslavu ali prekasno za ovo pismo. Na ostrvo Kanghwa (čitaj: Kanhua) prijatelji su nas jednom već bili pozvali, prije tri mjeseca, ali nas je užasna saobraćajna gužva svratila u Inch'ŏn (Inčhŏn) u riblji restoran na rivi; planiramo ponovo put tamo iduće subote. U manastir Haein (Hä-in) mogli bismo stići kad pođemo u Kyŏndu), ako se ne pokaže da su u pravu naši ovdašnji znanci koji tvrde da turisti nemaju pristupa manastiru, pogotovo ne biblioteci (uprkos onome što ćete na priloženom snimku pročitati).

Umjesto izvještaja o ozbiljnom radu, tj. 'odanju, zato, samo feljton o onome što mi sada iz čorbinih čorba možemo iscijediti o počecima korejskog štamparstva.

Otkad u Koreji traje štampanje po drvenim blokovima na

kojima je urezan slog (woodblock printing), na kineski način, još ne znamo da li se zna. Po knjigama čovjek nailazi na fotografije pojedinih strana iz tako štampanih u Koreji spisa (najobičnije ilustrovanih budističkih sutra) iz vrlo ranog vremena (najstariji primjer na koji sam naišao je iz 11. vijeka). Najvažniji korejski posao u ovoj vrsti štampe je objavljivanje čitavog budističkog kanona, Tripitake. Od prvog takvog pokušaja za koji se zna, a koji se obično stavlja u 11. vijek, nije ostalo ništa; već pripremljen slog, po kome, valjda, ni jedan primjerak nije bio još štampan, uništiti su u jednoj invaziji Kitani, neka vrsta Mađara, ili sličnog nekog drugog zapadnog naroda.

Nov slog priprema se od 1237. na ostrvu Kanghwa, kamo su pred Mongolima izbjegli vladari iz dinastije Koryo (Korjo, po njima evropsko ime za zemlju koja se danas zove Hanguk, ili ceremonijalno malo prošireno). Drvo je uvezeno iz Kine, močilo se onda tri godine u slanoj vodi i tri godine u slatkoj, tri godine bilo zakopano u zemlji a tri se sušilo na otvorenom. Urezivanje je trajalo 16 godina, i tako je pripremljeno – po raznim izvorima – 81.258 odnosno 86.600 blokova sa tekstom na obe strane (na strani prosječno 22 reda po 14 znakova u redu); blokovi su formata, u inčima, 9,5 x 29 x 2,5. Po tom slogu je onda štampana danas slavna Tripitaka Coreana, danas najstariji i najbolje sačuvan potpun tekst budističkih svetih spisa na svijetu, u 6.780 tomova. Sačuvana su tri primjerka štampanog teksta ali je sačuvan i čitav slog. On je, kad su se prilike promijenile i ostrvo postalo nesigurno, prenesen u hram/manastir Haein, u

blizini mjesta Taegu (Tägu), na jugoistoku zemlje, i tamo smješten u posebno izgrađenu biblioteku čiji su graditelji, pokazalo se, dobro odmjerili poželjnu vlagu i temperaturu. Tih 400 km prenijele su ga 1488. godine pješke budističke kaluđerice, svaka sa po jednim blokom na glavi.

Sve je to, naravno, samo predistorija današnjeg štamparstva. Najviše šanse danas prevedu u istoriju imali su, izgleda, Kinezi, ali su zabrljali. Oni su neku vrstu pravog štamparskog sloga – nečeg što se slaže (engleski bi se to reklo movable type) – i zamislili, još u vrijeme dinastije Sung, u 11. vijeku; ali zamisao se nikad nije pretvorila u praksu koja bi išla dalje od eksperimenta, bilo zato što su rezbarenje u drvetu previše voljeli, bilo zato što njihovoj potrebi za velikim tiražima nova tehnika nije odgovarala, pogotovo zato što su slog htjeli da rade iz gline. Pravi štamparski slog – movable metal type – stvorili su Korejci, ne zna se tačno kada ali svakako prije 1234 (neki misle: još u drugoj polovini 12. vijeka, drugi: tek kad su vladari iz dinastije Yi Kyu–bo (I Kjo–bo) imao je, zapisano je, prije smrti (1241), 28 primjeraka jedne knjige štampane novim načinom na Kanghwi. Ne zna se koji je metal korišćen za slog za prva izdanja; misli se: bakar; kasnije se koristi bronza. Najstarija danas sačuvana a datirana štampana knjiga je iz 1377. a nalazi se u pariškoj Nacionalnoj biblioteci.

Za vreme dinastije Koryo pravo štamparstvo ostalo je ipak, izgleda, u sjeni štampanja po drvenim blokovima; svakako, ostalo je u sastavu istoga državnog ureda za štamparstvo. Stvar

se promijenila sa novom dinastijom, Yi (I). Već prvi kralj nove dinastije 1392. osniva poseban resor za novu vrstu štampe, a drugi, T'aejong (Thădon), objašnjava 1403. da je glavni razlog prihvatanja novog izuma štedljivost: „Da bismo u državi imali dobru upravu, moramo mnogo da čitamo. Budući da je Koreja daleko na istoku od Kine, knjige se teško nabavljaju. Ako želimo da ih prešampamo, moramo da izradimo nove blokove za štampanje, a to je ogroman posao a blokovi se, uz to, lako lome. Teško tako možemo da šampamo sve knjige koje su nam potrebne. Zato odlučujem da se izradi metalni slog od bronzе, tako da možemo da prešampamo svaku novu knjigu do koje dođemo.“ Istovremeno je određen i standardan tip znakova, nazvan kyemi (kjemi), po imenu godine u kojoj je stvoren; slog tipa kyemi, iz 1403, sačuvan je, i to je danas najstariji sačuvan a datiran šamparski slog. Tipovi sloga se poslije toga više puta mijenjaju (već 1434. kyemi zamjenjuje kabin) ili se jednostavno novi dodaju i repertoar širi.

Eto, to je sve što se o tome danas zna. (U Na—dong 107)

Srećnoga vam Makarija svima želi Sveto

Postskriptum, 8. I 1994.

Koliko nauka danas brzo napreduje, vidjeće se po ovome što slijedi. Sasvim neplanirano, švrljajući po gradu, stigli smo danas poslije podne u Nacionalni muzej (to je glavni narodni muzej, ne onaj ranije ovdje spomenut). I tamo vitrina o počecima šamparstva: eto, pro'odasmo. Drveni blokovi su veći, i djeluju

impozantnije; sad shvatam i kako se s njima radilo: nasađivao se svaki u par drvenih ručki i onda se, kao pečat, pritiskao na papir. Dobro istrošeni i izmrljani, djeluju i oni kao pravi štamparski slog. Gotovo da shvatim Kineze. Metalni pokretni slog djeluje neuglednije (Radmila, koja je vitrinu, i trenutak prepoznavanja, ovjekovječila kamerom, samo ga je repom snimka zakačila); u stvari, slog k'o slog. Pravo iznenađenje u ovom muzeju bilo mi je nešto treće: cigle sa ispisanim tekstom na tanjoj dužoj strani, i to tekstom koji je služio ili mogao da služi otiskivanju na papir, i takvih papira je nešto sačuvano, a cigala ko đubreta, po principu: gdje god nađeš zgodnu ciglu, tu natpis ureži. Najstarija izložena koju sam zapazio datirana je 5. vijekom.

故 스베토자르 페트로비치 교수님께서
보리보이 마린코비치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1994년 1월 7일, 서울

친애하는 제자와 미라 그리고 보라에게,

이 글은 편지라기보다는 마카리예(Makarije)에 관한 여러분의 가정 학술회를 위한 우리들의 별첨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별첨글은 보고서나 공동 발표문이 아니라 일종의 기존 설명문 같은 것입니다(그것도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서만 이용되어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별로 없으며, 관련 주제

에 관한 서적들도 모르고,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보고 접한 바도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마추어적인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아직 꼭 가봐야 한다는 곳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생한 끝에 그저께가 되서야 서울에 특별한 고서박물관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이곳의 지인들 모두가 우리에게 서울에 수많은 박물관이 있어도 그런 박물관은 없다고 확인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기념일을 기해 그곳에 가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 편지에 쓰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강화도에는 3개월 전쯤 친구들이 우리를 데려갔었는데, 교통이 혼잡해서 결국 인천의 해안가에 있는 한 Hits집에 들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다시 한번 갈 생각입니다. 우리는 경주에 갈 때 해인사에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물론 패키지 여행을 따라 가면 절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며 절에 있는 도서관은 더더욱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 곳 친구들의 말이 그대로 믿을 게 아닌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동봉되어 보내질 사진에서 그 내용에 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세한 연구물에 대한 정보 대신에 한국의 인쇄술에 대한 간략한 칼럼 수준의 글을 써보자 합니다.

한국에서부터 계속되어온 판목을 이용한 인쇄, 즉 ‘우드블록 프린팅’이라고 하는 목판인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방식이지요. 책들마다 사람들은 매우 오래 전 시대(제가 찾아낸 가장 오래된 예는 11세기부터입니다.)의 두루마

리로 필사된 각각의 장에서 사진들을 찾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삽화는 부처의 내일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인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의 성전을 완벽하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첫 번째 시도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아무것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11세기에 사용되어 왔나 하는 것입니다. 이미 쓸만한 인쇄판은 준비됐으나 어떠한 인쇄 표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헝가리의 경우처럼 북방민족의 침입이나 비슷한 예로서 서양세력의 침입 시에 소실되었습니다.

강화도에서 1237년에 나온 새로운 인쇄판이 있습니다. 강화도는 몽고인들에 대항하여 고려왕조의 지배세력이 피신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의식적으로 이름이 약간은 확대 해석된 경향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3년은 바닷물에 담그고 또 다른 3년은 단물에 담근 후, 3년을 땅에 묻어두고, 마지막 3년은 바람이 불고 해가 뜨는 곳에서 말린 것입니다. 그러한 인쇄목판으로 글씨를 새기는 작업이 16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작업은 수많은 선택을 거쳐 약 81,258에서 86,6000개 정도의 양쪽으로 글씨가 새겨진 판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한쪽은 평균적으로 글자가 22열이고 열마다 14개의 글자가 적혀있습니다.) 인쇄목판들은 고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가로 9.5, 세로 29, 두께 2.5 인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쇄목판으로 오늘날 유명한 팔만대장경으로 알려진 인쇄물이 탄생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훌륭하게 보존된 부처의 성전이 기록된 6,780권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대장경은 인쇄본으로는 3부가 남아있으나 대장경 자체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장경은 강화도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 대구와

가까이 있는 남동쪽의 땅인 경주 해인사로 옮겨지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대장경은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한테 보존될 수 있다고 판명되어 건축가 소유인 특별한 도서관에 안장되었습니다. 4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통해 대장경이 1488년 불교승려들의 스스로의 머리에 대장경 판들을 하나씩 올려진 채 도보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연하지만 오늘날 인쇄본들의 매우 오래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저분한 중국인들처럼 역사에 기록될 수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인들은 진정한 인쇄판을 가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동의하고 상상해온 것은(특히 영국인들은 그것을 활자인쇄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11세기에 송이라 불렀던 왕조가 존재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그러한 계획이 실험을 통하여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방법이 있었고 그 새로운 인쇄목판 기술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토를 통해 인쇄판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인쇄판 - 금속활자 의 시대는 한국인들이 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알려져 있진 않지만 1234년 전 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세기 중반 이후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들은 고려왕조시대의 이규보의 죽음 이후 강화도에서 새로운 활자인쇄 방법으로 28권의 책 인쇄본이 탄생하였는데 이것이 1241년에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인쇄판에서 어떠한 금속으로 판을 만들었는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보통 후에 구리로 쓰이게 되는 동판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날 보존된 가장 오래된 인쇄본은 파리의 국립박물관에 있는 1377년에 나온 것입니다. 고려왕조 시대에

진정한 인쇄술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물론 목판인쇄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쇄술의 시대를 연 동방의 국가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성을 가진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초대 왕은 1392년 조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쇄기술을 위해 특별 연구부서를 창립했고 두 번째 왕인 태종은 1403년 새로운 아이디어인 절약에 대한 주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나라에 훌륭한 행정부서가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차후에 우리와 중국은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책을 얻는 것은 여간 어렵지가 않다. 만약 우리가 책을 인쇄하려 한다면 우리는 인쇄를 위해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판은 쉽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모든 책을 쉽게 인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리로 만든 인쇄판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새로운 책들을 인쇄본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동시대에 활자를 만들 수 있는 표준 기술이 정립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재미라고 부릅니다. 재미라 불리는 이 활자기술은 1403년 탄생했고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오래된 인쇄기술로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 후 활자 기술은 여러 번 수정되어 왔습니다. (1434년 재미활자는 kabin으로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형태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알려진 활자인쇄에 관한 전부를 소개했습니다.

마카리에의 모든 분들에게 스페토자르가 안부를 전합니다.

추신, 1994년 1월 8일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가는 다음 사실에서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 도시의 이 곳 저 곳을 헤매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국립박물관에 가게 되었습니다(이 박물관은 진짜 국립박물관입니다. 지난 번에 말했던 그 곳이 아닙니다). 그 곳에 인쇄 기술의 시작에 관해 해설이 달린 진열대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목판이 더 커서 좀 더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 목판으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무 목판에 짝을 맞추어 나무를 심고 인장처럼 종이에 찍어냈던 것입니다. 그 재료들은 진정한 인쇄판으로서 사용되고 얼룩이 남고 나뉘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의 경우도 이제 이해가 될 듯합니다. 금속활자는 좀 더 음각적이었습니다(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라드밀라는 카메라를 통해 진열대를 찍어 영원히 남기려 했지요). 이곳 박물관에서 제게 진정한 놀라움을 선사한 것은 세 번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얇은 면에 글이 쓰여진 벽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종이에 인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종이들도 일부 보관되어 있었는데, 벽돌들은 버려진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벽돌들에는 비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시된 벽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5세기경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Radmila Gikić Petrović

OSTRVO KANG HVA

Prolaze dani u Seulu, a nama nikada dovoljno vremena za nova saznanja, lutanja i šetnje po gradu i okolini. Ovaj vikend planirali smo da obiđemo okolinu grada, i ono što bi Gaju radovalo, a to je odlazak na safari, ali smo zbog iznenadne vejavice i snega odustali.

Zato smo se odlučili da idemo na Ostrvo Kang Hva do, (*do* znači ostrvo), i nalazi se na ušću reke Han, severno od Inčona, a u Inčon smo bili ranije. Sada smo iz Seula prošli blizu aerodroma Kimpo, na trenutak je zaiskrila želja za svim dragim ljudima koji su daleko od nas, ali, večito saznanje da smo i ovde samo privremeno, odagnalo je tugu. U stvari, tek sam odlaskom na ovo Ostrvo osetila izlazak iz Seula, jer je grad toliko velik da se retko ili nikako ne može primetiti napuštanje grada. (Osim kada se ide kod Svete na Jongin, na fakultet). Ovo ostrvo je treće po veličini u Koreji, a ima ih mnoštvo. Istorija Koreje pripisuje ostrvu važnu ulogu od samog iskona zemlje. Na ostrvo se stiže mostom koji je dug 694 metara.

Bilo je prilično hladno i vetrovito. Čim smo prešli most naišli smo na Muzej. Ispred je bila neka drvena barka (brodić) koju je Gajo pažljivo razmotrio. A Sveto je sav zadovoljan obilazio Muzej jer je pre toga dosta o svemu pročitao i pričao nam dok smo ga obilazili, na primer, o tragovima života ljudi još iz

najstarijih vremena, o Dolemenima i grobnim humkama još iz doba Neolita.

Na ostrvu se nalaze ostaci tvrđave Kapkot. Odbrana prestonice odvijala se upravo na ovom mestu gde su sada ruševine nekadašnjeg utvrđenja, kada je dinastija Korijo 1230. godine prešla na Ostrvo. Zgrada Muzeja nalazi se zapravo u zagrljaju tvrđave Kapkot, njenih ostataka i nanovo sagrađenih delova. Tvrđava je nekad, od vremena prelaska vladara Korijo na Ostrvo (1239) godine bila deo odbrane nove prestonice. Funkciju prestonice, Kanghua je vršila 39 godina od 1239. do 1270. godine, dok nije ustanovljen mir sa Mongolima.

Odavde, na žalost, nismo svraćali u današnji grad Kanghua, na koji se nadovezuju ostaci nekadašnjih palata i zamkova. Sa mnogo pojedinačnih uglavnom nanovo sagrađenih objekata, zgrada, i gradskih kapija (sa jedne od njih, severne, vladari Korijo mogli su da vide velik deo korejskog kopna i prestonicu, Kesong). Sve smo to mimoišli i produžili na trajekt za ostrvo Songmo (songmo – do= ostrvo), južnije od dva ostrva koja se sa zapadne strane oslanja na ostrvo Kanghua. Ovde smo parkirali kola i kroz red radnjica i dućančića, tezgi sa svakojakim oraščićima i ginsenom (ova su ostrva proizvođač, možda, najcenjenijeg ginsena, čaja), uspeći smo se do vrha hrama Pomunsa. Penjući se ka vrhu, u predasima, podsetili smo se legende o gradnji, o ribaru i njegovom čudesnom snu, o dvadeset i jednom kamenčiću, i budističkom monahu. Na tom brdu u steni uklesan je „Maja Buda“ – Milostiva Božica, 32 stope uvis i 11

stopa u širinu. Te 32 stope označavaju 32 lika Milostive Boginje, a 11 stopa u širinu su 11 faza u reinkarnaciji. Sve su to uradila dva budistička monaha: prvi je bio glavni Pomunse, a drugi je bio glavni monah budističkog ostrva sa Kanghue. Klesali su Budu dvadesetih godina našeg veka (1921) po onome što piše u knjizi, ili (1928) po onome što piše na brdu. Za onoga ko se na vrhu brda nije pomolio, ni zapalio sveću, a ko se ujedno nije pentrao na kamenu kornjaču na koju smo negde na trećinu uspona i naišli, jedina satisfakcija u uspinjanju do tog, kako se tek na kraju otkrilo, sasvim skorašnjeg kiča, mogla je da bude u prekrasnom pogledu koji se pružao preko kamenih hridi i grana bezbrojnih drveta na more i ostrva među kojima se negde morala prostirati granica dveju Koreja. Opet su nas sustigle pomisli na naše granice, na Hrvatsku i Srbiju, o čemu se svakodnevno pune stubci i ovdašnjih novina. Tu je i Bosna sa stravičnim snimcima nasilja.

U povratku snimala sam sela, ali su me saputnici svaki čas opominjali, da ne snimam vojnike, a zapravo, ja sam kamerom htela da obuhvatim dva njihova totema, dva njihova znamenja. Ta dva šamanska totema koja su postavljena na ulasku u selo, štite stanovnike od zla, i zovu se Čang Gung, muški i ženski. Oni su straža protiv duhova koji uvek vrebaju da uđu u seoske kuće i naprave grdne nevolje.

Došli smo ponovo do obale i dok smo čekali brod a se vratimo, svi, osim Gaje i mene, jeli su neke „ukusne bele rakove“, tu ispred nas pečene, dok ih je jedna starica čistila i vadila iz

mreže. A svuda po obali, na kamenju, beleli su se ostaci od školjki i rakova. Galebovi su nas sve vreme pratili, nadletali brodić, njihovi krici su odjekivali hladnim i mračnim nebom, samo je Gajo uživao posmatrajući ih sa palube ili iz kabine.

Na povratku smo ponovo prošli sredinom ostrva pa skrenuli ka jugu. Ostavili smo po strani tvrđave, na istočnoj obali ostrvo, prema kopnu, koje su građene u eri Čoson, u vreme dinastije Ji (ili I), uglavnom iz XVII i XVIII veka radi odbrane morskog puta prema novoj prestonici, današnjem Seulu. Te su tvrđave bile važne u drugoj polovini XIX veka u borbi protiv Francuza i Amerikanaca. Prošli smo, a nismo ih ni videli, tik pored njih. Išli smo prema jugu, prema planini Manisan, gde se nalazi oltar na kome je Bogu žrtvu prinosisio mitski Tangun, i na kome su, kažu istorijske hronike, zajedno služili vladari triju kraljevstva Kogurijo, Šila i Pekče. Odatle se i uzimala vatra i odnosila za olimpijade u Koreji. Na vrhu te planine Manisan (san=planina) postoji oltar od granita (ime mu je Čam song dan) za koji se uzima da ga je podigao Tangum, mitski osnivač Koreje, pre skoro pet hiljada godina. Na to brdo jedan je od kasnih korejskih kraljeva 1661. godine preselio korejske istorijske arhive.

Ali, mi smo se zaustavili ranije, na istočnim vratima tvrđave Samrangsong. Ta je tvrđava, naravno ne u današnjem obliku, starija od vremena u kome su vladari Korijski dali ostrvu njegovu izuzetnu istorijsku važnost. Po legendi, tvrđavu su izgradila tri sina Tangunova. Na prostoru tvrđave 1259. godine dinastija Korijski gradi i svoju palatu a 1660. godine izgrađen je tu bio i

Arhiv za čuvanje hronika dinastije Čoson. U drugoj polovini devetnaestog veka bio je tu i jedan od najvažnijih okršaja sa francuskim kaznenim ekspedicijama. Upravo uz istočna vrata postavljen je spomenik generalu Jang Honsuu koji je 1866. godine namolio a onda teško porazio Francuze na prilazu ovoj tvrđavi. Meni se jako svidela, tako mala i sićušna.

U jednom delu tvrđave, nalazi se hram Čundugsa, najvažniji i najznačajniji sačuvan istorijski budistički spomenik. Legenda kaže da ga je još u četvrtom veku osnovao monah Ado. Ne zna se kada je sagrađen, ime je dobio po daru jednog Korijskog kralja, a glavna zgrada podignuta je 1621. godine. Oko nje je mnogo više drugih zgrada, zvono, itd. Za taj hram vezuju se i jedan od najvažnijih događaja u istoriji korejskog štamparstva. Tu su se verovatno pripremali drveni blokovi i tu se valjda štampala slavna *Tripitaka koreana*. Tu je stvoren prvi u svetu metalni pokretni slog, tj. ono što je dvesta godina kasnije za Evropu stvorio Gutenberg.

Da se sve te stvari događaju upravo na ostrvu Kanghva, razlog je što su ovamo u više navrata prelazili vladari dinastije Korjo, povlačeći se pred upadima mongolskih i drugih osvajača. Upravo kao svojevrsnu žrtvu nebesima koja je trebalo da prati njihove molitve za pobedu nad osvajačima, moramo da shvatimo i njihove velike štamparske poduhvate.

Na izlasku iz Tvrđave čekao nas je već sumrak. Kupili smo samo razglednice, a Gajo je u podnožju „klesanog Bude“ kupio sebi jednog „dečaka Budu“. I otišli smo u restoran, ne u *Počang*

mača, restoran—krčma gde se samo pije sodžu, već i onaj gde se jede kuvane kokoške, kao posebna poslastica.

Noć, ponovo smo prošli u blizini aerodroma Kimpo.

강화도

서울에서의 생활이 하루하루 지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발견이나 한가하게 산책하고 시내나 시외를 살펴볼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는 교외로 나가 사과리 구경을 하기로 해서 가요(*Gajo, 빼뜨로비치 교수님의 아들)가 기뻐했지만, 갑작스런 눈 때문에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강화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화도는 우리가 예전에 가봤던 인천보다 북쪽에 있는 한강 하구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 막 서울로부터 떠나 김포공항 인근을 지났으며, 순간 우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리운 마음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이곳에 그것도 일시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鄉愁를 떨쳐내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섬을 향해 출발했을 때에야 비로소 서울로부터 벗어났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용인캠퍼스에 있는 스페타의 연구실에 갈 때를 제외하고, *스페타: 스페또자르의 애칭) 서울이라는 도시가 무척 크기 때문에 도시를 벗어난다는 것을 드물게 깨닫거나 혹은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섬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국가가 생겨나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섬의 중요한 역할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694미터에 달하는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비교적 춥고 바람이 부는 날씨였습니다. 우린 다리를 건너자마자 박물관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는 조그마한 나무 배가 있었으며 가요는 그 배를 주의 깊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것에 관해 충분하게 읽었기 때문에 스베파는 만족감에 젖어 박물관을 꼼꼼히 둘러보셨고, 예를 들면, 먼 옛날 인간의 삶의 흔적들에 관해서 그리고 고인돌과 작은 봉분으로 이루어진 신석기 시대의 무덤들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섬에는 갑곶 요새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1230년 고려왕조가 섬으로 건너왔을 때, 이곳은 한때 요새였었고 지금은 옛터만 남아있는 이곳에서 왕조의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물관 건물은 바로 갑곶 요새와 요새의 흔적들 그리고 새롭게 건축된 부분들의 품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한때, 고려의 통치자가 섬으로 건너왔던 그 시절로부터 새로운 왕조의 방어지역이었습니다. 몽골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화는 1239년부터 1270년까지 왕조의 수도로써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아쉽게도, 우리는 옛 왕조와 성의 흔적이 이어져 있는 오늘날의 강화시를 들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개별적인 그리고 주로 새롭게 건축된 건조물들, 건물들, 도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 가운데 북문으로부터 고려의 통치자들은 한반도 땅의 큰 부분이자 수도인 개성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린 그 모두를 지나쳐, 강화도의 남쪽 부분에 면해 있는 두 개의 섬보다 더 남쪽에 있는, 석모도(석모-도, **도**는 섬이라는 의미)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곳에 차를 주차하고 온갖 종류의 견과류와 인삼들(이 섬은 아마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인삼과 차들의 생산지일 겁니다)을 진열해 놓은 상점들과 상점가판대들이 늘어서 있는 곳을 지나, 보문사라는 사찰 정상에 올랐습니다.

숨에 차 정상을 향해 오르며, 우린 건축에 관한, 한 어부와 그의 이상한 꿈에 관한, 스물 한 개의 돌과 불승에 관한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그 언덕 위에 있는 돌에는 „마애관음보살(높이는 32척이고 너비는 11척인 자비하신 여신)“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32척은 자비로운 여신의 32가지 모습, 11척에 달하는 너비는 환생의 11단계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을 두 명의 불승이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보문사의 주지였으며, 또 다른 사람은 강화도 불섬의 주지였습니다. 책이나 언덕 위에 씌어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1920년대(1921년)에 부처를 새겼습니다. 언덕의 정상에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초에 불을 붙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오르막 부근에서 만난 나중에 안 것이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가치 없는 거북바위에 오르지 않는 사람은 그곳까지 오르는 만족감을 얻을 없는데, 기암절벽 너머와 바다와 어딘가 두 개의 한국의 국경이 펼쳐져 있을 섬들 사이로 뻗어있는 수많은 나뭇가지 사이로 펼쳐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곳의 신문과 신문칼럼을 채우고 있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라는 우리들의 국경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참혹한 폭력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보스니아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난 마을사진을 찍었는데,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은 매번 군인들을 찍지 말라고 조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난 사실 카메라로 그들의 두 개의 토템, 그들의 두 개의 상징물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개의 샤먼적 토템은 마을의 어귀에 자리해있었는데, 악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장승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마을의 집들로 숨어들어 커다란 불행을 야기하는 영혼들에 대항하는 수호신입니

다.

우리들은 다시 해변으로 왔으며 배를 기다리는 동안, 가요와 나를 제외하고 모두들,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물에서 끄집어 내 깨끗이 닦아 우리들 앞에서 구운 „맛있는 하얀색 가재“를 먹었습니다. 해변의 곳곳, 바위 위에는 조개와 가재의 잔재가 하얗게 남아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은 내내 우리들을 따라다녔으며, 작은 배 위를 날았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는 차갑고 어두운 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가요만이 갑판과 선실로부터 갈매기들을 바라보면 즐거워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또 다시 섬의 중앙을 지났으며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섬의 오른쪽 해변에 있는, 주로 17, 18세기 이씨 왕조시대에 오늘날의 서울인 왕조의 새로운 수도를 향한 해상로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지어진 요새의 한 쪽을 보았습니다. 그 요새들은 프랑스인들 그리고 미국인들과의 전투가 벌어진 19세기 후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나쳤는데, 그것들을 보지 않았으며 잠시 그 옆에 가까이 갔을 뿐입니다. 우린 남쪽을 향해, 신화 속에서 단군이 신께 제물을 바쳤던, 그리고 역사적 연대기들이 밝히고 있듯, 고구려, 신라 그리고 백제의 통치자들이 사용했던 제단이 위치해 있는 마니산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한국에서의 올림픽 성화가 채화되었습니다. 그 마니산(‘산’은 ‘planina’라는 의미) 정상에는 화장암으로 만들어진 제단(그 이름은 첨성단입니다)이 있으며, 거의 5천년 이전에 한국의 신화적 창시자인 단군이 세웠습니다. 1661년 한국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언덕 위에 한국 역사의 고문서들을 옮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삼랑성이라는 요새의 동쪽 문에 멈췄

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형태가 아니었을 그 요새에는 고려의 통치자들이 섬에 매우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단군의 세 아들이 요새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1259년 요새의 공간에 고려왕조가 자신들의 궁전을 지었으며 1660년 조선왕조의 연대를 보호하기 위한 문서보관소가 지어졌습니다. 19세기 후반에 그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프랑스와의 토벌전 가운데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동쪽 문과 함께 이 요새에 접근하려는 프랑스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들을 격퇴시켰던 양헌수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작고 조그마한 것이 아주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새의 한 쪽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현존 역사적 불교유적인 사찰 충덕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미 4세기에 아도라는 스님이 기초를 세웠다고 합니다. 언제 건축이 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은 한 고려 왕이 하사하여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 건물은 1621년 세워졌습니다. 그 건물 주위로 다른 많은 건물들과 종 등이 있습니다. 한국 인쇄술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 사찰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분명 그곳에서 각재가 마련되었으며 어쩌면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인쇄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200년 후에 구텐베르그가 유럽을 위해 만든 금속활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강화도에서 일어났으며, 그것이 바로 몽골과 또 다른 정복자들의 침입 앞에서 물러서며, 고려왕조의 통치자들이 수 차례에 걸쳐 이곳으로 건너온 이유입니다. 바로 정복자들에 맞서 승리를 기원하면서 하늘에 바치는 자신들의 제물처럼, 우리는 그들의 위대한 인쇄업적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요새로부터 나왔을 때 이미 어스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림엽서만을 사고, „새겨진 부처“가 있던 곳 바로 아래에서 가요는 „아기 부다“ 모형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린 소주뿐만이 아니라 별미로써 구운 닭고기도 먹을 수 있는 선술집인 포장마차가 아니라,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밤에, 우리는 또 다시 김포공항 부근을 지나갔습니다.

6. Prof. Predrag Piper



НА ДВАДЕСЕТУ ГОДИШЊИЦУ КАТЕДРЕ ЗА
ЈУЖНОСЛОВЕНСКЕ СТУДИЈЕ ХАНКУК УНИВЕРЗИТЕТА ЗА
СТРАНЕ СТУДИЈЕ

Уздајући се у тачност познате мисли да временска и просторна
дистанца имају добре стране у сагледавању појава чију суштину
желимо да кратко и тачно да изразимо, с радошћу се одазивам
позиву да јубилеју Катедре за јужнословенске студије Ханкук
универзитета за стране студије дам свој макар и скроман прилог.

На Катедри за јужнословенске студије провео сам три школске
године, од 1994. до 1997, у време када је се она приближавала
заокруживању прве изузетно успешне деценије свога рада.

Предајући на тој катедри, много лепога сам чуо о њеним почецима и о времену које је претходило мом доласку на Ханкук универзитет, а по свом одласку из Кореје у сталним контактима са професорима Катедре и некадашњим студентима био сам у прилици да пратим како се Катедра и даље развијала непрекидном узлазном линијом.

Почетку стварања Катедре за јужнословенске студије на Ханкук универзитету, као једном од најјачих регионалних центара за стране студије у том делу света, претходила је мудра одлука управе Универзитета да оформи катедру на којој ће се дугорочно и на високом наставном и научном нивоу формирати стручњаци за југословенске, а данас и јужнословенске језике, књижевности, културу и историју јужнословенских народа, као и једнако мудра одлука да се руковођење Катедром повери проф. Ким Сонг—хвану, у којем су се срећно објединили одлично познавање јужнословенске проблематике, таленат за руковођење, велики ентузијазам и прегалаштво, као и дар за одличну сарадњу и са професорима и са студентима. Захваљујући тим драгоценима особинама проф. Ким Сонг—хвана, Катедра је живела и живи као велика породица, у којој су сви вођени истим циљем да што боље обаве свој посао, на радост и корист — и своју, и својих породица, и универзитета, и корејског народа и народа чије језике, књижевности и културе проучавају или предају. Те своје особине проф. Ким Сонг—хван зналачки је пренео на своје најближе млађе сараднике, од којих су неки у међувремену стасали до универзитетских професора,

руководилаца Катедре, врсних преводаца и угледних стручњака за уже области за које су се определили.

Био сам почаствован могућношћу да на Катедри за јужнословенске студије Ханкук универзитета предајем српскохрватски језик, да започнем предавања из словеначког и македонског језика, да стекнем много пријатеља међу корејским професорима и студентима, а поврх свега да упознам дивну корејску земљу и корејски народ. Отада носим чаробан део сећања на тај период мог живота, а сигуран сам да слична сећања на Кореју имају и други страни професори који су предавали на Ханкук универзитету.

На Празник дрвета 1996. године, заједно са проф. Ким Сонг-хваном, засадио сам у кампусу у Јонгину младо дрво и пожелео му дуг живот. Надам се да то дрво расте и цвета. Истовремено сам и у својој души засадио цветно дрво, које ме увек подсећа на Кореју. Катедра за јужнословенске студије Ханкук универзитета за стране студије однеговала је за протекле две деценије разгранато племенито дрво научног и наставног напретка које непрестано даје нове лепе плодове. Најсрдачније желим професорима и студентима Катедре за јужнословенске студије да у свему буду увек срећни и успешни на радост свога народа.

Предраг Пипер,
дописни члан САНУ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창립 20주년에 부쳐

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음이 우리가 그 본질을 짧고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는 명언의 정확함을 확신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20주년 기념행사 초대에 응하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저의 글을 보냅니다.

저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가 유고어과란 이름으로 존재할 때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년의 시간을 학과의 외국인 교수로서 지냈고 또한 그 기간 중에 제 연구활동 10년 중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유고어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는 학과의 시작과 제가 학과에 오기 전 시기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제가 한국을 떠나고 나서는 학과에 계신 한국인 교수님들과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학과가 멈추지 않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학 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인 한국외국어대학이 유고어과를 개설한 것은 학교 당국의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학과는 유고학 및 남슬라브학 교육과 연구의 장기적 기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유고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하에 학과의 교육 내용을 남슬라브지역의 언어와 문화, 역사, 정치 등으로 변환시킨 김성환 교수님의 결정 역시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김성환 교수님은 유고지역의 현안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뛰어난 지도력과 뜨거운 열정 그리

고 학과의 다른 교수님들과 학생들과의 융화를 통해 학과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김성환 교수님의 특별한 자질 덕분에 학과의 구성원들은 한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두 같은 목적 아래 자신의 일을 더 나은 방법과 즐겁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수행할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김성환 교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젊은 동료들에게 전수해주었고, 그 분들은 시간이 지나 교수가 되고 학과를 이끄는 구성원이 되었으며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외대 유고어과에서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를 강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슬로베니아어와 마케도니아어를 처음으로 가르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인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멋진 한국의 풍경과 한민족에 대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는 제 인생에 있어서 마술세계와 같은 추억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에서 강의를 하였던 외국인 교수님들 모두 한국에 대한 저와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1996년 식목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모두 김성환 교수님을 따라 용인캠퍼스에 묘목 한 그루를 심으면서 저는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 꽃을 피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제 영혼에도 꽃이 만발한 나무가 아로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제게 언제나 한국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줍니다.

한국외국어대 세르비아·크로아티아과는 지난 20년 동안 넓은 영역에 걸쳐 교육과 연구의 발전의 큰 나무 역할을 해왔으며 먼

추지 않고 새롭고 싱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성공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 합니다. 그럼 안녕히계십시오.

쁘레드라그 뻬뻬르
세르비아 과학예술아카데미 정회원

7. Prof. Božo Ćorić

НЕМОГУЋА МИСИЈА

Божо Ћорић (Београд)

Мој боравак у Јужној Кореји у периоду од 1998. до 2001. представља једно од најлепших и најзанимљивијих искустава у мом животу. Заправо, никада нисам имао ни као *идеју*, а ни као *сан* да ћу се икада наћи у једној таквој средини. Иако не верујем у *случај*, ипак у ту категорију може да уђе мој сусрет са Сонг Хван Кимом деведесетих година у Београду, од када датира наше познанство и пријатељство, што је кулминирало мојим доласком у његову семљу, на Ханкук универзитет. Од мог повратка из Кореје прошло је готово осам година и многи детаљи пали су у заборав. Ипак, оно што је остало дубоко урезано у сећање јесу, пре свега, *људи* које само сретао и упознавао на послу и у граду Сеулу. Дуго ће ми остати у сећању имена и ликови Ким Сонг Хвана, Ким Ћи Хјанг, Ким Сан Хуна, Ким Чол Мина, Чон Пила, проф, Квона, чешког Кима и др. У професорском насељу упознао сам велики број страних колега из Чешке, Пољске, Француске, Шпаније, Португалије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земаља и са свима сам се дружио и пријатељевао три године, на неутралном терену – у Кореји. Волео бих да их све, корејске колеге са катедре и стране пријатеље, још једном сретнем, још једном одем са њима у корејске ресторане у којима се седи на поду и једе штапићима, прича на разним језицима,

размењују искуства о догађањима на часовима у раду са студентима. Волео бих то више него ишта друго на свету, али је то – НЕМОГУЋА МИСИЈА. Многи од мојих страних колега више нису у Кореји, а неки нису ни међу живима.

Осим људи, у сећању чврсто стоји земља Кореја, земља традиције, митова, брда и мора, корејске кухиње – укусне на свој начин. Имам ту срећу да повремено од својих београдских корејских пријатеља добијем *кимчи*. Док једем то необично јело, преда мном се отварају сви корејски ресторани у које сам радо одлазио. А у њих се не одлази сам, увек у друштву, увек у разговору. Можда су неким који су живели у Кореји у мислима и друге ствари, а мени су то, ето: људи и ресторани.

불가능한 사명

보조 초리치(베오그라드대학)

한국에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머물렀던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흥미로운 경험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상상이나 꿈 속에서도 내가 그런 환경 속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우연이란 것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베오그라드에 서의 김성환 교수님과 나의 만남은 그런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때부터 우리들의 만남과 우정은 시작되었고 내가 그 분의 나라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가게 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거의 8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많은 세세

한 일들이 망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 깊게 새겨져 남아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교와 서울에서 만나고 사귀었던 사람들입니다.

김성환, 김지향, 김상현, 김철민, 백종필, 권혁재 교수님, 체코어과의 김 규진 교수님과 같은 분들의 이름과 모습은 오래도록 나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외국인교수 아파트에서 체코,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나라들에서 온 외국인 동료들을 알게 되었으며 한국이라는 중립적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과 삼 년 동안 친구로써의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학과의 한국인 동료들과 외국인 친구들, 그들 모두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바닥에 앉아야만 하는 그리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한국식당에 가보고 싶고, 다양한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싶고,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관한 경험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들을 해보고 싶지만, 그것은 -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많은 나의 외국인 동료들은 더 이상 한국에 없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이외에도, 내 기억 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통과 신화와 언덕과 바다와 독특한 맛의 음식을 가진 나라가 굳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베오그라드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로부터 ‘김치’를 얻으며 그 행복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진귀한 음식을 먹을 때면, 내 앞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곤 했던 모든 한국의 식당들이 열리는 듯합니다. 그 식당들에는 혼자서 갔던 것이 아니라, 항상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가곤 했었지요. 어쩌면 한국에 살았던 어떤 이들의 생각 속에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게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음식점들 말이죠.

8. Prof. Mate Lončar



Dragi prijatelji,

kolege profesori i nastavnici, dragi studenti i studentice,

Sretna Vam svima značajna 20. obljetnica postojanja Katedre za južnoslavenske studije HUFS-a. Napose taj vrijedni jubilej čestitam prof. Kim Seong Hwanu, koji je – kao što znate – bio duša i srce naše Katedre od osnivanja do danas.

Kada sam kao dječak, prije 55 godina, čitao novinske vijesti o Korejskom ratu na Dalekom istoku, nisam ni u snu sanjao da ću jednoga dana živjeti i raditi u dalekoj i prijateljskoj Koreji. A to se dogodilo: zahvaljujući pozivu prof. Kima, moja supruga Vesna i ja proveli smo u Koreji tri i pol godine. Divili smo se prirodnim ljepotama Koreje, budističkim hramovima u tišini, mostovima na rijeci Han i

modernim zdanjima velegrada. Divili smo se izgradnji i napretku Koreje, gdje smo se osjećali ugodno kao kod vlastite kuće, radovali se nogometnom uspjehu i oduševljenju ljudi na svjetskom kupu 2002.

Sretan sam što sam svoje znanje i rad ugradio u razvoj Katedre. Stekao sam nove prijatelje, s kojima i danas izmjenjujem pisma i srdačne pozdrave. Kao i svaki profesor, sretan sam kad mi pišu bivši studenti o svome životu; to je dokaz da ni oni nisu zaboravili mene.

Eto, godine prolaze, ali nema dana da se ne sjetim boravka u Seoulu. Naročito rado sjećam se zelene oaze Yongina, divne aleje ginka u zlatnoj boji jeseni, jezera koje kao gorsko oko miruje u ljepoti prirode. Uživao sam u bogatim bojama, mirisima i zvucima korejske jeseni.

Ovdje je također ljeto bilo dugo i toplo, sada će i kod Vas i kod nas nastati lijepa ugodna jesen, koja se, kad je zaista sunčana i lijepa, ovdje naziva Miholjsko ljeto. Posve je suprotna tome sintagma – kukovo ljeto, sto znači – nikada. Ako bih ja npr. zaželio doći opet u Koreju na Miholjsko ljeto, moglo bi mi se to lako obećati, da ću doći – na kukovo ljeto, dakle – nikada. Ili kao što američki pjesnik E. A. Poe u refrenu poeme *Gavran* stalno ponavlja – never more.

A ja se ipak tješim, sve dok ima mojih prijatelja i dragih sjećanja, sve je moguće, sve je moguće.

Tješim se, dakle, budističkom porukom da je svaki rastanak mogući početak nečega novoga, ili – prema Ničeovoj filozofiji o vječnom vraćanju istog – kraj je početak.

Tako se i moje sjećanje stalno vraća na korejske godine, koje

ću pamtiti do kraja života.

Dragi prijatelji,

Hvala kolegama Kimu i Kwonu, te mladim nastavnicima Čol Minu, Sang Hunu i Peku, i napose našoj lijepoj i dragoj Ji Hyang na suradnji i prijateljstvu. Hvala svim sekretarima Katedre, hvala svim mojim bivšim studentima. Pamtite me po dobru, kao što i ja pamtim Vas, Vašu mladost i ljepotu.

Želim Vam svima puno sreće, ljubavi i uspjeha u životu.

Srdačno Vas pozdravlja sve zajedno i svakoga posebno

Vaš prof. Mate Lončar.

Beograd, 25. 9. 2008.godine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동료 교수님과 강사 선생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에게,

한국외국어대학교 유고어과/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설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학과의 설립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해오신 김성환 교수님께 소중한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55년전 제가 소년이었을 때, 극동의 한국전쟁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었으며, 꿈 속에서조차도 미래의 어느 날 머나먼 친구 같은 한국에서 살고 일하게 될지 꿈꾸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의 초

청 덕분에 그 일이 현실이 되었으며, 제 아내 베스나와 저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연의 아름다움, 고요함 속에 자리잡고 있는 불교사찰들, 한강의 다리들과 수도의 현대적인 빌딩들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던 한국의 건축과 발전에 놀라워했으며,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축구의 성과와 사람들의 열정에 기뻐했습니다.

제 지식과 가르침이 학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날까지도 편지와 가슴에서 우리나라를 주고받는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예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에 관해 제게 편지를 보내올 때 저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 역시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있지만, 서울에서 머물렀던 사실을 기억하지 않은 날들은 없습니다. 특히 특히 용인의 푸른 안식처,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변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은행나무 가로수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고요함을 지키고 있는 산 속의 눈동자와도 같은 호수를 즐기며 떠올립니다. 저는 풍요로운 색조, 향기와 한국의 가을이 내는 소리를 즐겼었습니다.

이곳 역시 여름은 길고 무덥지만, 이제 곧 그곳에도 그리고 이곳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로 태양이 강렬하고 아름다울 때, 이곳에서는 ‘Miholjsko ljeto’라고 부릅니다.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어구로 ‘kukovo ljeto’가 있는데, 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 ‘Miholjsko ljeto’에 다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쉽게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며, “내가 ‘kukovo ljeto’에 가겠다”고 한다면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미국의 시인 에드가 알란 포우가 ‘까마귀’라는 시의 후렴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했듯이 ‘never more’ 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의 친구들과 수중한 기억들이 있는한, 모든 것은 가능하다, 모든 가능하다’라고.

말하자면, 저는 ‘모든 이별은 새로운 어떤 것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불교의 메시지나 혹은 ‘동일한 것에 대한 영원한 회귀’에 관한 니체의 사유에 따라 ‘끝은 시작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기억은 계속해서 생이 끝날 때까지 추억하게 될 한국에서의 시절로 회귀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동료 김 교수님과 권 교수님, 젊은 친구들인 철민, 상현 그리고 종필, 그리고 특히 긴밀한 협력과 우정을 나누었던 친애하는 아름다운 지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과의 모든 조교들에게도 감사하며, 저의 모든 옛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것처럼, 저를 또한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삶에 있어서 행운과 사랑과 성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함께 그리고 누군가에게 특별히 진심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당신들의 마페 론차르
베오그라드, 2008년 9월 25일

9. Prof. Prvoslav Radić

Поштовани професоре Ким Чол–Мин,

Особито ми је драго што наша катедра на ХАНКУК–у ове године слави значајан јубилеј – двадесет година постојања. Леп је и частан Ваш гест да се поводом овог јубилеја сетите и страних наставника који су као гостујући професори сарађивали с Вама у протеклом периоду. Зато ме је и Ваш позив да се кратким и пригодним писменим прилогом придружим овом јубилеју још једном подсетио на домаћински и гостољубив однос Ваше катедре и њених професора према страним наставницима.

Но, не могу рећи да се на ваљан начин могу одазвати Вашој молби да за ту прилику напишем нешто о својим утисцима са боравка у Кореји. Има за то више разлога, али је један основни. Ја сам, наиме, поред Србије, највећи део свога живота провео управо у Кореји, што значи да је Кореја тако постала моја друга домовина. А о домовини, као што знате, није лако говорити, исто онако као што није лако говорити о неком кога сматрате блиским и према коме имате посебна осећања. Знам да ви то као Корејанци јако добро разумете, као што разумете и то да је српски народ етнопсихолошки близак корејском народу, тачније, много ближи него што се то, узимајући у обзир њихову садашњу територијалну удаљеност, може претпоставити. Уосталом, још пре скоро двеста година један српски историчар навео је податке о прадавном мешању српских и корејских племена на Далеком

истоку. Након мог боравка у Кореји, та његова претпоставка није ми више изгледала тако фантастична.

Ипак, искрено Вам се захваљујем на позиву и честитам Вам овај вредан јубилеј. Мојим корејским колегама (професорима и сарадницима) са Катедре желим даље успехе у настави и науци, а корејским студентима желим исто оно што желим и српским – да буду бољи од својих професора.

Првослав Радић

25. септ. 2008.

Београд

친애하는 김철민 교수님께,

제가 외국인교수로 재직하던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가 올해로 뜻 깊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매우 기쁜 일입니다.

김철민 교수님께서 지난 날 학과에 재직했던 외국인 교수들에게 학과 창설 20주년 기념과 관련된 행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20주년 행사 초대에 짧지만 적절한 서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아직도 저에게는 가족같고 친밀하기 이룰데 없었던 저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유대감과 외국인 교수님들에 대한 과 교수님들의 애정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부탁하신 바와 같이 제가 한국에 머무를 당시 제 느낌을 글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답장을 드리지 못할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에 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즉 세르비아에서의 시간을 제외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한국이 제 마음에 제 2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고향이란 것은 교수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관해 쉽게 말할 수 없듯이 교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깝게 생각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한국인으로서 그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세르비아인들 역시 정서적으로 한국인들에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내지인들 외에, 지금 자신이 태어난 영토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상상할 수 있는 그 감정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벌써 200여년 전에 한 세르비아인 역사학자가 세르비아와 극동의 한국민족의 고대에 혼재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후 그 역사학자의 추측은 저에게 더 이상 그렇게 흥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인과 세르비아인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20주년 행사 초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에 같이 있었던 한국인 교수님들,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강의활동과 연구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며, 한국인 학생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세르비아어 공부에 좋은 결실을 맺어 세르비아인 교수를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길 기원합니다.

쁘르보슬라브 라디치

2008년 9월 25일

베오그라드

10. Prof. Mirjana Jocić

* 이 시는 미라나 요찌치 교수님께서 우리 학과에서의 3년 동안의 재직 기간을 마치고 떠나시는 소회를 적은 시입니다.



Rastanak s Korejom

Kad odem sutra,
Imaću lepu uspomenu.
Možda i tugu u srcu skrivenu.

Sretoše se dva sveta.
Ostade samo pesma setna.
Nikada više korejska polja cvetna,
Ginko i nežni kosmosi u sjaju leta.

Hoću da ostane trag u steni,
Večno da čuva lepotu prijateljstva.
Adio, Korejo, i šamanska činodejstva!
Nek pevaju na rastanku Ariran meni.

Seul, juni 2004. Mirjana Jocić

한국과의 작별

내일 떠날 때,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리라.
어쩌면 가슴 속에 감춰진 슬픔까지도.

두 세상이 만났었지.
우울한 노래만이 남았다네.
꽃 피는 한국의 들판도,
은행나무와 여름 빛을 머금은 고운 코스모스도 더 이상 없다네.

돌에 새겨진 자취라도 남아 있었으면,
우정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안녕, 한국이여, 샤먼의 의식도!
작별의 자리에서 내게 아리랑을 불러주었으면.

서울, 2004년 6월
미라나 요찌치

11. Prof. Darko Gašparović



Poštovani i dragi kolege,

šaljem svoj tekst za zbornik povodom 20. godišnjice Odsjeka.

Veselim se zajedno s vama tom lijepom jubileju, i želim Vam poručiti da ću 11. listopada biti u duhu s Vama na proslavi, popiti soju i pojesti kimchi!

Srdačan i prijateljski pozdrav

Darko Gašparović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이 편지를 20주년 문집을 위해 보냅니다.

이 좋은 기념일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10월 11일에 여러분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김치를 마시며 진심으로 마음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우정 어린 마음을 전하며

다르코 가쉬파로비치

Sjećanje na Koreju

Kako se vratiti nečemu što je sad već davno iza mene, o čemu sam sve što sam znao promislio i kako sam umio napisao, pa i knjigu objavio? Mogu li, smijem li uopće još išta kazati o Koreji?

Nestvaran prvi susret. Preletjevši pola svijeta naći se u zračnoj luci Incheon, svemirskoj postaji nalik, na otoku spojenu mostom s kopnom, šezdesetak kilometara od Seoula. Sivo prekriveno sivim. Tmurni krajolik od uzmorske se sivkaste obale pretopio u oblike megapolisa, s neprestanom kišom koja je otad daniima pljuštala bez prestanka. Prve večeri probijam se čudnim uličicama i malim tunelom pokraj naše danas napuštene stare apartmanske zgrade HUFS-a – Na-dong 206, Kongnung-dong 2, Nowon-gu – na samome kraju istočnoga Seoula, gacam, još

sav ošamućen po diluvijanom pljusu do japanskog restorana s kolegama profesorima Poljakom Tomaszom i Rumunjom Julianom. Zaprepašćujući kontrast: odmah do jednokatnih potelušica golemi jednoobrazni neboderi paraju nebo.

Prve korejske riječi i fraze: pozdrav *Annyong hasseyo!* Zahvala *Kamsahamnida!* Nazivi jela *Kimchi*, *Bulgogi*, *U dong*. Naravno, izraz za ljubav: *Sarang*. Na žalost, vrlo sam ih malo dopunio novima. Osim najosnovnije konverzacije, ne progovorih korejski jezik. Ali sam ga primio, rekao bih upijao i slušao s užitkom. Njegova isprva čudna i strana melodija, ono što u početku osjećah kao tvrdoću, postala mi vremenom bliskom i dragom.

Kao i u svemu drugome što doživjeh, zahvaljujući pozivu Odjela za južnoslavenske studije HUFSS-a i njegova tadašnjeg šefa prof. Kim Seong Hwana, cio moj boravak u Koreji tijekom dvaju akademskih godina bijaše u biti ovo: postupno napredovanje prema stupnju ljudskosti na kojemu *nihil humanum a me alienum puto*. Da ništa mi ljudsko nije strano. Stranost je naš neostvareni ja, naučila me Koreja. Kad bi barem svaki čovjek na Zemlji imao neku takvu svoju Koreju! Koliko bi naš svijet tad bio humaniji, plemenitiji i bolji!

Još i danas znam sanjati kampus u Yonginu, jezero, čarobne puteljke koji vode do zgrada u kojima sam korejske studente učio hrvatskome jeziku, književnosti i kulturi, pa naše južnoslavenske festivale – najbolje od svih, kako smo ponosno isticali – gdje sam strepio kako će se studenti(ce) u izvedbi hrvatskoga dramoleta probiti kroz šumu rečenica njima tako

drukčijega i teško izgovoriva jezika. I kad su uspjeli, radovao sam se s njima kao dijete.

Završavam mišlju kojom sam završio i svoju knjigu *Trag Koreje*. Koreja je u smiraj moga života utisnula neizbrisiv trag, a nadam se da sam i ja u njoj ostavio bar neki sićušan trag.

Prof. dr. Darko Gašparović

Profesor na Odsjeku za južnoslavenske studije HUFSS-a

Ak. god. 2003/04 i 2004/05

한국에 대한 추억

제가 저의 기억을 뒤로 한 채,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 제가 생각해오고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글로 알릴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한국에 관해 어떤 것이라도 제대로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첫 만남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지구의 반을 날아서 우주 정거장과 비슷하고 서울에서 60킬로미터 떨어진 육지에 다리를 통해 연결된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온통 회색으로 덮여있었습니다. 대도시와 상대적으로 회색 빛이 도는 해안가에 끝없이 하루 종일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비가 내리는 우울한 광경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이상한 길들과 조그만 터널을 지나 서울의 동쪽 끝인 노원구 공릉2동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나동 206호, 오래된 아파트로 인도받았습니다. 세찬 폭우 속에서 폴란드어과 동료 교수 Tomasz와 루마니아어과 교수 Julian과 함께 일본 음

식점을 갔습니다. 매우 대조적인 것은 거대하고 동일한 고층건물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치, 불고기, 우동, 사랑* 등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정도의 한국어와 기초적인 대화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단어를 적용해 듣고 말하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낯선 외국어는 처음에는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친밀해졌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외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학생, 그리고 당시의 학과장이셨던 김성환 교수님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국에서 보낸 2년은 인간다움에 대한 이해를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nihil humanum a me alienum puto) 인간미가 없는 것은 저에게 매우 낯섭니다. 낯섬이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자아이며, 한국이 그것을 제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만약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미를 가진다면 우리의 세상은 더욱더 고귀하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용인캠퍼스의 호수와 크로아티아 문화, 문학, 언어 등을 가르쳤던 건물, 강줄기, 그리고 가장 멋지고 훌륭했던 학과 예술제 공연을 회상합니다. 공연을 맡은 학생들이 어렵고 한국어와 많이 다른 크로아티아어로 공연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의 책 *한국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편지를 줄이려 합니다. 한국은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은 흔적을 남겼으며 적어도 저도 저의 작은 흔적이 한국에 남았길 희망합니다.

다르코 가쉬빠로비치 (2003-2005년 유고어과 재직)

12. Prof. Danijela Bačić-Karković



Nezaborav

*sedlo u magli
zavojiti nedogled
nigdje nikoga*

*Pismo odonud
kud više neću ići
ozareni dan*

Do kasno u noć

*pod Namsan gorom sođu
vatra ćaskanje*

*gle uklesani Budni
kroz trsku smiješi se*

Nezaborav II.

*ne otputujte
sad je najljepše ovdje
ginko s jeseni*

*plamteću rumen lišća
propustiti nemojte*

잊혀지지 않는 것들

안개 에 쌓인 산마루
구불구불 눈에 닿지 않는
그 어디에도 인기척이 없다

그곳으로부터 온 편지
더 이상 가지 못할 그곳
밝았던 시절

밤 늦은 시간까지
남산 아래에는 소주와
불꽃과 한담만이

보라 깨어져 새겨있는
갈대를 뚫고 웃고 있는 것들을

잊혀지지 않는 것들 II

떠나가지 마세요
지금 이곳은 가장 아름다워요
가을의 은행나무

붉은 잎들을 불태울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danijela bačić-karković
korejski nezaborav
fotozapis

Izložbeni salon Filodrammatice, Korzo 28
Rijeka, od 5. do 16. studenoga 2007.

**Izložba je otvorena radnim danom od 10 do 13 sati i od 17 do 20 sati
te subotom od 10 do 13 sati**

Izrada i tehnička obrada fotografija: FOTO SLUGA, Rijeka

13. Prof. Gordana Dragin

Мој боравак на ХУФС—у улази већ у другу годину (од фебруара 2007. године) и импресије које носим о свом боравку и раду тешко ћу сажети на једну страницу и зато се одлучујем да само кратко изнесем неке своје утиске.

У јонгински кампус, где се налази Одсек за јужнословенске студије, одлазим три или четири пута недељно, кад имам часове. Овај лепо уређени простор, зелена оаза са језером у средини као да се налази на хиљаде километара далеко од градске вреве, готово мами да се озбиљно ради и учи. У школском аутобусу који превози студенте од почетка кампуса до њихових факултета, први пут сам се срела са корејским, па и својим будућим, студентима. Озбиљност ових младих људи који у реду, без гурања, улазе у аутобус, уредно се јављају уз благи наклон возачу аутобуса одмах ме је освојила. То је само био иницијални знак да сам дошла у земљу у којој се зна где је коме место и у којој је на првом месту ред и дисциплина.

Да је мој први утисак био тачан још истог дана уверили су ме осамнаестогодишњи

младићи и девојке, студенти прве године, са којима сам тог дана имала час конверзације на српском језику. Гледали су ме збуњено и у чуду, јер проговарам језиком који су изабрали да студирају, а тако је стран њиховом уху! Говорници једног аглутинативног језика изолата (или монголске групе!?) нетремице гледају у моје усне и пажљиво слушају један

флексивни јужнословенски језик, њима тако далек. Домаће задатке које задајем студенти раде редовно и сви без изузетка чак и када им није сасвим јасно шта се од њих очекује да ураде. Њихова марљивост увек је на првом месту. Сви студенти, од пве до четврте године доживљавају свој факултет као другу кућу. Овде долазе на прве часове у 8,30 и остају често цео дан, на часовима, у библиотеци или на спортским игралиштима. Пријатно је радити у таквој атмосфери где је све усмерено на рад и пријатан боравак у кампусу. Фестивали, као их овде зову, чести су од пролећа па преко целе школске године. На нашем одсеку пред крај летњег семестра сваке године одржава се “фестивал” на којем студенти показују шта су научили, сами или уз помоћ професора, од модерних српских и хрватских песама, игара...глуме на језику који студирају....и увек са много смеха и такмичарске узнемирености. Однос студент – професор пун је неопходног поштовања и узајамне пожртвованости. Студенти поштују и воле своје професоре, а професорима је увек стало да подрже и охрабре своје студенте. Није реткост да се студенти и професори заједно веселе на неком излету и да студенти имитирају своје професоре уз одобравање и својих колега и професора.

Завршићу причу у свом кабинету који делим са колегом из Хрватске, једним младим и драгим човеком из Ријеке. Полице пуне српских књига из граматике и белетристике лепе и преводи на корејски Андрићеве „На Дрини ћуприја”, „Књига за Марка” Светлане Велмар Јанковић професорке Ким Ђи–Хјанг,

као и превод на српски „Корејске народне бајке” професора Ким Санг-Хуна и једна студија из историје на српском језику „Југославија и Корејски рат” професора и шефа катедре Ким Чол-Мина. Обиман речник корејско-српскохрватски и српскохрватско-корејски у редакцији проф. Ким Сон-Хуана налази се у за вршној фази. Све ово говори о живом интересовању мојих нових колега за Србију, српски језик као и српску културу и историју. Лепо је овде бити и доћи из Србије на други континент, у другу културу, а међу своје!

Проф. Гордана Драгин

Јага Корејско-српскохрватски и српскохрватско-корејски у редакцији проф. Ким Сон-Хуана налази се у за вршној фази. Све ово говори о живом интересовању мојих нових колега за Србију, српски језик као и српску културу и историју. Лепо је овде бити и доћи из Србије на други континент, у другу културу, а међу своје!

Јага Корејско-српскохрватски и српскохрватско-корејски у редакцији проф. Ким Сон-Хуана налази се у за вршној фази. Све ово говори о живом интересовању мојих нових колега за Србију, српски језик као и српску културу и историју. Лепо је овде бити и доћи из Србије на други континент, у другу културу, а међу своје!

를 타는 젊은 학생들의 진지함과 예의바르게 버스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순식간에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러한 점은 제게 있어서 질서와 예절이 가장 중시되는 곳이라고 알려진, 제가 오게된 이 나라에 대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저의 첫 인상은 정확했고 그것은 이미 제가 학교에 출근해 강의하기 시작한 첫 번째 날부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게 회화수업을 받은 1학년이었던 스무살 가량의 젊은 우리과 학생들 덕분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저를 놀라고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자 선택한 언어로 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귀에 그러한 말이 들린 것이 희한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립된 교착언어인 한국어 화자인 1학년 학생들은 제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주의깊게 자신들에게 머나먼 이국언어, 남슬라브어 중 하나인 세르비아어를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는 언제나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학생들이 성실히 제출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 숙제를 어떻게 해야 완벽히 잘 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모르더라도 말이죠. 학생 여러분의 성실성은 언제나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대학을 제 2의 집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용인 캠퍼스는 1교시가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또한 종종 그 시간부터 하루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도서관 또는 운동장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보입니다. 즐겁게 지내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 모든 것이 맞추어진 공간인 학교에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근무하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축제, 이곳에서 부르는 대로 하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행사는 보통 봄부터 시작하여 학사일정 내내 계속되곤 합니다. 제가

재직중인 우리 학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에서는 매년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직전에 축제가 열려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보여주곤 합니다. 스스로 준비하거나 또는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현대 세르비아어어 또는 크로아티아어로 쓰여진 시낭송, 희곡 등의 공연을 통해 전공하고 있는 언어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항상 많은 웃음과 공연을 통해 경쟁하는 학생의 걱정스러움이 보이기도 하죠. 학생여러분들과 교수님들과의 관계는 가늠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찬 가운데 상호 헌신하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수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자신의 학생들을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여러분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엠티나 학과 모임들을 통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학생들은 친구들과 교수님들의 바라는 바와 같이 교수님들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크로아티아 리예까에서 오신 젊고 멋진 제 동료교수인 알료샤 뿌자르 교수와 함께 근무하는 제 교수연구실에서 이제 글을 줄여볼까 합니다. 제 책장에는 세르비아어로 쓰여진 책들이 가득 놓여져 있습니다. 문법책, 순수문학책 등의 도서들과 함께 김지향 교수님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다리’, 스페뜰라나 벨마르 얀코비치의 ‘손자마르코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김상현 교수님을 통해 세르비아어로 번역된 한국 전래동화인 “한국 구비설화” 그리고 과의 학과장이신 김철민 교수님이 저술하신 “유고슬라비아와 한국 전쟁” 등의 책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년 중이신 김성환 교수님이 제작 중이신 한국어-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한국어 사전도 보이는군요. 제가 쓴 이 이야기들

은 세르비아와 세르비아어, 그리고 세르비아 문화 및 역사를 전공하는 제 새로운 동료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모든 분들의 인생의 즐거움에 관한 것입니다. 세르비아로부터 대륙을 건너 다른 나라에 와서 이곳 한국외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에 재직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또한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고르다나 드라긴 교수

14. Prof. Aljoša Pužar

"MOJA" KOREJA

Pred koji sam dan pronašao svoj tekst koji sam pisao za hrvatske novine prije no što sam po prvi puta stavio nogu na Korejsko tlo. Napisao sam tada i ovo: "Za koji dan odlazim u tuđinu, u daleku zemlju u kojoj ću ja biti stranac, pripadnik druge rase i profesor (...) Dakle, gastarbajter (strana radna snaga). Stajat ću u redu u studentskoj menzi pokušavajući dokučiti kakvo je to jelo predamnom i kako ga zatražiti od gospođe koja ga dijeli. Tko zna hoću li jesti na način koji je lokalnim stanovnicima oduran? U čemu ću sve biti vrijedan prezira? Ako mi ispadnu štapići, hoću li ispasti glup?" Danas znam da je "galbi" jedno od mojih omiljenih jela, naročito ako ga sam pečem, vrtim, podižem štapićima, umatam u zelen list zajedno s malo "sticky" riže (pirinča)! Čitavog sam života mrzio "sticky rice" i onda sada kada sam nedavno putovao na Jamajku i kući u Hrvatsku, nisam se mogao načuditi što nemaju meni drage ljepljive riže! Ali može li se ukus za knjige i jezike, mogu li se vjera ili životni stavovi mijenjati kao što se mijenja ljubav za vrstu riže? Može li se bojama i nijansama neke kulture ovladati kao što djeca i smiješni profesori ovladavaju umijećem jedenja štapićima? Ne znam. Mijenjati život nije lako i što ga mijenjaš dublje, to postaje teže. Čitajući o povijesti (istoriji) Koreje...o dinastijama Silla, Koreo i Jeoson...o kolonijalizmu, hladnom ratu

i neokolonijalizmu (hiperkapitalizmu)... shvatio sam da je i narod koji me primio sličan mome: ponosan i frustriran poviješću, radoznao i katkad kompliciran, sklon ritualima, ali i slavljima, držanjima govora i veselju uz dobro jelo i piće. Ljubav podjednako grije i na obalama Jadranskog mora i na obalama velikih korejskih rijeka! Katkada se pitam, jesam li uopće otputovao, ili još samo sanjam vašu daleku lijepu zemlju. Da, zahvalan sam svima koji su učinili da se osjećamo baš tako, domaće i mirno, svima koji su mi pomogli da budem manje glup i da uradim bolje ono zašto sam pozvan: da kulturu kojoj pripadam predstavim živo i veselo, jer to je i jedna živa i vesela kultura i da kulturu u koju dolazim, prihvatim otvorena srca. Moje je srce sada otvoreno i sretno. A štapići rijetko ispadnu iz ruke!

“나의” 한국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일에 대해 기고했던 나의 글을 크로아티아 신문에서 발견했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다음은 그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 “타지로 떠나는 날에, 내가 이방인이 되는 먼 나라로 가서, 그 곳에서 눈동자 색이 다른 외국인 교수가 되었다..... 학생 식당에서 줄을 서서 어떤 음식이 내 앞에 나올지 지켜보면서 또 음식 나눠주는 아주머니에게는 뭐라고 말을 할지 생각했다. 내가 먹는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누가 알겠는가? 만약 내가 젓가락을 떨어트린다면, 바보처럼 보일까?” “갈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중에 하나인

데, 특히 굵고, 뒤집고, 젓가락으로 들어서, 상추에 올려놓고 “끈적이는” 밥을 조금 넣어 함께 싸먹는 것 말이다! 지금껏 인생에서 “끈적이는 쌀”은 싫어했었는데 최근에 자메이카를 여행하고 크로아티아에 있는 집에 다녀온 후에, 들러붙는 밥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책과 언어에 대한 기호와, 신앙 또는 인생의 상황들이 쌀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바뀔 수 있는 걸까? 아이들과 웃음뽀 교수님들이 젓가락으로 먹는 기술을 익힌 것처럼 어조나 뉘앙스에는 어떤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삶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그것을 깊은 곳으로부터 바꿀수록, 더욱 힘들게 된다. 신라시대부터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네와 비슷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 자부심있고 역사적으로 좌절한 적이 있으며, 신화와 절기, 구전 이야기와 좋은 음식과 마실 것이 있는 놀이 문화까지 말이다. 사랑이 아드리아해변과 한국의 한강변을 함께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가끔씩 묻곤한다, 내가 대체 여행을 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당신들의 멀고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건지 말이다. 그렇다, 내가 마치 조국에 있는 듯 평화롭게 느끼게 해주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으며 나의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주었던 모든이들에게 감사한다. : 내가 속한 이 문화가 살아있고 즐겁다고 말하고 싶다. 나의 마음은 지금 열려있고 행복하다. 이제 젓가락은 내 손으로부터 잘 떨어지지 않는다!

[동문 글모음]

1. 김철민 (88)

유고어과 조교? 유교과 조교? 유격 조교?

내가 학과 조교를 맡아 일을 하고 있을 때니, 지금으로부터 약 13-4년 전쯤 될 거라 생각된다. 당시 난 이문동 정문 앞 골목길에 위치한 자취방을 구해 생활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집 구조는 아래 1층에 약 10여개의 원룸들이 쪽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아주머니는 3층에 살고 계시는 구조였다. 원룸중 한 방에서 자취생활을 하던 나는 어느 날, 강원도 원주에서 막 상경한 학과 친구인 박광원을 맞아 같이 밤을 새게 되었다. 당시 내가 구한 방은 각 방끼리 서로 방음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옆방에서 하는 소리들이 그대로 전달되던 열악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광원과 나는 인근 대포집에서 한잔을 걸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잠을 청하기 위해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막 잠을 청하려는 데,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와 자꾸 잠을 깨우는 것이었다. 1시간이상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던 나는 참다못해 옆방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빠끔히 열리는 방문 안으로 여학생 한명과 남학생 한명이 어지러운 술병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게 보였다. 황급히 뛰어 나온 남학생에게 나는 우선 늦은 시간에 방문을 두드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멀리 원주에서 올라 온 친구가 있는 데 잠을 청할 수 없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자 술에 잔뜩 취한 여학생이 꼬인 혀로 “그래, 원주라고... 난 부산에서 올라왔다. 어쩔래... 그렇게 시끄러우면 경찰서에 전화해라”하며 전화기를 던지는 게 아

닌가. 나는 황망하고 어이가 없어 한 동안 멍하니 그 여학생을 쳐다보고 있다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난 후 아무래도 술에 덜 취한 남학생과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혹시 무슨 과이신지? 저는 *유고어과 조교*입니다”라고 내 신분을 우선 밝혔다. 그때만 해도 어린 마음에 학과 조교가 뭐 대단한 벼슬이나 된 듯이 느껴졌기 때문에 만약 학부생이라면 조교라는 지위를 남용해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내 말에 남학생은 굉장히 반가워하며 “아 나도 *유고* 조교였는데. 그럼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라고 반문하는 게 아닌가? 비록 약간 허가 말린 질문이었지만 본인도 *유고어과 조교*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우리 과 1회인데 나 이전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조교가 있었나? 하는 이상한 생각과 함께, 나는 순간 이 친구가 본인이 아마 ‘*성균관대 유고과 조교*’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 나도 반가운 마음에 “아 그러세요. 조교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학생이 떠들어대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데 자제를 시키지 못하시면 되겠습니까?”하며, 다시 한 번 자제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내 말에 답을 하는 대신에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셨는지요?”라며 계속 근무지를 묻는 게 아닌가? 그래, 나는 아마 이 친구도 술에 취해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조용해줄 것을 부탁한 다는 말과 함께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 안에 있던 광원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이불안에서 흐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나고 물었고, 이불 사이로 삐죽이 얼굴을 내민 광원은, 내 걱정과는 달리 너무도 웃겨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무래도 철

민이 너는 4차원적 기질이 다분한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이유를 묻는 내 질문에 광원이는 “그 친구는 네가 *유고어과 조교*라는 말에 그 말을 *유격조교*로 착각하여, 자기도 유격조교 출신인데 네가 어디에서 근무했는지를 계속 묻는 데, 너는 계속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더라”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유고어과 학생이라 설명하면 그 누구도 그것이 무슨 과인지 무엇을 공부하는 학과인지 알아듣지 못했던 시절, 어쩌면 그 당시 우리가 느꼈던 공통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유고어과 조교? 유고과 조교? 유격조교? (^.^) ...

2. 백종필 (88)

시간에 대한 단상

남이 쓴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직업이면서도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고통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물고기를 잡아서 정리해 내는 일이 아직도 버거운 것이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글꼬리들만 쫓아 다니다가 모니터위에 빈 문서만 남겨놓고 전원을 끈다. 내일해야지!

방만한 자유로움을 즐기는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변명한다. 정리하면 할수록 복잡해져만 가는 것이 세상살이다. 거친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사 작용이 만성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변명을 덧붙인다. 그러나 삶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타협의 방식이다. 대상은 관용에 익숙지 않은 타인들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상식의 경계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세상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 위기감으로 ‘20년’이라는 화두를 들어 보았다. 강산이 두 번 바뀌었다는 시간은 내게 무슨 의미일까? 성현들이 남기신 말씀들을 아무리 찾아도 ‘20년 이라는 시간’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지 않는다. ‘누구누구의 20년 인생’이라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20년의 의미’ 뭐 이런 소재나 주제의 말씀들은 보이질 않는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해야 한다. ‘나’라는 자연인의 지극히 사변적인 1988년부터 2008년까지의 ‘20년’이 고려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된

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던 김춘수의 <꽃>에서처럼 살아있는 의미가 된다.

복잡한 부연을 달고 있는 그 특별한 사람의 ‘20년의 의미’는 ‘감동’이다. 이제 갓 돌을 넘긴 아들과 88년생인 현재의 2학년 혹은 1학년 학생들 그리고 나 사이에 일직선을 그어 놓는다. 세계의 점 사이에는 대략 ‘20년’이라는 함수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집과 학교라는 공간은 ‘20년 차이’라는 평범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특별해졌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던 두 공간 사이에는 부자간의 정과 사제 간의 정이라는 명제가 혼재한다. 하루가 다르게, 정말 노루꼬리 만큼이지만 조금씩 성장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일은 경외 그 자체이다. 부모로서의 ‘감동’이다. 20년 전 첫 수업을 들었던 그 강의실에서 나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다. 이 두 가지 ‘감동’은 자연인인 나와 사회적 개체로서의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매일매일 확인시켜주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사십대의 문턱에 와 있다. 이제는 스스로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라고 한다. 성인이 된지 20년이 지난 것이다. 그동안의 삶이 현재의 내 얼굴에 투영되고 있으리라! 두렵다. 그래서인가 아침마다 연례행사로 벌이는 면도조차도 거울을 보지 않고 치러 낸지도 오래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잃어버린 아빠의 얼굴을, 어린 아들은 볼을 비벼대고 어루만지면서 찾아가고 기억해준다. 사계절이 지나는 캠퍼스에 사년을 두고 학생들은 오고 가지만, 강의실에는 과거와 미래의 만남이 머물고 있다. 기성세대가 되었노라고 기쁨지고 느슨해져가는 정신의 사위를 다잡을 때면, 가고 올 세월을 ‘감동’으로 남기고 싶은 욕심을 부린다. 그 속에서 사는 삶을 소망한다.

3. 정태동 (88)

배변에 대한 몇가지 단상(斷想)

어렸을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기억이 있는 나에게 초등 저학년 시절의 어느 아침 조회시간, 교장선생님의 훈시말씀이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다.

자극적이거나 색다른 기억들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게 된다는 기억의 메커니즘을 고려해 보면 그 날 아침의 교장선생님 말씀은 참 기억에 남을 만하다.

훈시말씀의 전체 맥락이나 의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날의 교장 선생님 말씀 중에서 ‘배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배변을 하고 나면 하루가 개운하고 상쾌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상 후에 배변욕을 느끼지 못하면 일단 화장실에 가서 아랫배를 손으로 살살 자극하여 기어코 배변을 완성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날 이후, 그 권위있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아침을 지배하게 되어, 배변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거룩한 의식처럼 인식되었다.

요즘은 좌식 화장실이 발달하여 배변이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예전의 소위 ‘쪼그려좌’ 자세에서는 다리의 저림과 허리의 중압감을 견디어내야만 시원한 배설의 쾌감을 맛볼 수 있었다. 말하자면 다리저림은 짜릿하고 시원한 쾌감을 위한 일종의 반대급부였던 셈이다.

나는 배변을 신성시 한다.

인간의 배변자세는 에로틱하면서도 숭고하다.

신분의 고하를 떠나 화장실에 앉는 목적은 거의 사람마다 동일하다.

우리는 싸기 위해 화장실에 앉는 것이며, 똥으로써 그 단순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와 빈자는 화장실에서만큼은 동일한 인격과 인권을 가지며 동일한 목적성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누구도 타인의 배변을 탓하거나 제재하지 못한다.

이것은 비단 민주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원시 미개사회에서도 반드시 보장 받아야만 할 천부인권이라 할 것이다.

대학1학년에 입학하여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바로 술이었다.

지금은 제법 대학가 상권이 발달한 왕산이지만 20년 전이었던 88년 무렵엔 그야말로 모현주민들을 위한 소소한 식당 몇 개만이 있을 뿐이었지만 1학년 1학기의 내게는 그곳이 강의실 못지 않은 아지트가 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직 해가 지지 않은 모현 마을에서 대학의 낭만(?)을 즐기고자 했던 우리의 동급생들은 거의 매일 막걸리, 소주 등을 마셔댔다. 지금 생각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그리도 술을 권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소 열악한 학교교육환경과, 선배없이 자립해야 하는 창설과 1기생의 고독, 그리고 긴 통학시간에 따른 고단함... 이런 복잡다단한 환경이 우리에게 술을 통한 위로를 찾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당시 서울 동대문쪽에서 살았던 나는 지금은 없어진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왕산까지 약 2시간에 걸친 통학을 해야 했다.

문제는 늘 술마신 다음날이었다.

수업시간을 고려해 덜겐 몸을 이끌고 왕산행 버스에 올라타면 대개의 경우는 곤한 잠에 빠져 버리곤 했지만 간혹 잠조차 이룰 수 없는 복부의 압박감으로 얼굴이 백짓장이 되는 경우이다. 마장동에서 왕산까지는 논스톱으로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리다. 버스에 올라 얼마 가지 않아 덜컥거리는 버스로 인해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면 배속은 고여있던 알콜이 다시금 요동치며 하복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어디 세워 불일을 볼 휴게소도 없는 상황이니 참고 인내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도리가 없는 극한 상황...

나는 그때 체득했다. 인간의 인내는 의지로부터 오는 것이나,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있는 것이 있으니, 설사는 자신의 뇌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신(神)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란 걸...

노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1시간 20분간의 긴 여행길에 뿔어져 나오는 설사를 막기위해 결사적으로 출구를 봉쇄하고 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나마 그 때 내나이가 아직 괄약근의 힘이 최절정기에 있던 20살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군대에서 겨울철 처벌 중에 가장 가혹하면서도 또한 가장 낭만적인 벌은 바로 ‘똥타입제거’이다.

아직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지 않은 군대 화장실은 다양한 팔도사나이들이 모여 제각각의 대장에서 생성된 다양한 똥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 내는 특유의 냄새가 풍기는 곳이다.

겨울이 되면 병사들이 싸는 똥은 얼은 똥위에 차례로 쌓이고 또다시 얼어 늦겨울이 되면 어느새 쪼그린 향문에 육박해 온다.

이쯤이면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이 똥으로 쌓은 탑을 제거해야 한다.

이 작업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작업이므로 응당 내무반에서 제일 잔밥이 낮은 병사의 몫이거나 그 즈음 사고를 친 사병에게 가해지는 처벌방법의 하나로 활용된다.

이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병사에게 주어지는 연장은 다른 아닌 해머와 도끼이다.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보호하고 작업을 하지만 해머가 한번 춤출 때마다 경우없이 튀는 얼음똥 조각은 예고없이 열려진 눈으로, 목덜미로 날아든다.

그러나 이 작업이 또한 낭만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군에서 가장 염원하는 ‘열외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똥물이 온몸에 튄 병사는 그 날 하루 내무반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작업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취사장 뒤에서 행해지는 기함에도 열외다.

담배 한갑 주머니에 챙겨서 아침 식사 후 현장에 투입되면 그 날 하루 종일 그에게는 아늑한 자유와 똥과 하나 됨으로써 얻게 되는 여유가 찾아오는 것이다.

고향을 떠나 거친 남자들과의 어색한 함숙, 시도 때도 없는 기함과 구타,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리는 병사에게 화장실은 이때만큼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아늑하기만 한 것이다.

처음 딸아이를 낳고 초보아비가 되어 아이 자는 모습만 보아도 눈가에 희미한 이슬이 맺힐 정도로 감격적인 때가 있었다.

첫돌도 되기 전인 갓난아기 시절, 며칠째 대변을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건 주말로 향해가는 어느 날이었다. 아침 출근길에 아이가 거의 일주일을 변을 보지 않는다는 말을 아내가 던져서 던진 것이다.

회사에서 하루종일 걱정이 되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문득 나보다 일찍 두 아이를 본 친구 녀석에게 전화로 상담을 해 보았다.

녀석의 말인즉, 면봉에 참기름을 충분히 바르고 그걸로 아이의 항문주위를 살짜기 문질러서 자극을 주라는 것이다. 그러면 해결될 거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이를 눕히고 면봉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발라서 항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잔뜩 상기된 항문은 좀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애엄마는 항문을 간지럽히고 나는 아이를 기마자세로 안고 진땀을 흘렸다.

마침내..... 항문이 돌연 열리더니 일주일 묵은 대변이 시원스레 밀려나왔다. 차곡차곡 다져지고 농익어 누렁다 못해 거의 검은색으로 채화된 젓먹이의 대변이었다.

아이의 항문에선 대변이 물밀듯 밀려나오고 나의 눈에선 감격이랄까 걱정이랄까 눈물이 넘쳐흘렀다.

그렇게 변은 배출됨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모양이다.

요즘은 오랜 음주습관과 과식, 야식, 기름진 음식 생활로 인해 아침 배변이 시원치 못하다.

술 먹은 다음날은 어김없이 폭포수 같은 설사를 토해내어야 하며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때의 배변은 거룩하지 않다. 다만,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숙성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몸밖으로 배출될 뿐이다.

똥이란 것은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신체기관의 완벽한 소화와 흡수과정을 거쳐 노릇한 빛깔과 질박한 질감의 결정체로 몸속을 빠져나와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미처 소화되지 못

하고, 미처 흡수되지 못한 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똥은 운명론적으로 보면 조산아이며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일 뿐인 것이다.

나는 술 마신 다음날 터지는 머리와 쓰라린 배를 쓰다듬으며 화장실에 앉은 아침에는 가늘고 힘없이, 그리고 물기 가득한 내 볼썽한 변들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일 때가 있다.

그렇다. 내 장은 이미 소주 같은 고알콜주를 당해낼 능력을 상실했으며 이 갈 곳 없는 음식물들을 소화하고 빨아들일 힘을 잃은 것이다.

이럴 때 나는 눈물이 난다. 그 눈물은 단지 속이 쓰려서만도 아니고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서도 아니다.

이미 지칠대로 지쳐 기본적인 소임인 소화기능마저 약화되어 버린 내 장에 대해 연민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 나는 왜 이토록 고단한가.. 내 장은 왜 이리 주눅들어 버렸나...

나는 내 장이 굵고 단단한 똥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내 항문이 똥을 힘차게 밀어내어 시원스런 왕관 현상을 일으키며 변기 물 위로 떨어뜨리기를 바란다.

마흔을 넘겨 이제 스무살 청년같은 몸의 팽팽함은 사라진지 오래지만 지금까지의 내 40년 아침을 함께 해준 배변의 시원스러움을 앞으로의 내 생에서도 매순간 카타르시스의 동반자로 함께 하고픈 것이다.

오늘 아침..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헤드라인 뉴스중 유난히 눈에 띄는 제목...

"화장실은 못참아-PC방 화장실 난투극"

이 기사를 읽으며 문득 내게는 꽤나 소중한 배변에 대해 두서

없는 단상을 해보며 이글을 써 본다..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의 다급한 마음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힘겹게 배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사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배변의 자유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원초적 인권이다. 고로 존중되어야 한다.

즐거라, 그대여. 배변의 즐거움을..

4. 정용준 (95)

그땐 그랬지

부제:사와라

학과창설 20주년이라니, 그냥 20년 하면 막연하여 연상이 되지 않으나,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초, 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2학년이 될 나이가 된 것이다. 그간의 세월에 대해 믿기지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생활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같이 떠올라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나는 대학생활을 하며 정말 오랜 시간들을 속칭 ‘놀며’ 보냈다. 물론 연애도 해봤고 음주, 가무, 흡연, 폭주 등에 찌든 참으로 건강치 못한 나날들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해프닝들을 겪었는데, 그러한 해프닝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나로 하여금 조금씩 성숙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작게나마 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기업의 인재관리 측면의 컨설팅 및 교육 분야인 관계로 인사담당자들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많은 인사 및 채용담당자들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으로 다음의 4가지를 꼽곤 한다. 그것은 바로 도전성,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강단을 갖춘 인재이다. 대학에서 이러한 4가지를 미리 갖추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공부, 동아리 활동, 학회 활동, 아르바이트, 공모전 참가, 군생활 등등)가 있겠지만, 나는 다소 특이한 방법으로 위의 4가지를 배양했던 것 같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좌충우돌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기”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 같으며 굳이 그것에 대해

명칭을 붙이자면 네트워크 활동이라고 부르고 싶다.

대학 4년동안 수많은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해프닝들을 겪었는데 마침 얼마전 한 동기의 결혼식을 앞두고 만나 술한잔 기울이며 옛추억을 떠올리다가 학교 다닐적에 가장 잊을 수 없었던 Best 10 해프닝이 무엇이었는지 랭킹을 매겨본 적이 있다. 그 중 기억에 남는것들을 소개하며 10여년이 지난 대학시절을 사진첩 들여다보듯, 다시한번 돌이켜본다.

1. 사와라 사건 (1995)

1995년 가을의 어느 날로 기억한다. 1995년 2학기 당시 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과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행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학기에 한번 왕산 노구봉을 오르는 행사(행사보다는 일종의 의식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가 있었다.아마도 1학년 세크어 문법작문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몸이 비대했던 나는 인생에서 가장 싫은 것 3가지 중의 하나가 등산(지금은 그렇지 않다.)이었지만 학과 대표라는 책임감에 그 행사를 준비하였다. 드디어 산행날, 모두들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 열심히 등산에 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7부 능선까지 올랐을 무렵 나는 얼굴이 하얘지고, 땀이 온몸을 뒤덮었지만, 마음을 비우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

선봉에 서서 산을 오르시던 김성환 교수님의 급한 호출을 받았다.

“용준아!”

“예 교수님”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잠깐 쉬고 음료수 한잔씩 돌리지 그래”

아뿔싸! 나는 그때 가뜰이나 노란 머릿속이 더욱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 정상에서 마실 술에 눈이 먼 나머지, 술만 잔뜩 준비하고 음료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수님 음료수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아 그랬어? 그럼 가서 사오면 되지”

“어차피 술을 준비했으니 정상에서 한잔씩 목을 축이심이...”

그러자 김성환 교수님의 한마디

“그냥 사와라”

“네???”

한술 더뜨 백종필 선배의 한마디

“어문관 식당 매점이 아직 열었을 테니 거기 가서 사오면 되겠군”

나는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고 “네, 그러면 되겠군요”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그날은 태어나서 처음 산악구보라는 것을 해봤고, 하루에 체중이 4Kg가 빠진 기록적이 날이었다.

2. Kako Ste 사건 (1995)

95학번 동기중에 지금은 한 멀쩡한 회사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우병룡(실명은 거론해도 괜찮을 듯)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전공공부보다는 “외비가디”소속으로 기타공부에 몰두했던 친구였더랬다. 95년 1학기 6월의 어느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Piper 교수님의 “세크어 초급회화”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지각을 했다. 2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첫째시간이 끝나고도 한참후에 들어왔으니 꽤 늦은듯하다. 그래도 Piper 교수님께서 워낙 젠틸맨이신지라 다정스럽게 “Kako ste?” 라고 인사를 해주셨다. 지각하여 살금살금 걸어들어오던 차에 인사까지 받으니 적잖이 당황한 우리의 동기는 그래도 예의상 화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Zovem se 병룡”이라고 화답하였다. 순간 정적이 흐르던 강의실은 웃음바다로 변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병룡 동기는 왜 사람들이 웃는지 알지를 못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신의 대답이 좀 미진해서 사람들이 웃는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다. 그래서 좀전에 자신이 한 답변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Moje ime je 병룡, I prezime je 우”라고... 그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상상에 맡긴다.

3. 어문관 정자 사건 (1996)

1996년 1학기 나는 학과 사무실에서 수직생(학년조교)을 지내고 있었다. 96년의 1학기를 마칠무렵 그 당시 계시던 Ljubic 교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환송연을 행사를 기획하였고 학과사무실에서는 오문준 학부조교의 지휘통제하에 행사를 준비하였다. 김성환 교수님께서 행사의 컨셉을 “한국의 전통문화와 유고의 라끼야 문화의 컨버전스 속에서의 어울림 한마당”으로 잡으시사, 그에 맞는 연출을 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상당한 브레인스토밍 끝에 학생회관에서 어문관으로 올라오는 숲길에 있는 정자에서 라끼야 파티를하기로 결정했다. 참으로 “한국전통문화와 유고 라끼야 문화의 완벽한 만남”이 아닐 수 없었다. 초청대상 리스트 작성, 초대장 발송, 각종 연락업무 등 여러 가

지 준비를 하며 행사당일을 맞이하였다. 수직생들과 몇몇 학생들이 힘을 합쳐 어문관 정자에 리셉션장 준비를 하고 있던 무렵 김성환 교수님과 백종필 조교가 현장상황점검차 방문하였다.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며 준비상황에 흡족해 하시던 교수님께서 문득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데, 술자리가 밤에 조명을 어떻게 비추지?”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다. 참으로 옳으시면서도 황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었다.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오문준 학부조교가 쿨한 아이디어를 냈다. “교수님, 전통스럽게 청사초롱을 거는게 어떨까요?” 김교수님께서는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군, 전통적이면서도, 엘레강스하면서도, 운치가 있을테니 말이야” 라고 하시며, “용준이가 오토바이로 좀 사오지?” 청사초롱, 청사초롱, 청사초롱, 청사초롱, 청사초롱 이라니,,,,,

그 당시 오토바이 하나면 두려울 것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행사예정시간 4시간을 남기고 떨어진 그 명령은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서울시내 한복판도 아닌 왕산 아닌가? 그러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무작정 출발해야했다. 못구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날 광주군(그 당시는 군이었음)내에서 온갖 가게란 가게는 다 돌며 청사초롱을 구하러 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그날 광주군내의 많은 상점들을 방문했는데 슈퍼마켓, 떡집, 방앗간, 생선가게 심지어는 점집까지 그러나 청사초롱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고 낙담하며 돌아오던 차에 웬 조그만 절에 청사초롱을 걸어놓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그 절에 들어가 “혹시 청사초롱을 파십니까?”라고 물었는데, 한 보살님께서 미친놈 쳐다보듯 보며 “우리는 이런것 안팔아, 성남에 불교용품 파는데서 사온거야”

너무 기뻐고 그 즉시 성남으로 달려가 청사초롱을 사왔다. 행사시작 10분전 청사초롱을 달 수 있었다.

4. 오보오보 사건 (1997)

1997년에 Subotic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지금도 그러시다지만 아주 소녀 같으신 분이셨다. 춤과 노래를 아주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 이 교수님을 연모하던 한 동기가 있었으니 바로 이상택이었다.

그는 교수님을 연모했지만 워낙 전공어 실력이 바닥이니 Subotic 교수님의 회화수업시간에는 항상 조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한학기가 흘렀고, 어느덧 기말고사가 다가왔다. 회화수업의 특성상 기말고사는 교수님의 방에서 일대일로 10분여간 대화를 나누는 형태였고, 다들 열심히 준비하여 차례로 교수님 방으로 불러 들어갔다. 이상택 학생도 준비를 하다가 불러들어갔고, 교수님은 잔뜩 긴장해 있는 이상택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택의 수준을 알던 교수님은 비교적 쉬운 것들을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방안의 물건들을 가리키면 그것이 뭔지 유고어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교수님은 사진, 책상, 책, 창문등을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나 우리의 이상택 학생은 그게 유고어로 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워낙 기지가 대단했던 친구라 뭐라도 대답은 해야 겠기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Ovo, Ovo, Ovo, Ovo i Ovo" 그 래도 대명사 Ovo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Subotic 교수님은 다소 황당한 표정으로 의자 등 다른 몇가지를 가리켰고 역시 그는 Ovo로 일관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출입문을 가리켰는데, 이 친구는 문은 기억이 나더라. 그래서 "To je..."라고 대답하려는 찰나 교수님의 왈 "Get Out"

이상택 군은 조용히 방을 나왔고, 그로부터 3년 후 우리는 나란히 재수강을 했다.

5. 이봉원 사건 (1998)

군대에간 유고어과 남자치고 고참들한테 받는 가장 많은 요청 중에 하나가 “너 유고어 좀 해봐” 라는 말일 것이다. 나 역시 군대에서 수많은 유고어 관련 질문들을 받았고, 전혀 되지도 전공어 실력에 말도 안되는 단어를 써가며 “그것은 유고어로는 ~~~~”라고 합니다 라는 거짓보고를 수도 없이 올린 기억이 있다.

동기인 이상택 군이 군대에 있을때의 이야기이다. 최전방 강원도 고성외의 모부대에서 철책근무를 하던 이상택 일병은 중대 내 몇 안되는 4년제 대학생이었고, 그는 활발한 성격과 외대 유고어과라는 이색(?)경력 소유자였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 고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건 유고어로 뭐라고 하나?”라는 문의를 받았고 그에 대해 거짓보고 하다보면 하루해가 저물었다고 한다. 가끔 머리좋은 고참을 만나면 “유고어는 안녕하세요도 Kako ste고 이름이 뭐니?도 Kako ste냐며 참 희한한 언어로구나”라는 말도 들어가면서 말이다.

어느날 그 부대에 코미디언 이봉원과 외모가 아주 흡사한 신병이 전입을 왔는데, 말년병장이 부대를 안내한다며 이곳저곳 보여주다가, 이상택 일병이 작업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는 이상택 일병에게 “야 너 이봉원 닮았구나가 유고어로 뭐지?”라는 질

문을 하는 것이었다. 뉘다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던 이상택 일병은 그냥 또 아무말이나 때울까 하다가 순간 “Vi ste 봉원”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너는 이봉원이다”라는 의미이니 그래도 아주 엉뚱한 말은 아닐테니 말이다. 그래서 아주 친절히 “예 그냥 비스테 봉원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어 그래? 비스테 봉원, 비스테 봉원”을 되뇌이던 고참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며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라. “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이 봉원이랑 비슷하다고 비슷해 봉원이나? 이 XX야 내가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냐? 너이리 따라와봐”

그날 이후의 이상택 일병의 군생활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6. 이메일사건 (2000)

2000년 제대 후 보름만에 복학을 한 학교는 군대가기전과는 너무나 바뀌어 있었다. 모든 과제는 워드로 타이핑해서 제출해야 했으며, 많은 수업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 그곳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과제를 올리며, 심지어는 수강신청도 온라인으로 하는 세상이었다. (지금의 후배들에게는 이러한 환경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군대가기전 김철민 교수님의 “유고정치경제”수업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워드로 과제를 내라는 주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장당 1,500원씩 주고 타이핑을 맡겼던 나로써는 참 힘든 시절이었다.

수업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2000년 1학기의 한 수업이었다. 나는 군대가기전의 비행으로 인해 한 1학년 과목을 재수강 해야했고, 따라서 첫시간에 들어갔다.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시고는 종이를 돌리면서 개인 이메일을 적어내라고 하셨다.

다들 이메일을 적어내는데, 나는 이메일이 없었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었다. 군대에서 통신수단의 사용이 제한된 삶을 살다가 제대 후 보름밖에 안된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다. 문득 교수님께서 “정용준은 이메일 없냐?”라고 물어보셨다. 그런데 나는 웬지 모르게 없다고 하기가 싫은 것이었다. 1학년 후배들 앞에서 웬지 다들있는 이메일이 없으면 좀 꼴리는 것 같기고 하고, 아무튼 웬지모를 예비역의 자존심 때문에 없다고 하기는 싫었던 것이다. 이 마음을 예비역이라면 이해할까? 그런데 그때 컴맹에 가깝던 나는 이메일이라는 것이 웬지 홈페이지와 같이 만들기가 어렵고 컴퓨터를 꽤 다룰 줄 알아야 만들 수 있는 것인줄 알았다. 만드는데 시간도 며칠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 예 그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교수님은 황당하다는 듯이 날 쳐다보았고 후배들 중에는 키득거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나는 다시 한번 “예 지금 제가 누구한테 맡겼는데 다음주 정도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순간 난리가 났고, 나는 그날 밤 집에 와서 5분만에 메일을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때 그랬다.

이외에도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적기에는 지면이 모자랄 것 같아 생략하고자 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많은 경험들을 하며 만난 많은 사람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며, 그들은 나에게 등대가 되거나, 타산지석이 되었고, 때론 인생의 코치로써 스승으로써 많은 교훈을 제공해주었던 것 같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사사(師事)를 자양분으로 삼아 현재의 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못되었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수립해주고 평가해주는 정도의 일은 하고 있다. 아직 40년도

안 살았고 인생의 절반도 못 깨달은 나이지만, 그래도 여지껏 살아오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사람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은 더욱 성숙하고 노련해지는 것이 아닐까?

유고어과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 민병일 (91)

시물라시옹

2001년 계간문예지 《미네르바》 겨울호 등단.

작품으로 「부빙(浮氷)」 「오후 세시, 시계를 말리다」 「창작의 조건」 등.

현 대한탁구협회 근무.

우리 헤어져.

멜로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대사를 떠올려본다. 변심한 여자가 남자에게 이별을 고하고, 이 장면을 끝으로 대부분의 드라마는 다음 회로 넘어가게 된다. 상업적인 목적이 우선되어서겠지만, 이별에 대항할 혹은 이별을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드라마가 가지는 크나큰 미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삶에선 어떠한가. 군홧발에 차여 낙하산을 챙기는 것도 잊어버린 채 수송기 밖으로 뛰어내린 병사처럼 일순 끔찍하게 뒤바뀐 세상을 맨몸으로 맞닥뜨려야 한다. 세상이 반으로 쪼개지던지 몸이 부서지던지 둘 중의 하나는 끝장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겐 이런 종류의 파괴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언제부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젤리처럼 응고된 원 핸드레드 퍼센트의 어둠과 정적은 한동안 외부의 그 어떤 위협에도 방해받지 않는 견고한 방어막 구실을 해주었다. 패닉 룸에 몸을 숨긴 것 같은 그런 기분. 깊고 농밀한 휴식. 그러나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상황은 내게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았다.

오래 숨어있다는 것은 갇혀있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숨바꼭질을 하다가 장롱 안에서 잠이 들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안전하다는 것이 때론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

어린 시절, 좁약 냄새와 곰팡내로 채워진 어둠 속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술래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안도감보다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스러움에 몸을 떨었다.

그때, 장롱 안에서 잠이 든 유년시절의 내가 성인이 된 지금의 나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꿈은 언제쯤 끝이 나는 것일까.

아교라도 발라놓은 듯, 내 곁에 악착같이 달라붙어있는 어둠과 정적은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간의 크기를 가늠하기란 불가능하다. 내 살갓이 벗겨지더라도 떨어내고픈 무형의 결박. 이런 상태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 생각해본다. 한 달? 일 년? 아니면 오십육억 칠천만 년? 헛헛 내뱉은 웃음이 채 소리가 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부연 파문을 만들어냈다. 지나치게 긴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주문을 걸듯이 되뇌어보기도 했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정말 지나치게 길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견고함은 차츰 날카로움으로 바뀌어갔고, 죽창이 촘촘히 박혀있는 함정처럼 존재감에까지 강렬한 살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아 나는 잠들었는가, 깨어있는가. 누구,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느냐.’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은 오감(五感)으로 느껴지는 대상의 총체일 뿐이며, 삶은 세상을 느낄 수 있는 한정된 시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감각이 모두 사라지고 시간

의 개념 또한 무의미해졌다면, 내가 속한 세상과 내가 소유한 삶은 어떻게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

고백하건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뿐이다. 그동안 느껴왔던 어둠과 정적은 시각과 청각의 상실에서 비롯된 착각이었으며, 미각, 후각, 촉각도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였다. 모체의 태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강낭콩 모양의 태아처럼 나는 생각으로만 바둥거릴 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내게 생각만이 남게 될 줄 어디 생각이나 했겠는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훨씬 수월할지도 모를 텐데. 하지만 나는 내 손가락이 어디에 붙어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문득,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바나나피시(Bananafish)에 대한 얘기가 생각났다. 바나나피시는 평소에는 보통 물고기들과 다름 없어 보이지만 바나나가 잔뜩 들어있는 통을 발견하게 되면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 통 안의 바나나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그러나 이 독특한 습성 때문에 결국엔 몸이 너무 뚱뚱해져버려서 다시는 구멍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얘기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자각하기도 전에 이미 수인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에선 그 멍청한 물고기나 나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듯싶었다. 어쩌면 나는 이 끔찍한 상황을 인식하기 전까지 이곳에서의 안전함과 휴식을 마음껏 향유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치 거꾸집에 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이곳의 틀에 맞춰 서서히 굳어졌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나는 몇 가지 가정을 해본다. 잠든 사이에 누군가가 박제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평범한 고시생을 박제로 만들만큼 아둔하

고 엽기적인 사람은 없다. 아니면 크레바스에 추락한 뒤 얼어붙은 냉동인간? 나는 추운 걸 끔찍이 싫어한다. 그런데 내가 과연 존재하긴 하는 걸까? 글썄.

출구를 찾지 못한 생각들이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했다. 물리적인 감정표현이 불가능했으므로 두려움은 그저 두려움일 뿐이었고, 절망 또한 오롯이 절망으로 남았다. 여과장치를 거치지 못한 감정들은 그 자체로 치사량에 가까웠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가끔은 체념이 희망보다 더 희망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 방법은 알아? 나는 희망을 품고 있을 때가 더 두렵다.

“우리 헤어져.”

“.....”

기억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했던 나의 노력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가장 최근의 기억도 절망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구리 빛 햇살이 설탕물처럼 목덜미를 적시던 카페의 창가. 이별을 고하는 애인 앞에서 나는 다음 달 방세를 걱정하고 있었다. 눈앞으로 삼류영화의 홍보용 멘트 같은 문장이 쿵쾅거려 비쳐졌다.

‘올 것이 왔다.’

법대를 졸업하고 사 년이 넘게 고시공부를 하고 있던 내게 연회는 필수양분을 공급해주는 링거병과도 같았다. 실업, 파업, 폐업이 신문기사의 대부분을 채우던 총체적 난국의 시절, 취직을 해보겠다고 두 달 동안 백통이 넘는 이력서를 끼적거리고 있던 내게 다시 고시공부를 권했던 사람도 바로 그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링거액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어디 학원이라도 알아볼까?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

“요즘엔 학원선생도 어려워. 그리고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구.”

“내가 싫어졌니?”

“아니, 꼭 그런 건 아냐. 검정색에다 검정색을 더하면 그냥 검정색일 뿐이잖아. 오빠나 나나 더 나은 상대가 필요해. 이젠 서로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애(自己愛)가 우선된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녀는 나를 좀 더 파괴할 필요가 있었다.

가슴 속에서 팽팽한 끈 하나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픔은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그 강도가 줄어들진 않는다. 충분히 예감하고 있었지만 바로 눈앞에서 날아드는 비수를 피하긴 힘들었다. 그러나 그녀를 위해 나는 좀 더 형편없는 놈이 되어 주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랑 자는 게 지겨워졌구나. 하긴, 나도 너를 품에 안은 채 종종 관례나 법조문을 떠올리곤 했었어. 안타깝지만 이런 게 진짜 사랑이야. 무엇이든지 진부할수록 본질에 가까운 법이거든. 미치도록 좋아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곤 이내 무감각해지고. 사랑은 생성의 속성보단 소멸의 속성이 지배적이야. 라이프사이클이 끝났으면 당연히 폐기시켜야겠지.”

연희가 입술을 깨물었다. 오후의 햇살은 왜 이리도 거추장스러운지. 나는 소파에 몸을 깊게 파묻고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다. 각도가 바뀐 햇살이 오른 쪽 뺨에 획획 칼날을 그어댔다.

“오빠야말로 내가 싫어진 것 같네.”

나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짧게 대답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사실 연희에겐 이미 더 나은 상대가 있었다.

얼마 전, 거래처 임원을 접대하기 위해 찾아간 강남의 어느 술집에서 양복차림의 중년남자와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연희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대학동기 녀석에게 나는 맥살을 잡고 달려들었다. 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라기 보단 굳이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야속함 때문이었다. 여자에게 직감이란 것이 있다면 남자에겐 속칭 통박이란 것이 있다. 졸업반이 되어서도 고작 소주 한 잔에 무릎이 꺾이던 그녀의 주량이 언제부턴가 소주 한 두 병쯤은 우습게 비워버릴 정도가 되었고, 결국에는 속병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관주(觀酒)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후엔 박봉의 학습지 교사를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아버지 병원비는 물론 다달이 내 방세와 학원비까지 톡톡 건네주곤 했다. 처음엔 대견하다못해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앞뒤를 짚 맞춰놓고 보았을 땐 그리 유쾌한 상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확인하고 분노하고 수습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무시했다. 유물론의 시대에선 사랑과 밥이 동등한 가치를 지님으로 나는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고 싶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분노할 필요도 수습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나 동기 녀석의 뒤늦은 제보로 인해 나는 하는 수 없이 진위파악에 나서게 되었고, 연희의 뒤를 밟으며 비로소 이 세상의 표면과 이면이 얼마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연희의 본업은 학습지 교사가 아니라 고급 룬살롱의 매니저였으며, 연희가 말한 더 나은 상대는 손님으로 알게 된 사십대 후반의 이혼남이었다. 그리고

그와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지만 연희는 내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분노보다는 자책감이, 수습보다는 체념이 앞섰다. 연희도 나처럼 사랑과 밥,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는지..... 그러나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밥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권은 연희에게 있었다.

“사실은, 오늘 나 굉장히 독하게 마음먹구 나왔었어.”

“.....”

“그런데 오빠가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니까 맥이 탁 풀리네. 마치 헤어지길 기다렸다는 사람 같애.”

내내 찻잔 주위를 맴돌던 연희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내 얼굴에 와 닿았다. 나는 눈길을 피하기 위해 손가락에 개어놓은 가루약을 삼키듯 억지로 커피 한 모금을 삼켰다. 헤어지길 기다린다는 건 차마 헤어질 수 없기 때문이야..... 뱉어내지 못한 말들이 깨진 유리조각들처럼 내벽을 찢으며 밀으로 가라앉았다. 가슴이 아팠다. 오랜 불운을 통해 아픔을 숨기는 방법 정도는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생각일 뿐이었다. 나는 자세를 고쳐 잡고 담배 한 가치를 피워 물었다.

“선택적 기억이라는 게 있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자신이 좋아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숨아내서 기억하는 걸 선택적 기억이라고 해.”

연희가 의문형의 표정을 지어보였다. 나는 고름을 짜내는 심정으로 다음 말을 이어갔다.

“우리사이의 좋은 기억만 간직하길 바랄게. 내가 해줄 말은 이것뿐이야.”

“좋은 기억? 헤어진 후에도 좋은 기억이 좋게 남아있을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오빠 그럴 수 있을 것 같애?”

“필요하다면.”

나는 단호함의 표시로 얼마 피지 않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켜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쉽게 나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은 그 강도가 희석되는 반면 아픔은 고스란히 흉터로 남는 법이다. 연희의 아버지가 지병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 갔을 때,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연희에게 나는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힘내, 어떻게 되겠지.” 눈물을 글썽이는 애인을 뒤로한 채 나는 마치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처럼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여덟 정거장이나 떨어진 고시원을 향해 꾸역꾸역 발걸음을 옮겼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동안 엉뚱하게도 춘향전의 이몽룡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오빠가 돌아왔다! 의기양양하게 금빛 마패를 치켜들고 달려가 단번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달콤한 상상..... 그러나 나는 번번이 1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고, 합격자 발표날엔 으레 술에 취해 이소룡처럼 술집 테이블 위를 날아다니곤 했다. 상처한 변사또가 춘향을 본처로 맞이하겠다는데 과거에 낙방한 이몽룡이 무슨 낯짝으로 수절을 운운한단 말인가. 권선징악을 놓고 보더라도 이몽룡의 퇴장이 순리에 맞았다.

“다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간의 침묵을 깨고 연희가 내게 물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나를 향한 물음인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문인지 제대로 판단이 서질 않았다. 말과 말 사이의 간극이 뱀처럼 목을 휘감았다.

“사랑은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지갑 같은 거야. 필요하면

꺼내 쓸 때가 오겠지. 남의 사랑에 빌붙지만 앓는다면.....”

아주 잠깐 동안 연희와 눈이 마주쳤다.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은 이후 처음으로 마주치는 눈빛이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랑의 유일한 해갈(解渴)창구. 나는 갈증에 겨운 사람처럼 유리잔에 담긴 냉수를 급하게 한 모금 들이켰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었나봐. 오빠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제 마음이 놓여.”

연희의 시선이 슬로우 모션으로 내 얼굴을 비껴갔다. 이로써 이별은 종료된 것인가 싶어 울컥 목이 메었다. 나는 탁자 위에 내려놓았던 유리잔을 다시 입으로 가져갔다. 오늘 같은 날이 오면 마른 오징어를 질경질경 씹으며 보내주겠노라 다짐했건만 현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냉혹하기만 했다. 바둑판을 엮어버리듯 패색이 짙은 삶을 엮어버릴 순 없는 것일까. 그런 것일까. 가슴 한편에서 수류탄 같은 외침들이 펄펄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게릴라처럼 달려드는 충동엔 오래 버틸 도리가 없을 듯싶었다. 바닥을 보이는 인내심이 기름이 다 떨어진 트럭처럼 툭툭 힘겨운 발악을 했다. 시간을 끌어봐야 좋을 게 없었다.

“할 말이 더 남았니?”

채근하듯이 내가 물었고, 연희는 대답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해진 수순처럼, 나는 신속하게 외투를 걸쳐 입고 테이블 위의 계산서를 집어 들었다. 산란이라도 하려는 듯 햇살을 머금은 겨울바다가 창밖에서 내내 몸을 꿈틀거렸다. 아, 사랑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사랑을 참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밑천이 기억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로 암울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작부터 기를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기억

은 부유(浮游)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물살에 따라 흔들리는 해조류와 같아서 급히 다가가면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기억의 덩어리가 아니라 기억에 기생하고 있는 감각의 찌꺼기들이다. 생존을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감각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억을 통해서 재생되는 세상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보아왔던 세상 또한 그리 충분한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진 않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상 또한 굳이 리얼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지금 내게는 그러하다.

나는 도사리 같은 아주 하찮은 기억이라도 주워 담기 위해 생각을 집중시켰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논리화시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약, 다시 말해 건너뛰이다. 어찌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프루스트의 소설에 나오는, 홍차에 적신 과자 한 조각을 통해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들을 소생시킨 마르셀처럼 내게도 강렬한 발화점이 필요한 것이다. 눈을 감으면 세상은 없다고 했던가. 나는 우선 태양을 기억해 본다.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 나는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서 친구들과 종종 해 바라보기 시합을 하곤 했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눈이 부셔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면서도 해 바라보기 시합에는 한 번도 빠지질 않았다. 타고난 약골이었던 탓에 조회시간에 교장선생님의 훈시가 조금이라도 길어질라치면 뜨거운 태양광을 이기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을 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유독 해 바라보기 시합에 집착했었던 걸 보면 나이에 맞지 않게 강단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독히 우매했

있던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삶에 버릴 것은 없다. 용불용설(用不用說)은 감각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빈도수가 높을수록 복원은 수월한 것이다.

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았음직한, 시뻘건 쇳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태양을 그리 어렵지 않게 형상화시켰다. 그리고 내 앞에서 작열하는 지름 140만 킬로미터의 태양을 15도 각도의 공중으로 쏘아 올렸다. 어둠 속에 토마토 크기만 한 광원이 자리를 잡았고, 덩달아 연한 하늘빛이 허공에 드리워졌다. 전깃줄이 자가분열을 하듯 하늘을 여러 등분으로 갈라놓기 시작했고, 기름에 절인 전봇대가 전깃줄에 매달려 모빌처럼 흔들리다 길 위에 하나 둘씩 뿌리를 박았다. 전봇대 옆으로 잎이 무성한 은행나무들과 버즘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하였고, 참새 떼가 시위하듯 가로수 사이를 바쁘게 건너다녔다. 상점들과 양육집들 그리고 정류장들도 속속 제 위치를 찾아갔다. 배경이 만들어지는 동안 버스들이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거리를 오고 갔다. 내가 자동차의 경적소리를 들었던가. 필요에 따라 이미지에 맞는 소리들이 적절하게 섞여들기도 했다. 불륨이 조금 작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리 불평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어차피 세상은 다소 조용해질 필요가 있다.

한번 시작된 시뮬레이션은 개체수가 늘어갈수록 점점 더 가속도가 붙었고, 급기야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 스스로들 번식해 나가기 시작했다. 시대를 뛰어넘은 이미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리를 잡고나자 고증을 거치지 않고 제작된 영화세트장처럼 보였다. 나는 시선을 들어 오랫동안 태양을 바라보았다. 앞으로는 일사병으로 쓰러지거나 눈이 부셔 고개를 떨구는 일 따윈 없을 것이다.

나는 레코드 가게 앞 정류장에 섰다. 길가에 내놓은 스피커에서 최병훈의 ‘소피아를 위하여’가 흘러나왔다. 노래를 듣는 동안 다섯 대의 버스가 지나쳐갔다. 버스가 멈춰 설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고, 깔깔한 모래가루가 한쪽 뺨을 훑었다. 나는 주머니속의 동전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리며 불량스럽게 휘파람을 불었다. 최병훈의 노래가 끝나고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봉천동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도착했다. 연희네 집으로 가려면 이 버스를 타야했다. 픽픽거리며 차문이 열렸고, 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버스에 올라탔다. 갈색 선글라스에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버스기사가 거수경례로 승객들을 맞았다. 나는 요금을 지불한 뒤 버스기사에게 말했다. “연희네 집으로 먼저 가주세요.” 버스기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대로를 벗어난 버스가 노선을 무시한 채 골목을 이리저리 헤집고 달리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물끄러미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어느 사이엔가 맞바람을 타고 날아온 빗방울들이 앞 유리에 부딪혀 잘게 부서졌다. 그리고는 금세 뭉쳐져서 작은 물줄기로 흘러내렸다. 노을빛을 머금은 빗줄기들이 하늘에서 쏟아버린, 불에 달군 수십만 개의 바늘처럼 보였다. 나는 문득, 이 길의 끝이 어디일까 생각해본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만큼만 넓으면 된다. 그런데 연희는 이 세상 어디쯤에 있는 걸까?

카페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연희의 머리카락 사이로 바다가 갈라졌다. 모딜리아니의 그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무표정한 얼굴로 걸었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와 화물선의 뱃고동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서로 우위를 점하려는 듯 쉴 새

없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죽어있는 것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연희와 나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뜬금없이 아버지 생각이 났다. 사업에 연거푸 실패한 아버지는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9인승 승합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살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실어증에 걸리고 말았다. 더 이상 불행해질 수 없을 만큼 불행하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불행을 겪어오면서 내가 갖게 된 행복의 지향점은 ‘얼마나 더 행복해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불행해지느냐’였다. 따라서 아무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럭저럭 행복할 자신이 있었다. 러시아의 고장 난 인공위성이 추락한다고 해도 내 밥상 위에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상관없는. 그러나 애석하게도 불행은 물려다니는 습성이 있다. 연희를 만나게 된 것도 어찌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긴 사랑에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는가.

“바이킹 타고 싶어.”

카페를 나와 십여 분쯤 걸었을까. 연희가 엉뚱하게 입을 열었다. 유람선 선착장 맞은편으로 갖가지 놀이기구들이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수백 개의 전구를 박아 만든 글자들이 아치형의 간판에 매달려 순서대로 불을 밝혔다. 월, 미, 도, 랜, 드.

“출지 않을까?”

“무서워서 추운 것도 모를 거야.”

연희는 말을 끝맺기가 무섭게 총총히 매표소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잠시 후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돌아왔다.

“옛날부터 꼭 타보고 싶었어. 바다를 보면서…….”

연희가 표를 건네며 내게 말했다. 나는 표를 받아 쥐고는 마치 못해 바이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헤어지는 날 서로 눈물, 콧물을 쏟아내지는 못할망정 놀이기구에 나란히 앉아 양손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환호성을 내지르는 모습은 아무래도 상상이 가질 않았다. 하지만 이별다운 이별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위안이 될 건 없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든 시장 바닥에서 헤어지든 아픔의 크기는 같을 테니까.

날씨 탓인지 바이킹에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질 않았다. 표 받는 사람대신 투표함처럼 생긴 나무상자 하나가 계단 입구에 놓여있었다. 나는 나무상자의 구멍 안으로 표를 집어넣고는 계단 위로 성큼 올라섰다. 바다를 배경으로 곳곳이 서있는 선체가 빙하에 갇힌 쇠빙선 같아 보였다.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이 조종실의 유리창 안에서 어서 타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내가 먼저 탈게.”

연희는 바이킹을 처음 타보는 아이처럼 호기 좋게 제일 뒷자리로 가서 앉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연희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고소공포증까진 아니었지만 높이를 이용한 놀이기구와는 예전부터 궁합이 맞지 않았다. 재미는커녕 메스꺼움과 불쾌감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뉘앙스는 내키지 않는 일에도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모양이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바이킹을 타는 일이 없을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애뜻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나는 검정색 쿠션이 덧씌워진 보호대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회고 가느다란 연희의 손가락이 보호대 위에 겹쳐졌다.

“바다를 보면서 타 보기는 오빠도 처음이지?”

연희가 물었고, 나는 대답대신 씩씩하게 웃어보였다. 아무렇지

도 않은 듯한 연희의 음성이 가슴에 생채기로 남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 끝에 불그스름한 기운이 번지는가 싶더니 어느덧 눈앞이 칙칙해져 있었다. 마지막 공연을 위한 무대조명처럼 거리의 가로등들이 하나 둘 불을 밝혔다. 출발신호를 기다리더라도 한 듯 바이킹이 거대한 몸뚱이를 들썩거렸고 이내 반원을 그리며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 끝자락만 보이던 바다가 높이에 비례해 점점 깊고 넓어졌다. 정점에 도달할 때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육지의 경계가 한눈에 들어왔다. 하늘과 육지 사이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한 바다가 점점 더 심하게 몸을 뒤척였다. 팔을 뻗으면 바닷물에 손이 잠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보호대를 움켜쥐고 짧게 심호흡을 했다. 어느새 최고높이까지 올라간 바이킹이 아픈 소리를 내며 허공에 멈춰 섰고, 등에 창이 꽂힌 투우장의 소처럼 푸르르 몸체를 떨었다. 광분한 관중들의 함성이 귓가에서 웅웅 거리는 듯했다. 그러나 환청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침내 도움닫기를 끝낸 바이킹이 바닥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나가기 시작했고, 연희와 나는 등에 꽂힌 창대들처럼 몸을 한껏 뒤로 젖혔다. 요란한 기계음이 뒤따랐지만 바이킹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반 박자씩 뒤쳐져갔다. 한데 뒤섞였다가 흩어지고 다시 뒤섞여지는 온갖 불빛들이 희부연 어둠 속에 촛농처럼 뿌려졌다. 가속도가 붙고 나서부터 연희의 고개가 간간이 한쪽으로 틀어졌다. 바이킹은 절정에 이른 성기처럼 어쩔 줄 모르고 곤두박질쳤고, 그때마다 연희의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훑아내고는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서는 환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제 나의 배역은 끝난 것인가 싶어 나도 모르게 열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슬픔도 아닌 그

렇다고 아픔도 아닌 어떤 정체불명의 감정이 내 몸을 향해 와락 달려들었다. 중력과 관성의 힘겨루기에서 생성되는 짧은 무중력 상태. 줄이 끊어진 연처럼 온 몸의 기운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컷가를 스쳐가는 바람이 내 대신 깊고 질긴 한 숨을 뱉어냈다.

연이 추구하는 것은 구속을 전제로 한 자유이며 갈망이다. 따라서 줄이 끊어진 연은 이미 연이 아니다. 그것은 곧 자유의 상실이며, 한 가닥 구원의 소멸인 것이다. 불운한 삶을 살아오는 동안 연희는 내게 질긴 나일론 연줄과도 같았다. 그러나 사랑을 놓친 대가는 사랑 보다 크다. 높이 날수록 더 깊이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왜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는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순간, 어디선가 가느다란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와 기계음을 감안한다면 통곡에 가까울듯한. 그런. 나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날 잡아줄 줄 알았어. 추락하는 나를, 오빠는 잡아줄 줄 알았던 말이야. 비겁한 자식. 바보 같은 자식.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자고 말해줄 순 없었어?”

나는 감았던 눈을 떴다. 습자지를 씌워놓은 것 같은 열은 어둠 속에서 연희의 어깨가 들먹거리는 게 보였다. 그러나 연희의 울부짖음은 주위를 둘러싼 소음들에 뒤섞여 이내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픔을 이겨내려면 아파해야 해. 그러니까 아파한다는 건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죽도록 아프면..... 죽도록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나는 태엽이 풀린 장난감처럼 끝내 뒷말을 잊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바이킹은 지칠 줄 모르고 허공을 갈랐고, 바이킹에 찢긴 바람 조각들이 쉴 새 없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한 손을 들어 슬그머니 바다 쪽으로 뺨어보았다. 손가락 사이로 점액질의 쿨타르 같은 바다가 빠르게 미끄러져 지나갔다.

“나 조금 늦을 것 같애. 한 이십분 정도…… 눈이 내려서 길이 너무 막히네. 근데 오빠 어디쯤이야?”

전화기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연희의 음성은 스타카토가 표시된 음절이 있더라도 한 듯 중간 중간 끊어지기를 반복했다. 운전 중이라 핸드프리를 사용하는 모양이었다. 눈길 위에서 허둥지둥하고 있을 연희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나는 늦어도 괜찮으니까 운전에만 신경 쓰라고 당부한 뒤 전화를 끊었다. 어느새 카페 ‘헤밍웨이’ 앞에 도착해 있었다. 입구에 걸린, 구레나룻이 덩수룩한 헤밍웨이의 초상화를 등지고 서서 나는 잠시 어깨에 맺힌 물기를 떨어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해수면의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서부터 하늘가에 붉고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다 밑으로 잠겨가는 태양이 눈발사이로 분홍빛 햇살을 뿌려댔고, 햇살에 물든 눈송이들이 마치 벚꽃처럼 쏟아져 내렸다. 랜드로바에 점점이 박힌 물 자국들이 젖은 꽃잎들처럼 보였다. 나는 발을 굴러 신발 밑창에 엉겨 붙은 눈뭉치를 털어낸 뒤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포르말린 냄새가 풍겨왔다. 유한락스에 설탕물을 섞어놓은 것 같은 냄새……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헤이즐넛 커피를 주문한 뒤 담배 한 가치를 빼어 물었다. 신경성일진 모르겠지만 요즘 부쩍 포르말린 냄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시시때때로 달려드는 환후(幻嗅)는 잠자리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연희의 젖무덤에서까지 열린 소독약 냄새를 풍겨내곤 했다. 일시적인 증상이겠거니 하고 지나쳤었는데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는 느낌이었다. 하고많은 냄새 중에 왜 하필 포르말린일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생선 비린내가 아닌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담배가 반쯤 타들어갔을 때 커피가 날라져왔고 그윽한 커피향이 연막탄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잔을 들어 천천히 커피 한 모금을 삼켰다. 입안에 달콤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미간을 찡그리게 했던 포르말린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좀 전에 왔어.”

뜨거운 커피 잔이 따뜻하다고 느껴졌을 때쯤 연희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추운 날씨 탓에 바깥의 차가운 냉기가 함께 따라 들어왔다. 외투를 벗어놓으며 연희는 발갛게 상기된 볼을 손등으로 톡톡 두드렸다.

“커피 시킬까?”

“아니, 생강차로 할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 봐야 하는 거 아냐?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정돈 아니구,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왜, 결혼식 날 신부가 콧물이나 흘쩍거리고 있을까봐 걱정돼?”

연희가 불멘소리로 물었고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그게 걱정스럽긴 했다.

“소설은 잘 쓰고 있는 거지?”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가방을 가리키며 연희가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렇게 재미없는 소설만 써서 어

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느냐는 일종의 푸념이었다.

“걱정 마. 이번엔 연애소설이라 그렇게 지루하진 않을 거야.”

“제목이 뭘데?”

“시플라시옹.”

“시플라시옹? 그게 무슨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행위.”

“칫, 제목부터 지루하네 뭐.”

“삶이 원래 지루한 건데 소설이 저 혼자 잘났다고 마냥 재미있기만 하면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

“지루한 삶에 대한 복수. 뭐 그런 게 소설의 목적 아니었어?”

“지루한 삶에 대한 포용이지. 따분하고 우울하고 지지부진한 그래서 쉽게 안 읽히고, 잘 안 팔리는 소설들이 사실은 속임수를 쓰지 않은 유기농 소설들이야. 그런 소설들을 읽어야 건강해져. 삶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지.”

“이러다간 내가 평생 오빠를 먹여 살려야겠다.”

“소식(小食)할게.”

“아휴, 내가 어찌다가 소설가랑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연희가 빙지 않게 눈을 흘겼고, 나는 능글맞게 웃음을 흘렸다. 억지로 돌려막긴 했지만 연희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삶에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피곤한 일인가. 차라리 자객을 보내거나 함정을 파놓는 편이 훨씬 더 후련하고 통쾌하다. 그러나 희망이건 복수이건 간에 중국엔 환멸과 맞닥뜨리게 된다.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환각을 선호한다. 어느 것이 실재이고 어느 것이 허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나 환각 또한 환멸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환각은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

각은 일회용이며,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참, 아버님은 내일 귀국하셔?”

생강차에 각설탕 하나를 떨어뜨리고 나서 연희가 갑자기 눈을 위로 치켜떴다.

“응. 다섯 시 비행기로 도착하신데. 제대로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래도 가신 일은 잘 되셨나봐. 중동 바이어한테 몇 번 골탕 먹은 적이 있으셨는데 이번엔 국영기업이랑 거래를 트게 돼서 안심이라고 하시더라구.”

“나도 내일 공항에 나갈까?”

“감기나 빨리 나아라.”

단번에 퇴자를 놓자 연희가 입을 비죽거렸다. 나는 가방 앞 지퍼를 열고 볼펜과 메모지를 꺼내들었다. 추억을 만들고자 할 땐 음악만큼 좋은 게 없다. 음악은 추억의 위치를 알려주는 색인표와 같은 것이어서 음악이 빠져버리면 날개로 존재하는 추억의 루트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뿐더러 각각의 독립성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다. 나는 오늘의 주제곡을 선정하기 위해 의자를 끌어당겨 자세를 바로잡았다.

“음악 신청하려고?”

“응”

“그럼 난 오빠 소설이나 보고 있을게.”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괜찮아. 어차피 지루해서 끝까지 못 읽을 텐데 뭘.”

어느새 노트북의 뚜껑을 열어젖힌 연희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꽤나 통쾌한 모양이었다. 나는 부러 못 본 척 턱을 괴고 한손으로 볼펜을 돌렸다. 잠시 후 윈도우즈의 시작을 알리는 효과음이 흘러나왔고, 연희의 시선이 모니터의 양끝을 바쁘

게 옮겨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턱을 꺾어 채로 차근차근 후보곡들을 떠올려 보았다. 주제곡으로 선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상황에 맞는 타이틀이 중요하다. 연인과의 즐거운 한때를 회상하기 위해 이박사의 ‘몽키매직’을 떠올릴 순 없는 일이니까. 나는 꽤 오랫동안의 숙고 끝에 오늘의 주제곡을 선정해냈고, 볼펜을 꺾꺾 눌러가며 정성스레 메모지에 옮겨 적었다.

「밥 딜런 - You belong to me」

내가 생각해도 맘에 드는 선곡이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진열장 앞에서 유리잔의 물기를 닦고 있는 여종업원에게 다가가 팁을 주듯이 의기양양하게 메모지를 건네주고 돌아왔다.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CD가 빼곡히 꽂힌 한쪽 벽면 앞에서 메모지를 건네 받은 종업원이 등을 돌리고 서있는 게 보였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포니테일로 묶은 뒷머리가 어깨 밑에서 찰랑거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한동안 말이 없던 연희가 뜬금없이 물었다. 그러나 연희의 시선은 여전히 노트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나는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대꾸 없이 눈만 깜빡거렸다.

“이 두 사람 말이야. 헤어진 뒤에 어떻게 됐냐구?”

연희가 오른손의 검지를 곧게 펴서 노트북의 액정을 가리켰다.

“아, 난 또 무슨 얘기라구..... 글썄, 미리 말해주면 재미없을 텐데.....”

“그럼, 내가 한번 맞춰볼까?”

나는 대답대신 싱겁게 웃고 말았다. 모름지기 글은 써야 글이며, 다 쓰기 전에는 작자 자신도 그 결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소설의 결말을 어떻게 맞춰본

단 말인가. 그러나 내 소설의 플롯이 어떤 물질을 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타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도 그리 나쁠 것 같진 않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미니 시리즈의 지난 줄거리를 요약해주는 내레이터처럼 연회는 차분하고 명료한 음성으로 소설의 결말을 풀어내놓기 시작했다.

“남자와 헤어지던 날 여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삶이 자신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누구 한사람은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던 거지. 그리고 그 한사람이 자신의 연인이기를 바랬던 거구. 당위(當爲)로 버텨내기엔 삶이 너무 기니까. 특히 여자에겐 더욱, 어때? 여자가 죽는 거 맞아? 맞지?”

연회가 동의를 구하려는 듯 내 얼굴을 뵈히 바라보았다. 진부한 스토리였다. 나는 죽어도 저렇게 결말을 끌어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회의 얘기를 끊고 싶지가 않아서 나는 슬쩍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그리고 여자가 죽은 뒤, 남자는 고시원의 골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며칠 동안 내내 같은 노래만 들었어. 여자가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노래…… 시나리오가 아니니까 노래 제목은 그냥 넘어가구. 아무튼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남자는 문득 죽은 연인을 따라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돼. 그래서 그날 밤,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 차도로 뛰어들었는데, 불행하게도 남자는 완전히 죽지 못한 거야. 그래서……”

“정말, 소설을 쓰는구나.”

나는 재미있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이미 일그러진 표정을 감추긴 힘들었다. 어디선가 다시 포르말린 냄새가 얼굴을 덮쳐왔고, 나는 황급히 손바닥을 펼쳐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연희가 뒷애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허무한 입모양만 전달될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찻잔과 꽃병 그리고 재떨이와 노트북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한 채 테이블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찻잔의 손잡이를 수차례의 실패 끝에 손가락으로 낚아챘고, 찻잔 바닥에서 찰랑거리는 커피를 단숨에 삼켜 버렸다. 그리고 환후(幻嗅)에 이어 달려드는 환시(幻視)를 차단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탄창을 갈아 끼우기라도 한 듯 철컹, 짧은 여운을 남기며 어둠과 정적이 머릿속을 빼곡히 채우고 들어왔다. 비무장지대에 홀로 남겨진 병사처럼 나는 환각과 실재의 경계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환각과 실재의 승패는 점유율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나 이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며,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한 쪽이 실재가 되고, 그 반대쪽은 환각이 된다. 애초에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순간, 연희의 음성이 견고한 정적을 뚫고 들려오기 시작했다.

“노을을 배경으로 눈 내리는 거 처음 보는데 너무 아름답다. 눈송이들이 꼭 벚꽃 같애..... 그냥 여기서 살았음 좋겠다.....”

나는 각막수술을 마친 뒤 아주 오랫동안 붕대를 감고 있었던 환자처럼 조심스레 감았던 눈을 떴다. 노트북의 액정 위로 연희가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그나저나 이 소설의 주제가 뭐예요, 소설가 아저씨?”

연희가 물었고, 나는 조건반사처럼 대답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재미없다는 듯이 연희가 입술을 썰쭉거렸다. 어느새 스피커에서 신청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해적판처럼, 중간 중간 노래가사대신 허밍이 섞여들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잔잔한 기타반주에 맞춰 노래가 거의 끝부분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내 안에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여가며 열심히 노래를 따라 불렀다. 여자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였다.

< 작자후기 >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나는 오랫동안 방 한 칸을 찾아다녔다.

차렷 자세로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청해야 했던 비좁은 집과 주객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북적이던 4인 1실의 기숙사는 원고지 한 장 꺼내놓을 용기마저 단칼에 베어버리곤 했다. 글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시절의 내 다리는 늘 고달팠다.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기다려 낮에는 기숙사로 밤에는 학회방으로 ‘좀머씨’처럼 쉴 새 없이 걸음을 옮기다 보면 막상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땐 맥이 풀려 좀처럼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어찌 보면 방을 찾아다녔다기보단 방을 끌고 다녔다는 표현이 맞을 듯싶기도 하다.

‘시물라시옹’은 1995년도(?) 한우리에 실렸었던 ‘레테 가는 배’라는 단편을 최근에 개작한 것이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걸으

면서 씌어졌던 작품이기에 호흡이 꽤나 거칠고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 본 지면을 빌려 사죄드리고자 한다. 하지만 놓쳐버린 것들과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모두 모아 소설이라는 모델하우스에 꼭꼭 채워 넣고 싶었던 그 시절의 치기가 떠올라 많은 부족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20주년 특별 문집에 슬며시 원고를 내밀어본다. 내 모든 작품의 발원지인 한우리에 다시금 지면을 할애해준 문집 편집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작자후기랍시고 밤늦게 끼적거리고 앉아있자니 지나간 대학시절의 단상들이 하나 둘 눈앞에 떠오른다. 사탕에 혀를 베인 것 같은 기분. 달콤하지만, 돌아갈 수 없기에 쓰라린 기억들. 그러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고 푸르렀던 건 아니었는지. 돌이켜보면 대학이 가지는 최우선의 가치는 저마다에게 주어지는 순도 100퍼센트의 시간이 아닐까 싶다. 흔히들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과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이 다르다. 이 두 가지 일을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4년간의 대학생활이 아닐런지. 앙리 보스꼬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꽃은 씨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부터 가장 싫어하는 모습까지 수백 수천의 내가 내재하고 있다. 지금의 나는 그 중 몇 번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좀더 치열하지 못했던 대학생활에 대한 후회는 지금껏 가슴에 남아있다. 하지만 내가 앉았던 곳에서 밥을 먹고, 내가 앉았던 곳에서 수업을 듣는 나의 분신들,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후배들이 있기에 크나큰 위안이 됨을 밝히고 싶다. 모두들 내내 건재하시기를.

요즈음에도 일상에 지칠 때면 가끔씩 왕산을 찾곤 한다. 캠퍼스를 거닐다보면 건빵바지에 허름한 야상을 걸쳐 입은 20대 초반의 내가 저만치서 확확 걸음을 옮기고 있다. 불운했지만 눈부셨던 나날들. 살아있는 물고기의 비늘을 칼로 긁어내듯, 아프고 두려웠지만 즐기게 펼떡이던 내 청춘의 한낫. 무엇이 그리도 신나는 게냐. 내가 가장 바래왔던 나의 모습을 저만치에 남겨둔 채 나는 매번 읊조린다.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6. 이남준 (99)

마케도니아 연수

2004년 여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를 가게 되었다.

일반인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나라를 간다고 했을 때 주변사람들은 왜 가냐며 물었지만 난 기대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공성현 선배와 간다는 게 조금 걱정되기는 했다.)

2003년 여름 노비사드 여름학교를 갔을 때 김성환 당시 학과장님, 백종필 교수님께서 마케도니아를 가시기 위해 기숙사에 베이스캠프를 차리신걸 보며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터라 더욱 그러했는지도 모른다. 그 후, 1년의 시간이 흘러 과분하게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케도니아를 가게 되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마케도니아 2주 일정 앞뒤로 일주일씩의 세르비아 방문계획을 넣었다. 항공권을 끊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국 일을 기다릴수록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났다.

드디어 출국일, 중국과 비엔나를 경유하는 고된 일정을 소화해 노비사드에 도착했다. 1년 만에 도착한 노비사드는 앞으로의 여행일정을 더욱 들뜨게 했다. 1주일동안 여름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 선생님들, 한국에 오셨던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리며 비자를 준비했다.

마케도니아 대사관은 베오그라드에 있어 아침 일찍 노비사드를 출발해 베오그라드 대사관에 도착했다. 11시전에 비자를 접수해야 당일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부지런히 갔

건만, 국경일로 대사관은 휴일이었다. 다시 오기로 하고 기차표를 끊으러 간 여행사는 더욱 암울했다. 여름휴가기간이 겹쳐 기차표를 구하기도 만만치 않았다. 어렵사리 두 자리를 끊고 비자도 발급받았다.

이제 고생 끝 행복시작, 드디어 그 유명한 오호리드 호수를 간다고 환호를 불렀던 것도 잠시 고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저녁 무렵 도착예정이었던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스코페에 단선 열차를 타고 도착하니 새벽3시 무렵이었다. 자고 일어나도 맞은편에서 오는 열차를 기다리느라 꿈쩍도 않는 후덥지근한 열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한 마케도니아의 수도 중앙역은 황폐했다. 눈을 붙일 틈도 없이 천근만근 몸을 이끌고 다시 오호리드 역으로 출발해 10시경 도착했을 때 이미 손 하나 까닥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 숙소까지는 다시 버스로 2시간을 가야하는 일정이었다. 성현이형과 둘은 덜컥거리는 버스에서 말 한마디 안하고 멍한 정신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학교에서 배정받은 기숙사에 도착하니 스웨덴 룸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어와 독일어를 유창하게하며, 불어를 읽을 수 있고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어를 준수하게 구사하는 금발의 건장한 룸메이트와의 2주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외출준비에 1시간의 화장 및 코디를 하는 성현이형과 틈만 나면 발코니에서 선댄을 즐기는 룸메이트, 나돌아 다니기 좋아하는 나, 이렇게 3명의 2주일은 하루하루 흘러갔다.

2주 동안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개인일정으로 보내게 되었다. 첫날 테스트를 하고 반 배정을 같은 반에 그리스, 터키, 폴란드에서 온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었다. 그리스에서온 안드레 아가시를 닮은 수다스러운 장래희망이 교수인

친구, 골리앗 같은 터키에서 온 부잣집아들, 폴란드에서 온 철부지 아가씨 2인방과 하루하루가 모험인 오호리드에서의 생활은 익숙해져갔다. 세르비아어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마케도니아어 수업과 오호리드 호수에 서있는 끼릴과 메토디에 형제의 동상은 학술적으로는 졸업논문의 주제가 되는 큰 수확을 얻어오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의 마케도니아 생활은 그 이상의 의미로 나에게 남아있다.

화려하면서 평온한 오호리드에서 방문하는 관광지과 수려한 자연 환경 외에도 하루하루 평온한 일상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머리에서 쉽게 잊혀 지지 않음은 물론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커피한잔 시켜놓고 내키는 대로 만나절을 호수만 바라보고 있어도, 한없이 걸어 다니면서 셔터를 날려도 옆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바에서 죽도록 술을 마셔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사회에 나와 보니 그때와 같은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그리움에 해외로 나가는 후배들이 부러워질 때가 많다.

오호리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세르비아로 돌아오기 위해 파티를 하던 날, 곧 다가올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이 모두 한방에 모였다. 새벽버스로 떠나는 나와 성현이형을 위해 모두 같이 밤을 새고 배웅을 해주겠다고 했다. 모두 일정을 틀리지만 하루, 만나절차이로 오호리드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에 아쉬움이 더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꼬박 밤을 새며 이야기를 하고 오희리드를 떠날 때 모두들 작별이 아쉬워 눈물을 보였다. 성현이형을 좋아한다고 놀려대던 철부지 폴란드 아가씨도 약간은 이기적이던 스웨덴 룸메이트도 서로 헤어짐이 싫어, 다시 돌아갈 일상이 싫어서 조금이라도 헤어짐을 미루고 싶었다.

오희리드에 올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세르비아로의 복귀가 시작되었지만 버스에서의 더위, 힘든 시간보다 더 힘들었던 건 꿈처럼 지나간 짧은 마케도니아에서의 생활이었다.

잠시나마 바쁜 일상에서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던 대학생활의 추억 중 한 부분을 동문회보를 통해 꺼내보면서 다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 시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들로 가득했던 그때가 시간이 흐르고 되돌아보면 양분이 되어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 마케도니아, 혹은 전공한 언어 국가를 방문하는 후배들도 언어는 물론 인생에 양분이 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오길 바란다.

[재학생 글모음]

1. 이준형 (02)

나의 학부조교 이야기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유고어과(당시에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과명이 유고어과였습니다.) 02학번으로 입학한지도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돌이켜보니 군대도 다녀오고, 그 사이에 학과명칭도 바뀌었으며 또한 학과를 졸업하고 동 일반 대학원 동유럽어문학과에 진학해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6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7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신입생 시절에는 저와의 거리가 하늘과 땅만큼 멀다고 느껴졌던 학부조교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있던 며칠 전 학과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마지막 휴가를 나와 학교를 방문해 학부조교에 지원했던 그때의 일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이제 막 군대에서 나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마음이 사회로 돌아가면 무엇이랄도 잘 해낼수 있을것 같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저의 학부조교로서의 임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여러분은 학부조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학과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조교, 과사무실에서 학년조교와 같이 근무하는 학우라고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 조교업무를 시작할 때 학부조교란 학과 또는 학교의 학사일정이나 궁금한 점 등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학

우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학부조교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로 인해 과사무실에 찾아와 무엇인가를 문의하는 모든 교수님들 및 학우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한 그런 역할을 저와 동료 학부조교 그리고 학년조교 여러분들이 해야만 학과가 발전하고 커나갈 수 있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학부조교라는 자리는 세/크어과 학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종일 일해도 일이 끝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면 정말 지치고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뛰어넘고 극복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소위 말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유명한 구절을 항상 머릿속에 새겨놓고 실제로 업무와 맞부딪혀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즐겁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학부조교 역시 대부분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무한경쟁사회에 뛰어들게 되면 자신이 조교 시절 경험했던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어려울 때마다 분명 힘을 북돋아 주는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사회라는 관문에 뛰어들기 위한 예비 시험인 셈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조교 업무를 수행하며 크게 감사드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과장님이신 김철민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학부조교를 하기 전 학과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아는 것은 단순

히 학과의 책임을 지시는 분 이라는 것 외에는 솔직히 것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피부로 부딪히면서 학과장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다른 학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학부조교를 시작하고 학과장님을 보좌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한 학과의 학과장으로서 한 학기동안 처리하는 업무의 양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과 그것을 처리하고자 공을 들여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학과에 소속되어 누릴 수 있는 권리, 학사에 관한 일정 등등 학과의 학생으로서 당연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 학교와 학과에 긴밀한 협력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태껏 학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빌어 지금까지 학과의 번영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이전 학과장님이셨던 김성환 교수님, 권혁재 교수님 그리고 현 학과장님이신 김철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조교들 역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학부조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했던 모든 조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07년도 2학기 동료 학부조교였던 02학번 정옥재 학우, 그 후임자로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고 있는 학부조교 03학번 양혁재 학우 그리고 07년도 2학기 학년조교였던 02학번 한기철, 백승종 / 03학번 소필검, 서영욱 / 04학번 이재일, 정영재 / 05학번 민수경 / 07학번 백지원, 박대일, 신정아 학우 그리고 08년도 1학기 학년조교였던 03학번 정진수 / 04학번 정영재, 김상훈, 유재은, 이선경 / 06학번 김소

연, 배병두 / 07학번 조현아, 이희재 학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08년도 2학기에 함께하고 있는 03학번 김현식, 소필검 / 04학번 조윤주, 최윤영 / 05학번 진서연, 김황룡 / 06학번 배병두 / 07학번 김아람 / 08학번 최혜연 학우 이렇게 모든 조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에 제가 즐겁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끝내기에 앞서 시간이 흘러 저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학부조교가 어문관 528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과사무실을 지켜주길 감히 희망해 봅니다. 사회라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발을 내딛어야 할 그 곳에 나가기 전 꿈과 열정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어렵지만 보람있고 추억에 남는 학부조교 업무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멋진 학우 여러분들이 수행해 봄으로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상상의 나래를 꿈꾸어 보시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도균 (02)

오선지와와 짧은 대화

일요일 오후4시 교대역, 한가한 주말 오후 공연 연습은 시작된다. 바캉스 시즌이 시작 될 무렵부터 계속된 연습은 바람이 선선해 지고, 아침저녁이면 쌀쌀한 날씨가 될 때까지 계속 된다. 6현의 기타줄을 조율하고, 보컬은 목을 가다듬는다.

이제는 익숙해 질만도 한 습하고, 꼬릿한 합주실 냄새가 아직 어색하다. 첫 곡은 항상 제일 자신있는곡, 사실은 제일 쉬운곡으로 시작된다. 오늘 연습은 어딘지 모르게 서로 핀트가 안맞는다. 컨디션이 다들 저조한가... 보컬녀석도 감기가 걸렸단다. 이쯤되면 리듬기타파트 녀석의 성질이 돋궈지기 시작한다. 취업준비로 집안 눈치 살피느라 연습도 많이 못해오지만 항상 제일 열정적이다. 원래 드럼을 치던 녀석이라 그런지 드럼파트에게 잔소리가 유독 많다. 얼마전에 밴드에 합류한 키보드 파트는 아직 뭐든지 어색하다. 인사하는 것도 서먹하고, 연습도중 말한마디도 눈치가 보이나 보다.

어찌저찌 어느새 2시간, 벌써 시간이 다됐다. 6시까지 2시간을 꽉 채워서 연습하다 보면, 손가락은 어느새 부르트고, 얼굴은 피곤과 땀으로 기름져있다. 시간당 만원, 나눠서 계산을 하더라도 각자 오천원이다. 학생에게 적지 않은 돈이지만, 다들 좋아서 하는 밴드다 보니 아깝지는 않은 모양이다.

해가 짧아졌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밝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어둑어둑 하다. 오늘은 어딘지 다들 할 얘기가 많다. 편의점에서 맥주한 캔, 과자 한봉다리를 사들고, 근처 놀이터 벤치에 걸터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다음주에는 어떤 곡을 연습 할지, 공

연은 언제 할지, 얼마전에 본 토익은 몇점이나 나왔는지, 소소한 이야기. 어쩐일인지 최근 들어 대화가 더 줄은 느낌이다. 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고요함이 어색하지는 않다.

블루스, 재즈, 락앤롤, 펑크, 클래식, 하드코어, 프로그레시브, TV아이돌의 댄스, 팝,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음악들. 장르를 구분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분류해 놓은 교과서 같은 이야기들, 우리가 음악을 하고 있는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마치 당신이 꿈꾸고 있으면서도 꿈꾸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없듯이, 음악에 대한 정의도 없다. 눈에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구름같이, 우리는 잡을 수 없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 이상주의자들이다. 거칠지만 부드럽고, 시끄럽지만 조용하고. 우리는 단지 음악이라는 오선지 위의 음표에 맞추어 대화를 하는 이상주의자들이다.

집으로 돌아가는길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는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지하철 안 내 손가락은 어느새 음악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박자를 맞추고 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꾸벅 졸고 있고, 그 옆 사람은 조간 신문인지, 석간 신문인지 알 수 없는 신문을 노려보고 있다. 이순간 나만이 여유롭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음악 좋아하세요?” 라고 시작해, “저는 아직도 음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로 끝났어야 할 이야기 일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나에게 “음악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모르겠다. “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지, 다만 내게 음악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오감을 잔잔하게 울려주는 진동이다. 지금 당신이 옆에앉은 그, 또는 그녀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음악 좋아하세요?”가 아니다.

“같이 들을래?”

3. 심명섭 (03)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사실 부족한 제가 졸업반 시기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20주년 기념행사의 총괄지원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부담이, 다른 한편으로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행사 준비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학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과 구성원 수가 적은 저희 과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비교적 규모 있는 행사를 준비하다보니, 저학번 학우들을 비롯하여 교수님들과 고학번 학우들까지도 모두 참여해서 고생해야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일부 공연팀들은 막막함 속에서도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밤낮없이 연습해야 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지 않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우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색하나 없이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행사준비에 임해주셔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에 치뤄지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의 20주년 기념행사는 학과 모든 구성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내는 정말 뜻 깊고 보람 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작은 규모의 학과에서는 감당해내기 힘들 정도로 규모 있게 치뤄지는 뿌듯한 행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함께 흘린 값진 땀방울들이 밑거름이 되어 학과 구성원 모두가 사회에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소중한 경험과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주년 기념행사 학생대표 총괄지원팀장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03학번 심명섭

4. 소필검 (03)

도전

세상이 제 손안에 다 있을 것 같던, 시절이 끝나고 계속해서 제 손안에 있던 도전과 열정들은 서서히 잡아도, 잡아도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시기 인 것 같습니다.

2년간 열심히 군복무를 마치고, 작년 9월 이맘 때쯤 전역을 하였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왕고가 되면,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생각들 다들 하셨죠?

저 또한, 그렇게 맘 먹고, 말년 마지막 휴가 때부터 학교가 개학이 되어서 바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에게는 쉼다는 말이 조금은 사치 인 듯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안 밖으로 할 일이 없나 하고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맘 때쯤의 열정은 아닌 것 같아, 제 자신에게 미안하고 여기가 끝인가.. 하는 한계에 부딪친 것 같아 힘이 빠지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하는 심정이 더 큰 글인 것 같습니다.

군 제대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증명사진을 다시 한장 찍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선배를 만나서 학교 앞에서 저녁을 먹다가 “필검아, 운영요원부터 한번 지원해봐라.!” 이렇게 말씀해주신 선배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 운영요원의 접수 마감일 이었습니다. 점심 먹은 시간이 오후 2시쯤이었고, 바로 집으로 가 5

시까지 마감시간이었는데, 지원서를 부랴부랴 쓰고, 선배한테 자소서도 한번 검사맞고, 이렇게 지원하고, 마감 2분전에 지원서를 내었습니다. 서류전형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경쟁률이 높아, 선배도 선뜻 장담을 못했습니다. “제발 서류전형만 통과하자.” 하는 맘이 굴뚝같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말이 “그렇게 내고, 마음을 비워라!” 라는 선배 말씀이 너무 와 닿았습니다.

지금에서야 돌아보지만, 그렇게 무엇인가를 제출하고는 그거에 대한 마음을 줄이는 것이 더욱 더 자기에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조마조마 하면서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선배가 소개해 줘 후배로서 되면, 그것보다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서류 전형통과가 문자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어면접 일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한 나였지만, speaking, 정말 자신 없었습니다. 선배에게 “서류통과 했어.형,” 단지 문자 한통만 보내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영어면접. 도서관가서 영어면접 책을 빌려, 무조건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 가서 면접을 보면, 떨릴테니깐, 계속 연습연습연습만 하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또는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하여서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다들 영어실력들이 저보다 훨씬 좋은 분들만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소릴 쳤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할수있다!”

그렇게 무사히, 면접을 마치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선배한테 갔습니다. 선배 왈, “수고했다,...그런데,

넥타이 메고 가지 그랬냐?!”

괜히, 또 넥타이 메고 가지 않아, 옷차림에서 점수를 못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소심한 생각이 또 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통과 하셨습니다” 교육 일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땐,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나를 사로 잡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열정은 단지, 열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모든 것에 임하면, 안 되는게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배한테 문자를 날렸습니다.”형, 고마워. 나 됐다.” 형 왈, “축하한다. 많이 배우고 와라”

지금.. 그런 중요 컨벤션이 있을때면, 항상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그 회사와 인연을 계속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1년을 돌아보니, 다시금 용기와 열정과 도전 의식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것,

열정, 움직이지 않으면 단지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 이렇게 다시, 또 다시 도전하면서 시작합니다.

저의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여러분들도 다들 파이팅입니다! ^^

5. 임동진 (03)

아드리아해의 진주 두브로브닉(Dubrovnik)

6개월여의 베오그라드에서의 대사관 인턴 업무를 거의 마칠 때 즈음, 그 동안 수고 했다는 의미로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아 나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아드리아 해로 마음을 정했다.

나의 여행 계획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저가항공을 타고 크로아티아 스플릿에 내려서 하루정도 머문 다음 버스로 아드리아해안을 달리며 두브로브닉에 도착하는 여정이었다.

전날 스플릿의 버스터미널에서 두브로브닉행 표를 예매한 탓인지 내 자리는 거의 맨 앞이었는데, 버스 승객의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이었다. 운 좋게 오른쪽 창가에 앉아서 가는 내내 비취빛 아드리아해를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 모습은 장관이었다. 왼쪽에는 검은색의 험한 산들이 굽어있고 오른쪽은 끝없이 펼쳐진 아드리아해를 보고 있노라면, 그 자체가 행복이었다. 새로운 풍경이 하나, 둘씩 나올 때마다 나를 비롯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연신 감탄사를 뱉어냈고, 나 역시도 그 아름다운 풍경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였다. 두브로브닉으로 향하던 도중 역시나 알고 있던 대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경이 나왔고, 버스기사의 여권을 준비하라는 차내 방송이 나오자 모두가 주섬주섬 여권을 꺼내기 시작하였다. 발칸 반도에서 여행할 때에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거의 대부분 애를 먹기 마련이다. 몇몇의 국경 경찰은 남한, 북한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무비자 허용 여부를 몰라 확인할때까지 그 자리에 세워놓기 때문에

나로 인해 같이 버스를 탄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까봐 혼자서 노심초사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여권과 소지자를 대조하는 식으로 간단히 끝났다. 아마도 관광 성수기인데다가 도로가 단선이라 교통 혼란을 의식해서 간단히 검사하는 것 같았다.

4시간 정도 달렸을까? 멋진 크루즈가 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고, 저 멀리 두브로브닉이 손에 잡힐 듯 힐끗힐끗 보이기 시작했다. ‘아! 내가 말로만 듣던 두브로브닉에 왔다!’라는 것이 실감이 되었다. 버스가 터미널에 다다르자 나는 미리 예약해 놓았던 민박집에 마중 나와 줄 것을 부탁하는 전화를 걸었고, 이윽고 한국산 스포츠카를 타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서 나를 납치(?)하듯 열린 차에 태우고 민박집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크로아티아어를 몇 마디 건네자 매우 놀라면서 어떻게 우리말을 할 줄 아냐고 신기해하시며 잘 왔다고 나를 반겨주셨다. 두브로브닉에서의 여행정보를 듣자마자 버스를 타고 두브로브닉으로 향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에 다다르자 돌로 지어진 멋진 성 앞에 내려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곳이 두브로브닉인 줄 몰랐지만 성 안으로 들어가니 낮익은 거리의 모습이 나타났다. 성 안의 모든 건축물과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이곳! 내가 두브로브닉에 와 있구나! 라는 생각에 나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을 몰랐다.

군데군데 멋진 성당, 박물관 그리고 실제로 사는 집 모두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정말 이 멋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곳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고, 성을 관통해 부둣가에 다다랐을 때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할 만큼 멋진 풍경이 내 앞에

펼쳐져있었다. 줄지어 매여 있는 고깃배들과 어딘가의 섬으로
향할 법한 작은 관광선, 여유롭게 낚시그물위에서 자고 있는 고
양이 가족까지... 보이는 모든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 멋졌다. 부
둛가에서 바라본 바닷물은 작은 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이 보일만
큼 너무나도 맑았고, 저 한편에 보이는 해변에는 그 맑은 물 안
에서 헤엄치고 있는 관광객들이 너무나도 즐거워 보였다.

두브로브닉의 전체 모습을 둘러보기 위해 50를 주고 성곽 일
주에 나섰다. 성곽을 돌면서 보이는 새파랗고 맑은 바다와 도시
에 감싸여 있는 빨간 지붕의 집들은 어느 이온음료 광고에 나오
는 그리스 산토리니 못지않은 감동으로 내게 다가왔다. 좁은 성
곽 일주로를 따라 연신 사진을 찍어대며 그 모습에 빠져있는데
어느 새 한 바퀴를 다 돌고 말았다. 시계를 보니 3시간이나 지
나있었는데 그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가 버렸는지 모를 만큼 나는
그 모습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돌아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바로 어제까지 두브로브닉에 있
다 온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 멋진 그 곳의 모습이 뇌리에 생생
하다. 아마도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른다고 해도 나는 두브로브닉
을 잊지 못 할것이다. 아드리아 해와 두브로브닉에 가야할 것인
지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다.

“자신의 오염된 두 눈을 정화시키고 싶다면 두브로브닉에 꼭
가야한다.”

6. 전선헤 (05)

드디어 떠난다. 한국을 떠나 자유의 땅 세르비아로..

사실상 나에게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한국을 ‘떠난다’ 라는 게 더 즐거웠던 것 같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환경이랑은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한다는 것..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해 볼 수 있는 경험. 어쩌면 이러한 기대는 내 기억 한 켠에 자리잡은 2002년의 즐거운 추억 때문에 더 커졌을 지도 모른다. 2002년 처음으로 미국으로 짧은 어학연수이자 여행을 3개월 동안 다녀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실 나는 그 ‘즐거움’과 ‘기대’만 가지고 2007년 1월 26일 출국을 했다.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져가는 짐은 많았지만 그만큼 부푼 마음으로 출발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세르비아. 2006년 유럽여행을 하면서 세르비아에 3일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착한 세르비아가 낯설지는 않았다. 그 때에는 내가 앞으로 생활하게 될 노비사드가 아닌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었기 때문에 노비사드는 처음이었다. 나와 나의 6개월을 함께할 친구들은 베오그라드 공항에서 예약된 벤을 타고 노비사드로 갔다. 드디어 도착. 한국을 떠난 지 하루 만에 도착을 한 것이다. 우리는 먼저 간 선배들의 환영을 받으며 짐을 풀었다. 그리고 우리의 첫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센터로 나갔다.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지나쳐 가던 술 취한 세르비아인 무리가 우릴 보더니 “KINE~” 라 하며 화가 난 듯이 이소룡 흉내를 내며 지나간다. 순간 처음 도착한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황했고 약간 무섭

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다. 그 전에도 유럽과 아시아 많은 나라를 여행해봤던 나였지만 이러한 반응과 대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놀랬었다. 이렇게 우리의 세르비아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대우를 받아야 하지? 등등, 여러 생각을 하면서 노비사드에 있는 우리와 처지가 같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고, 쉽게 친해졌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선배들이 한국으로 떠난 뒤 처량하게 남은 우리 넷은 무언가 힘들 것 같은 세르비아 생활을 직감한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힘들었던 것이 날씨가 우리를 돕지 않아 6시 수업 시간이면 캄캄해진 후에야 집으로 갈 수 있었고, 집으로 가는 길에는 비도 오고 겨울에는 잘 나가지 않는 유럽인들의 습성 때문에 참으로도 외로웠다. 가끔씩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중국인이라 손가락질까지 했다. 그리고 가끔씩 만났던 다른 나라 친구들도 여행을 갔던 지라 그 한 달을 세르비아에 왜 왔을까 하는 후회로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돌아오고 우리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서 세르비아에 봄이 왔던 것 같다. 처음에는 우리를 중국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것이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는 “Nismo Kine!”를 외치면서 한국을 알렸다. 그러면서 점차 수업에도 활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의 생활에도 활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첫 학기는 그 도착한 첫 날 만났던 외국인 친구들과 너무 친해져서 사실 다른 친구들이 필요 없을 만큼 생활을 잘 했던 것 같다. 중간 중간에 부활절이나 주말을 이용해 우리는 간간히 여행을 했고, 그럴 때 마다 자유를 만끽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첫 학기가 지났다. 나와 함께 온 친구들 중 2명은 떠났고, 다음 학기 교환학생들이 오면서 나

는 우리가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며 6개월 해 본 세르비아 생활이라고 도착한 친구들에게 이것 저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를 중국인이라고 불러도 옆에서 우리와 마주쳤던 사람들은 재네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야 라고 해 줄 정도로 우리는 한국인임을 인정 받았다. 나의 둘째 학기는 첫 학기 보다는 훨씬 즐겁게, 이제는 세르비아인 친구들도 많이 사귄 만큼 여유 있게 보냈던 것 같다. 중간에는 대사관 주최 한국 시립 발레단 공연에서 세르비아어-영어-한국어 통역이라는 값진 경험도 해 보았고, 추석 기념 대사관에 초청 받아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 세르비아에 온 것이 너무나도 뿌듯하게 느껴졌던 한 학기를 다닌 것이다.

이제는 2007년 한 해가 추억으로 남을 만큼 멀어진 2008년이지만 잊을 수 없는 그 1년은 내 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한 해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직도 세르비아인들의 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꼭 가고 싶은 나라 ... 오늘은 그 추억을 회상하며 앞으로 다가 올 무수한 기회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7. 정영재 (04)

안녕하세요.

04학번 정영재입니다. 처음 학교를 찾아온 날, 모현 사거리를 보면서 꿈꿔왔던 대학의 모습과 너무 틀려서 많이 실망했던게 엇그제 같은데, 지금은 제가 20주년 기념 문집에 삶을 글을 쓰고 있네요. 회수로는 5년 정도 보낸 우리 과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과 추억들이 드문드문 기억속에 자리잡고 있지만, 미친듯이 노력해본게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러워지는 밤입니다. 2004년 2월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학교에 처음 온 날, 모현 사거리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깐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고, 처음부터 우리 과를 염두해두고 공부했던것은 아니었지만, 대학교 정문을 딱 보니 약간의 뿌듯함과 설렘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펼쳐지는 눈발과 허허벌판,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는 산봉우리들.. 걷고 걸어도 대학교처럼 보이는 건물은 잘 안 나타났습니다. 한참의 등산 후에 후복관에 도착한 후, 신검을 받고 뒷풀이에 남아서 선배들이 따라주시는 술 잔에 집중하다 보니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술이 거하게 들어간 후, 한 동기님과 눈이 맞아서 같이 명수당을 바라보며 2월의 왕산의 스산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담배 한 모금 피웠습니다. 서로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인연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나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있고 그 집단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곳을 떠나게 되면 잘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학생들도 스스로 얼마만큼의 과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몰라도 세크어

과라는 큰 울타리안에서 여러모로 많은 보살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는 같은 지붕아래 모이게 됐고, 한창 청춘의 세월을 같이 공부하고 고민을 나누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가 어떤 과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냥 같은 테두리안에서 동기가 되고 선 후배가 되어서 공유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과,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 의지하고 기대면서 자신들의 꿈을 향해 같이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번역정 (04)

나와 세르비아

내가 좋아하는 언어를 정복한 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영어와는 달리 남들이 잘 모르는 세르비아어라는 제 3의 언어를 안다는 느낌은 마치 ‘무적의 무기’를 손에 쥔 느낌입니다.

문득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동기들과 함께 악을 써가며 학과 구호를 외치던 때가 생각나서 웃음이 납니다. 그때는 세르비아어가 외계어처럼 너무 신기해서 인사말, 단어 하나하나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또 ‘발칸 유럽의 사회와 문화’ 책을 읽으면서 ‘부렉’이란 음식이 있구나 하면서 무슨 맛일까 상상을 해봤지만 그저 먼 이야기 같기만 하고 실제로 감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2학년 학기 말에 느낀 것이, 이대로 시간은 화살같이 가는데 3학년이 되기 전에 정말로 세르비아 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교환학생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 속에서 삶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때론 실수도 했었지만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없을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항상 서두름이 없이 여유로운 세르비아인들의 모습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 또한 배울 수 있었고 외국인들과 살아가면서 먼저 포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생활에 있어 음식을 비롯해 외로움, 향수병 등 고생도 없지 않지만 이런 시간들이 다 쓸데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시간은 훈련이자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 있어서의 값진 교훈이었고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내 자신이 자랑스롭습니다. 이처럼 언어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안목과 지혜까지 얻을 수 있었던 교환학생 기간은 나의 대학시절에 있어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고 세르비아 인들과 함께 보낸 이 시간들은 제 인생의 젊은 날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아름다운 기억이었습니다.

커피로 서로 점을 봐주며 수다를 떨던 룸메이트들, 록 음악을 즐겨 듣고 항상 검은 옷차림으로 다니던 긴 머리의 친구들, 밤마다 콘서트며 클럽에 가던 친구들, 요새 위에서 노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이야기했던 친구들, 상어를 잡았던 친구의 동생,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즈베리 케익을 만들어주시던 친구의 어머니, 나에게 자신의 여행가방을 선물한 친구의 할아버지, 광장모퉁이에서 맥주를 마시며 놀던 철없는 어린 친구들... 때때로 그 사람들이 생각날 때면 이유없이 빙긋이 웃고는 합니다.

지금은 한국외대 통·번역연합회의 15기 2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어 담당회원은 제가 처음으로 지원한 거라고 다들 신기해 해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제2의 고향은 세르비아인 것 같습니다. 가끔 세르비아가 무척 그리워지고 그곳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뽁뽁한 아파트로 가려진 하늘과 매연 속의 자동차들을 바라볼 때면 정말로 세르비아의 여유로운 풍경과 주머니 사정은 넉넉치 않았지만 마음만은 넉넉했던 삶을 즐길 줄 아는 그 곳 사람들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세계라는 무대에서 한국과 세르비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아시아와 동유럽이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9. 오은비 (05)

Time Goes Fast...

어느 학생들과 똑같이 나도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멋있고 예쁜 사람들도 많고, 잔디밭에 앉거나 누워 책도 보고 (외국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일까...), 여행도 여기 저기 많이 다니고, 등등...

그러나 내 기억에 1학년 2학년은 술 문화밖에 기억이...나질 않는다...

2005년 입학생으로써 새터에 참여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은 작은 목적으로 한 새내기 배움터는 대학생활 시작 후 처음으로 하는 여행 이였다. 이게 웬 일이람... 모든 과의 회장들은 술을 잘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테이블에 올라가 구호와 함께 들이키는 소주 한 병... 저게 정녕 술인지, 물인지...

어찌되었든 새터는 시작되었고, 첫날 숙소에 도착하기 전 어느 공연장에 가서 드링크 타이거의 공연과 다른 타 연예인들과 몇몇 동아리 들의 공연 등등. 너무나도 신나는 밤 이였다. 특히나 드링크 타이거를 좋아 하던 터라...

숙소에 도착해서는 조를 짜서 방도 배정 받았다. 하지만 술이 시작 되니 내방이 어디인지 방을 왜 나눈 것 인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듯 했다.

2박 3일간의 오티... 난 정녕 젊고 힘이 넘치는 20살 이였나 보다. 2박 3일 동안 잠을 2시간은 잤으려나... 마시면서 배우는 랜덤게임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게임들을 마스터하고... 이 곳 저 곳의 방과 조에 돌아다니며 ‘안녕하세요 05학번 오은비입니

다'라는 말을 수 십 번, 아니 수 백 번은 한 듯. 처음 보는 선배님들, 예비역 선배님들, 고 학번 선배님 모두를 취해 쓰러지게 만들고.... 나는 바람과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모두를 술로 취하게 하였드랬다.....

1년이 지나 이제는 더 이상 새내기 입장이 아닌 후배가 생긴 선배의 입장으로 새터에 다시 참여. 1년 동안 술 잘 먹는다고 선배님들께 전화를 많이 받으며 이 곳 저 곳 다녔던 터라 아직은 죽지 않았을 거라 생각. 너무나도 자신 만만 했던 것인가... 난 그날 무릎을 꿇고 말았다. 2박 3일간 잠도 없이 곳곳히 잘 놀던 나는 어디 갔단 말인가. 마지막 날 아침 술 병이 나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끙끙 앓고 아침도 못 먹고 집으로 향했다는....

시간 정말 빠르다. 2년간 재미있고 활기 찬 대학 생활 후 1년 반 동안의 휴학. 잠시 영어 공부를 하고 복학을 하니... 벌써 3개 학번의 후배들이 생겨 있더라. 잠시 2학년 시절로 착각하고 과방에 있다가 얼굴도 모르는 후배들이 들어와 손 쌀 같이 도망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 2년은 술이 아닌 공부로 열심히 살아보길 다시 다짐해본다.

10. 김지민 (04)

코트라 인턴 체험기

김철민 교수님과 면접을 마친 후부터 계속 걱정이 됐던 점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저 이후로 다음 2기 인턴을 뽑지 않는다면 각오하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그레브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그전에 세르비아에서 지내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 생활에 대한 두려운 점은 없었지만 자그레브에 와서 세르비아에 서처럼 학교를 다녔던 것이 아니라 사회경험을 한다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해서 무역관 관장님과 과장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숙소로 오는 길에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도착한 다음날 첫 출근을 해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막막하던 생각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하는 요령도 생기고 적응을 하면서 내가 대학생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정말 부족한 점이 많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던 경제용어나 여러 경제 상식들을 알아가고 또 무역에 관한 상식도 배워가면서 회사에서는 어떤일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정말 사소한 점 하나하나도 저에게는 부족했던 점이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턴생활이라는게 원래 사회생활하기 전에 배우기 위해 체험하는 것이니만큼 열심히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생

각으로 이렇게도 부딪혀보고 저렇게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업무가 주어졌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무슨말인지조차 모르겠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또 현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식사 중에 무역관 관장님과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유심히 듣기도 하니 크로아티아의 정치, 사회, 경제동향을 파악하게 되어 그것을 바탕으로 기사도 작성하고 정보도 업데이트도 하고 또 크로아티아에 대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알아 배웠던 것들 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일에 익숙해져가고 또 이곳에서의 생활 역시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30분까지 출근하고 4시 30분에 퇴근해서 시간이 참 안갈 것 같았지만 벌써 3달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흐르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는 것 같습니다.

자그레브는 9월만 되도 한국과는 다르게 쌀쌀해져서 안그래도 외롭게 혼자 생활하는 저에게는 정말 삭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사이에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날씨로 인해 몸이 적응이 되지 않아 감기에 걸리기도 했지만 따뜻하게 대해주는 현지직원들과 코트라 식구들이 있어서 마음편하게 인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과를 빛내지는 못해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또 학교생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점들을 많이 듣고 보고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김이현 (05)

1513

‘1513이 무슨 숫자였지..?’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는가?
있다면 조금 더 수업과 학과에 애정을 갖고 돌아보길.
잠시만 생각해도 바로 ‘아~!’ 하고 웃게 될 터이니.
졸업하신 선배님들이거나 재학생임에도 아직 떠오르지 않은
(반성해야 할) 학생들을 위해서
힌트를 조금 주자면 1513은,
우리 세.크어 과를 설립하신 김성환 교수님께 직접 수업을 들
을 수 있는 곳.
김철민 교수님의 ‘우리 애기들’ 중 한 명이 되는 곳.
운동을 잘 하지 못해도 누구나 김상현 교수님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곳.
1·2교시에 권혁재 교수님 수업을 들을 경우 간혹 귀여운 뺨침
머리를 볼 수 있는 곳.
우리 과의 김지향 교수님께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도서를 번역
하셨다는 것을 알고 내심 뿌듯해지는 곳(동시에 우리가 역사의
대서사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곳).
백종필 교수님의 결혼 전후 체격의 중후해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곳.
전영선 교수님의 보조개에 빠져드는 곳.
세르비아의 예쁜 빨강머리 Gordana 교수님과 크로아티아의 푸
근한 Pužar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
새내기들의 MT 집합 장소가 되는 곳.

컴퓨터상에서 특수기호인줄만 알았던 문자가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끼릴문자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

밤새워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공개하는 곳.

하필 버스가 막혀 조금이라도 늦는 날엔 문 열고 들어가기 엄청 죄스러운 곳.

한 학기에 몇 번이고 오만상 찌푸리며 시험을 봐야하는 곳.

스승의 날이면 교수님 몰래 작은 파티준비가 이루어지는 곳.

공강으로 시간은 붕 뜨고 딱히 갈 곳은 없을 때 동기들과 부담 없이 언제든 우르르 몰려가 웃고 얘기할 수 있는 곳.

중간에 그 어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건 다 아는 얼굴인 곳.

그런 곳이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 일을 실제 있었던 일화로 과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있었던 일이다.

한 선배가 잠긴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잊었는지 계속 이 번호저 번호 누르기를 30분여 쯤 하고 있었다.

생일이며 기념일이며 추측이 가능한 소재도 고갈되어 갈 때쯤, 이 모습을 보던 다른 선배가 답답한지 ‘1513이라도 해봐~!’ 하고 외쳐서 학과 사무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된 일도 있었다.

그만큼 편안하고 가까운 곳이 아닐까.

길다 하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을 우리의 4년.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새내기 1학년 때부터, 취업준비를 하고 사회에 발을 뻗는 졸업반까지 우리의 동지가 되어주는 1513이 정겹다.

12. 진서연 [05]

나의 대학 시절 이야기

살다보면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어느 시절이든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늘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들과의 만남이 설렘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고 즐겁기도 하며, 감동을 가져오기도 한다. 2007년 봄, 나는 07학번 동생들과 함께 신입생과 다름없게 새로운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산을 끼고 길게 터를 잡고 있는 몇몇 건물들과 눈이 오면 친구에게 큰 웃음을 줄 수 있는 미끄럼 기능 겸비 경사진 어문관 건물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다.

‘처음’이란 것은 사람마다 제 각기 그들에게 있어 의미 있는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곤 한다. 처음 사귀 친구 역시 그렇다. 이현이와 내가 가장 먼저 알게 된 학과 친구는 성민이와 명섭오빠, 종력이었다. 그들은 유쾌했으며 친절했고 편안했다. 성민이는 미국에서 여행할 때 사온 ‘미쿡껌’이 있다며 자랑스레 한 개 건네 주었다. ‘미쿡껌’, ‘미쿡껌’ 성민이의 아메리칸 발음이 아직도 귀에서 생생하게 맴돈다.

모현 사거리부터 어문관까지의 거리는 2km 남짓. 빠른 걸음으로도 족히 40분 이상은 걸려야 도착할 수 있다. 자연대, 공대, 도서관, 후생복지관, 학생회관, 본관을 지나야만 비로소 어문관과 경상관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교내 뺑차가 있다. 교내 뺑차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정말, “으악!”이다. (뺑차가 수업시간 중엔 무척 드문드문하게 있기 때문에 승차장이나 모현, 그 아래까지 내려 가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수시로 운영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이건 나의 생각처럼 쉽게 시행되지는 않을 듯 하다.)

어느 추운 겨울 날, 재채기를 해가며 눈물 콧물 나게 먹었던 우동이 생각난다. 우리학교에서 자랑할 만한 명물은 '명수당의 오리'와 어문관의 '라면'이라고들 말하지만 난 이상하게 우동이 더 끌린다. 생각만 해도 정말 좋다. 오호호~(동네 주민들이 명수당에서 산책하고 꼬마들과 함께 식당으로 와서 우동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말이다.)

작년 5월에 있는 학술제는 정말 감탄사 “우와~”할 정도로 멋졌다. 특히 원어연극과 민속춤은 절로 신이 나고 웃음이 나게 만들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결실은 참으로 대단했고 공연 속 무대 주인공들은 빛났다. 역할 하나하나가 멋졌다. 이 무렵부터인 것 같다.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KT&G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나는 저소득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를 맡았다. 우리나라엔 힘겹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도 많았다. 내가 지도를 맡은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형제였는데(이들의 아버지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셨는데 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셨다.)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온 두 형제는 소박했고 순수했다. 내가 가정방문을 하는 날이면 시간에 맞춰 지하로 통하는 대문을 문을 열고 기다리기도 했다. 발자국 소리가 나면 “선생님~”하며 낮에도 집안은 어두컴컴해 불을 켜야만 환해지는 지하 단칸방에서 뛰어나오곤 했다.

어느 덧 3학년 2학기로 접어들었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왕산의 가을은 참으로 짧았고 곧 겨울이 다가왔다. 나의 옷은 가디건에서 스웨터, 자켓에서 코트로 바뀌었다. 그렇게 왕산에서

맞는 두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왕산의 겨울은 매우 추웠다. 코트를 껴입고 껴입어도 추위가 가시질 않았으니.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 외대로 편입한 나에겐 남녀공학인 대학 생활은 꽤 매력적이었다. 같이 수업 듣는 것,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 식당에서 같이 식사 하는 모습, 캠퍼스 커플 등등.

지금은 4학년 1학기, 우리 과 조교를 하고 있다. 며칠 전, 학제가 “서연아, 1학년 시청각 시험감독 같이 들어가자” 말에 처음으로 시험 감독을 해보기도 했다. - (동물, 꽃, 물고기, 일 등 많은 단어를 찢릴리자로 외우고 시험봤던 ‘초급 시청각’, 주제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매 수업시간 발표했던 ‘유고문화콘테츠’, 입학이 후 첫 발표수업이었던 ‘유고학 입문’, 언어가 어려워서 더 열심히 수업 들었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언어와 문화’, 세편의 시를 해석하고 20장 넘게 레포트를 썼던 ‘유고현대문학’, 한주에 3개씩 시험이 있어서 매주 긴장했던 ‘세르비아어 읽기’, 노래로 격변화를 외우며 배운 ‘세르비아 기초문법’까지.) - 1시간 남짓한 시험 시간 동안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생각들이 새록새록, 웃음이 났다.

마지막으로 나의 친구들을 소개하면 - 나의 단짝 짝꿍 이현이, 다정다감 자상한 광국오빠, 적성검사 서로 비슷 어여쁜 미령, 시원시원 성격 좋은 지연, 처음부터 많이 챙겨주며 도와준 준석오빠와 영재, 창동 멤버 등하교 함께 구식오빠와 성민이, 착하고 배려심 많은 준형오빠, 재미있는 활발 현아, 마시마로 귀여운 희재, 우린조교 더 친해질 윤영이와 윤주, 친오빠 같이 듬직한 세환 오빠, 과 간부 리더십 겸비 현석오빠와 명섭오빠, 커뮤니케이션학이론 멤버 웃는 모습 매력적 선민이와 재일오빠, 자격증 같이 공부할까 수요일 점심 함께 현식, 기계 잘 다뤄 촬영 잘해

필검오빠, 초롱초롱 애교많은 자현언니, 흥흥~ 귀여운 상훈이,
파마머리가 잘 어울리는 혁재, 예의바른 태도바른 재은, 세르비
아어 잘하는 영은이와 효선, 참한 선규, 센터에서 만나요 금요일
점심멤버 수경이 모두 내게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 이 사람들과 함께라서 나는 오늘도 웃는
다.

13. 조현아 [07]

2008 PTICE 연습 후기

07학번으로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에 들어온 나는 PTICE라는 학회를 듣게 되었다. 평소 노래를 좋아하였던지라 PTICE 학회는 내게 제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학과 공연과 세민전 연습을 앞두고 연습에 양과 횟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한 연유로 나도 모르게 점차 연습 날만 되면 피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을 번번히 하다보니 그 당시 학회장이었던 05학번 선민언니께 적지 않은 미운털이 박혀있었다. 1년이 지나 어느덧 08학번 신입생들이 들어왔고 2학년이 된 나는 열떨



결에 생각지도 않았던 PTICE 학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연습도 자주 빠지고 피부리기 1등이었던 내가 학회장을 맡았을 때 주위 사람들이 모두 염려를 하곤 했다.

11명에 신입생 그리고 예비역 오빠들 5명, 07학번 뿌띠췌 동기들 8명까지... 총 24명에 학회원을 이끌게 되었다.

현지에 있는 곡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곡 선정을 앞둔 그 날까지 Youtube 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살았다. 결국 노래들을 정했고 이제 연습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노래를 선정하고 이제 시작의 반은 왔다고 생각했는데 공연 컨

셈에 맞지 않는 노래를 새로운 곡으로 바꿔야 했고,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노래를 연습해야 했다. 거기에 노래에 맞는 안무까지 내 스스로 창작해 나가야 했다. 이런 어려움을 알았던지 세르비아에서 연수를 하고 계시던 작년 학회장 선민언니께서 현지 노래를 몇 곡 보내주셨다. 구사일생으로 그 곡들 중 한국을 선택하여 남녀 듀엣곡을 정하게 되었다. 역시 현지에서 금방 나온 싱싱한 노래라서 멜로디가 매우 요즘 시대 노래 같았다. 학회원들도 좋아했다. 고심 끝에 공연 노래 2곡 (1학년 신입생들에 발랄한 분위기에 알맞은 댄스곡, Hajde da ludujemo와 예비역오빠들과 함께 할 남녀의 사랑을 속삭인 노래, Samo dvije rijeci) 들을 확정했고, 일주일에 1-2번씩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표가 다들 제각각인지라 시간을 맞추어 연습하는 일은 꽤 어려웠다. 말이 없이 연습에 빠지는 학회원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노래가 사까지 완벽히 습득해 오지 않는 학회원들도 있었다. 그땐 너무 힘들었다. 울고만 싶었다. ‘부메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내가 1학년때 학회를 하면서 피부렸던 것들이 다시 나에게 고대로 돌아 오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선민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구지 말로 표현을 안해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학회원들은 자신이 부를 노래 가사를 완벽히 구사하게 되었고 이제 안무를 짜는 숙제가 남게 되었다.

내가 전문 댄서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다. 그래도 인터넷으로 여러 춤 동영상들을 보며 우리 공연 노래에 어울릴 만한 안무들을 따오기 위해 온종일 영상만 보는 하루가 허다했다. 고심 끝에 안무가 만들어 졌다. 이는 나 혼자만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었다. 학회원들에 기발한 생각들이 합쳐져 다함께 댄스곡과 발라드곡에 안무를 완성해 낸 것이었다. 그 안무를 바탕으로 정말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들은 지쳐갔다. 하지만 학생회와 예비역 오빠들이 사주시는 도시락이 많은 힘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지쳐가면서도 웃는 얼굴로 열심히 연습해주는 1학년 후배들에게 너무 고마웠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적지 않은 나이에 후배들과 열심히 함께 연습해주시는 필검오빠, 재일오빠, 준구오빠, 병두오빠, 해인오빠에게도....

중간에 스승의날 기념 행사로 1학년 친구들과 07학번 뿌띠체가 무대에 올라가서 축하공연도 하게되었다. 그때쯤이면 세크로비전과, 세민전 오디션으로 한창 바쁠 때 였지만 우리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입생들은 발랄함으로 교수님들을 기쁘게 해드렸고, 2학년들은 교수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가곡을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공연을 앞두고 의상준비를 하면서 나와 함께 내 친구들도 적지 않게 고생했다. 직접 디자인을 해 그에 맞는 원단과 부자재들을 따로 따로 구매해서 치수에 맞게 옷을 완성시켰다. 옷을 완성시키기까지 약 3-4번은 동대문에 왔다갔다 했다. 마치 내가 디자인과 학생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모두에 노력 끝에 공연에서 노래를 부를 때 입게 될 멋진 의상까지 완성하게 되었다. 6월 세크로비전 공연을 시작으로, 7월 세민전 오디션까지..... 결과적으로 이번 세민전 공연 진출은 실패했지만

세크로비전 공연에서 너무나 멋진 모습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어 학생들과 교수님의 탄성을 자아내게 해주었다. 연습때보다도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준 08학번 신입생들과 뽀띠제에 기둥과 같은 예비역 오빠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다. 이게 바로 뿌듯함이라는 느낌이란게 공연을 함께 하는 내내 무대 밑에서 내가 느낀 기분이다.

이제 우리는 2008 PTICE 팀에 마지막 임무인 '20주년 기념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 공연이 끝나면 길 것만 같았던 우리들의 1년간의 일정도 끝을 맺게 된다. 2008년 PTICE는 '함께 즐겁게 노래하는 PTICE'라는 모토로 운영되어왔다. 나는 이 모토대로 정말 함께 즐거운 얼굴로 노래할 수 있는 PTICE 학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학회원들도 열심히 따라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무대 위에서의 멋진 공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한없이 부족한 학회장인 내가 2008 PTICE를 이끌 수 있었던건가족 같은 분위기에 학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PTICE 학회 뒤에는 숨은 손길을 준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이제 새로 구성될 2009년 PTICE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한우리 옛추억]

소설 “드리나 江의 다리”에 나타난 다리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고찰

김 지 훈(89)

1. 머리말

역사란 그 이름만큼이나 거창한 것은 못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역사란 것이 항상 옳고 아름다운 것들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도 아닌 듯 하다.

역사란 다름아닌 우리네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땀 냄새 베인 삶 그 자체가 아닌가 싶다. 그것은 술한 영화와 함께 각종 수치스러운 것들이 잠겨 있는 것이며, 올바른 것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정작 현실에서는 언제나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아마 역사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포용하는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인가 보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역사와 그 역사를 만들어준 신(神)의 부조리함에 반항하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이보 안드리치(Ivo Andrić : 1909~1991)의 장편소설 ‘드리나 강의 다리(Na Drini ćuprija)’ 또한 이러한 역사의 특성을, 인간의 삶을 하나의 커다란 석조다리에 빗대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945년 아가씨(Gospodica), 트라브니크 연대기 (Travnička hronika)와 더불어 보스니아 3부작이라 일컬어지며 세상에 나온 이 ‘드리나 강의 다리’는 근 400여년에 걸친 보스니아, 발칸반도 그리고 그곳 민중들의 삶을 담담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는 작품이다. 작자는 드리나강의 한 석조다리를 통해서 역사와 그 위에

놓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소설은 세월의 흘러감을 각종 전설과 민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기구한 삶들로 꾸며 놓았다. 따라서 이 소설의 형식은 우리에게 그리 친숙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소설에서 일직선으로 된 줄거리 파악이나 명확한 한 가지의 인상을 얻어 내기가 무척 힘들다. 여기에서 나는 무슨 논문이나 평론을 쓰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소설, 특히 ‘드리나 강의 다리’에 대한 감상과 그 다리의 의미를 한번 나름대로 조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글의 형식을 논설문과 같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 것은 글의 탄탄한 짜임새와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나는 작가가 드러내려는 역사와 인간의 진정한 의미를 한 번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사 인식의 눈을 ‘드리나 강의 다리’의 관점에서 말해 보도록 하겠다.

나는 이 소설에서 나타난 다리의 상징적 의미를 몇 가지 특징들로 나누어 보겠으며, 그 구체적 모습들 각각에서는 다시 소설에 나타난 내용의 일부를 대비시키며 주제에 접근해 나가 보기로 하겠다. 그렇지만 이런 분류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논거가 있는 것들이기 보다는 주관적 감상에 의존한 어느정도 한계를 지닌 것임을 분명히 해두며 넘어가고 싶다.

소설 ‘드리나 강의 다리’에 나타난 첫번째 다리의 상징적 의미는 바로 역사 그 자체이다. 우선 이 소설의 내용은 구체적 연대표기가 1516년 터키 지배 시절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이르기까지 장장 398년의 긴 여정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연대는 다리의 기원부터 파괴까지 이어지는 다리 자체의 삶, 즉 인간의 역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드리나 강

에 놓여 있는 다리가 상징하는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까.

첫째, 그것은 역사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르비아인 이면서 터키에 끌려간 후에 재상까지 된 ‘메메드 파샤’의 은덕으로 세워지게 된 이 다리는 무려 5년간에 걸친 무수한 노력과 희생 속에서 마침내 튼튼한 돌다리로 태어나게 된다. 그 후에도 다리는 술한 인간의 침략과 홍수 같은 자연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지만 언제나까지나 튼튼히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굳건하고 튼튼하며 영원한 그 실체를 파악해 낼 수 있다.

둘째, 다리로서 상징된 역사는 모든 것을 안아주고 있다. 우리는 흔히 역사란 바르고 아름다운 것들만이 중국에 가서는 승리하는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다리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단연코 거부한다. 그 다리 위에는 그 아래에서 역사적 강물이 흘러감에 따라 온갖 침략과 처형이 줄을 잇고, 갖가지 근심과 죽음이 뛰어 다녔다. 그러나 다리는 무감각하게 보일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다. 저자 이보 안드리치는 그런 것이 바로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역사는 현실 그 자체이며 이러한 역사적 현실은 항상 삶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기원을 암시하는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똑똑한 아들이나 천치인 아들이나 둘 다에게 똑같이 젖을 물려주는 어머니가 바로 역사요 드리나 강의 다리가 아닌가 싶다.

셋째, 다리가 내포하는 역사로서의 의미는 건설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터키 지배시절 이 다리는 세르비아 기층 민중의 괴로웠지만 힘찬 노동으로 건설 되었다. 작품의 맨 마지막에서 다리는 1차 대전의 대가로 가운데가 동강나 버리고 말지만, 소설은

또 다시 고귀한 정신을 지닌 인간들에 의해 다리가 새롭게 세워 지리라는 신념 속에서 끝맺고 있다. 이 다리처럼 역사도 또한 인간의 노동과 삶, 사랑, 죽음을 통한 위대한 건설의 이어짐이라 작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드리나 강의 다리가 역사 자체를 상징 했으며, 그 역사의 주체적 모습은 굳건함과 포용과 건설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두번째로 이 다리가 지닌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연결’이라는 의미를 지닌 상징적 매개체로써의 다리이다. 작품 초반부에서 저자는 강의 왼편에는 세르비아인이 오른편에는 터키인이 살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역사와 인간사에 대한 모든 대립된 이미지를 단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일 게다. 이러한 단절의 역사를 메꾸어 주는 힘이 바로 ‘연결’ 즉, ‘드리나 강의 다리’이다. 그리고 드리나 강의 다리가 세워짐으로써 이 두 소원한 민족간에는 마침내 연결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400여년간 그 연결은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처절한 죽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건강한 인간의 노동에 대한 동경의 의미로 갖가지 색채를 띄며 줄기차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연결’의 의미로써의 다리가 지니는 구체적 모습을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이 연결의 다리는 화합과 공동투쟁의 역사로 나타난다. 평소에는 반목하며 접근하기를 꺼려하던 두 상반된 민족은 그러나 양자가 공통적으로 생존에 위기를 느끼게 될 때에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이 연결의 다리를 통해 하나로 힘을 합쳐 그들의 적과 대응하게 된다. 이 소설의 5장에 나오는 홍수대에 보여준 두 민족의 태도나, 10장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군 점령 시에 나오는 ‘폼니코라’라는 세르비아 교회 목사와 ‘무라 이브라힘’ 이라

는 터키 회교도의 지도자 같은 이들의 태도는 드리나 강의 다리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싸워 나가는 연결의 매개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 다리의 연결이라는 말이 대단히 크고 거창한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도 얼마든지 보여짐을 상징한다. 이 소설의 맨 처음 장에서 작자는 연결의 의미를 이렇게 찾고 있다. 사실 이 연결이라는 말은, 아침에 해가 떠서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어 하루의 일을 마치고, 또 저녁이면 저물어서 하루의 노역에서 떠나 잠을 자고 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정도의 연결과 같은 뜻이다. 바로 이 연결의 다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노동과 휴식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역사적 고통과 진정한 평화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써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다리의 두 가지 성격, 즉 역사적 특성을 지닌 다리와 조화와 연결의 특성을 지닌 다리를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다리가 지닌 인간적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드리나 강의 다리는 소외 받고 쫓겨나 있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초반부에 나오는 ‘라디사브’의 경우는 소외 받는 인간들의 저항과 그 힘을 보여주고, 늙은 행려자 ‘예리시예’와 젊은 ‘미래’의 죽음은 순진하고 평범하고 죄 없는 민중이 역사에 휘말려 들어가 희생되는 비극을 상징하며, 애꾸는 ‘초르칸’은 평화 시 존재하는 기층 민중의 광대 같은 삶을, 그리고 작품의 후반부 ‘아리호자’같은 이의 경우는 진실로 자신의 삶과 다리, 즉 역사를 사랑하고 지켜나가려는 담담하면서도 의지적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다리는 터

키 지배 시절에는 세르비아 인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에는 몰락해가는 회교도들을, 그리고 평화 시에는 천대받는 유태인이나 술집 종업원들을 돈보여 줌으로써 어느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으면서 항상 쫓겨나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다리는 단지 힘없는 인간에 대해 막연한 애정만을 품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로 드리나 강의 다리는 인간의지와 주체성을 상징한다. 그럼으로써 이 다리는 막연한 애정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에 의해 세워지고 인간에 의해 파괴된 다리의 모습에서 힘차게 노동하고 투쟁하고 사랑하며 살아온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며, 또 한 편으로는 드리나 강의 다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 또한 보게 된다. 그 주인이 수도 없이 바뀌고 술한 인간의 영욕이 숨어있는 이 다리는 바로 인간의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 운명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2. 맺음말

위에서 나는 이보 안드리치의 소설 ‘드리나 강의 다리’에서 나타난 다리의 몇가지 상징적 의미들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고찰하여 보았다. 드리나 강의 다리는 역사이며, 그 역사는 모든 대립된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소외된 인간 즉, 바로 우리네 모든 민중이 그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작자는 이 400여년의 긴 여정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이 역사라는 의미가 인간과 동떨어진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에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된다.

물론 혹자는 이 ‘드리나 강의 다리’가 지나치게 포용적이고 추상적이며 약한 성격을 띄게 되어 결국에는 역사의 압제자와 파괴자들의 과실마저도 눈감아 버린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다리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약한 것이 아니다. 1차 대전 시에 파괴가 되버린 다리를 보며 이 소설의 마지막 인물인 ‘아리호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만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느님의 은총을 위해 항구적인 건물을 지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 잘 그리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정신을 지닌 위인과 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그들조차 없어 진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전멸되어 세상에서 아주 자취를 감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칫하면 추상적이고 약한 것으로 변할 수도 있는 ‘드리나 강의 다리’의 역사·인간 정신은 바로 이러한 인간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희망 때문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 사회에서도 드리나 강에 놓여있는 다리는 필요하다. 현 시대상황 아래에서 우리에게선 자신을 새워 줄 만한 역사·인간관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 한쪽 집단은 반대편에 대해 권력 권위를 남발하고, 상실된 도덕성으로 무절제한 자본의 공격을 일삼고 있다. 이런 공격을 당하는 쪽을 그에 대한 무의식적 적개심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무조건적 굴종 등, 제대로 된 역사나 인간관이 부족하여 혼란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이러한 현 사회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사상 때문에, 편협한 제도에 머물러 있으려는 안일한 의식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역사와 인간을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드리나 강의 다리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었으며, 가장 힘없이 보이던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곳이다. 우리들이 말하는 역사라는 것도 아마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 거창하지도, 정의롭지도, 그렇다고 평화롭지도 못했던 우리네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삶에 새삼 경의를 표한다.

저주받은 안뜰(Prokleta Avlija)에 관한 고찰

조 준 래 (88)

I

이야기는 話者인 ‘작자(혹은 ‘나’)'가 신부 ‘Fra Petra’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신부 ‘Fra Petra’는 자신의 한 과거 경험담을 이야기 한다. 과거에 신부 ‘프라페탈’은 다른 수도승 한 명과 함께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여행 도중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스탄불’의 어느 감옥에 투옥된다. 그 감옥의 이름이 바로 ‘저주받은 안뜰’인데, 절대의 요새지로서 이른바 감옥 으로서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좋은 위치를 지니고 있다. 삼면이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일단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죄수들은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았다. 또한 이곳은 별별 종류의 인간들이 다 모여드는 일종의 ‘인간 전시장’같은 곳이다.

또한 감옥의 최고 책임자인 ‘Karadoz’역시 이런 환경과 어울려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긴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그 자신 또한 불량배, 범죄자였으나 후에는 경찰에 투신한 사람 - Fra Petra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었다 - 이었다.

젊은 시절의 범죄 경력 때문에 범죄자들과 죄수들이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이유로 죄수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Fra Petra’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감방에는 čarmil이라는 터키 출신의 청년이 새 죄수로 들어온다. 그는 Smilna 지방 출

신의 청년으로써 아버지는 터키인이었고 어머니는 ‘회랍인’ 여자였다.

이런 독특한 가정환경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복선이 된다.

Čarmil은 말수가 적고 ‘지극히 자기생각에 골몰하는 인상’을 풍기는 청년이었다. 그의 눈빛이나 외모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것이었다. 항상 어떤 생각에 몰두하여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 그러나 그 어떤 생각은 Fra Petra도 전혀 알지 못한다.

Čarmil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 부유한 귀족 집안의 청년이었으나, 터키인과 회랍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느 쪽도 아닌 자신의 위치, 혈통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게 된다. 그런 도중 그는 그런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를 찾게 된다.

그것은 역사공부였다. 그는 특히 ‘터키 왕조사’에 몰두한다. 그리고는 불행한 삶을 보낸 ‘Džem왕자’의 일생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 여기서 ‘Džem’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하자. 왕자 ‘Džem’은 왕이 죽자, 자신의 형과 ‘sultan’의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된다. 그러나 ‘Džem’은 결국 왕위 쟁탈전에서 자신의 형인 ‘Bajazid’에게 패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그는 급히 적국인 ‘그리스’로 피신한다.

그러나 그리스와 여타 터키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아라들이 터키와의 정치적 협상에 왕자 ‘Džem’을 공공연히 이용하게 된다.

이제 ‘Džem’은 세상에서 자신의 고향과 인간으로서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 즉 그는 이른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이방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조국도, 연고지도 상실해 버린, 자신의 뿌리(Koreni)를 상실해 버린 사람이 되버린 것이었다. 그는 결국 타국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운명하게 된다.

이러한 ‘Džem’왕자의 불행한 일대기를 청년 Čarmil은 깊이 동감하고 마침내는 Džem과 자신을 동일시 시키기에 이른다.

그러나 몇몇 비열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빌미 삼아 당시의 정치적 사건 - 왕을 포함한 사건에 민감해져 있는 정부에 그를 밀고하기에 이른다. 그런 단순한 이유로 청년 Čarmil은 감옥에 투옥당한 것이고 죽임을 당한다.

II

따지고 보면 매우 단순한 줄거리이다.

그렇지만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점점 난해함에 빠지게 된다.

Andrić의 다른 작품들(Na Drini ćupija, Put Alije đerđeleza)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중심되는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ndrić의 작품의 제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립되는 두 개의 사건, 사람, 사물 혹은 이것들을 나누는 경계.

둘째는 이 대립되는 두 가지 것들 간의 충돌과 갈등.

셋째로는 이들의 화해, 조화, 연결이다.

이 소설의 경우를 이제 적용시켜 보면 어느정도 타당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청년 Čarmil의 가정환경(터키인 아버지와 희랍인 어머니) - 특히 Andrić는 ‘동양적인 요소’와 ‘서양적인 요소’간의 충돌과 투쟁을 즐겨 사용한다. - Ex) Travnička Hronika에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사관과 터키 영

사관이 트라브니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으키는 갈등과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혹은 이슬람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간의 갈등, 투쟁을 표현하기도 한다. - Ex)소설 ‘드리나강의 다리’에서는 드리나 강을 경계로 나뉘지는 두 개의 마을이 나오는데 한 쪽은 기독교(Provostavni)인들의 마을이고 다른 한 쪽은 이슬람 교도들의 마을이었다. ‘드리나강의 다리’에서는 이 두 마을이 대립되는 투쟁물로서 표현되어 이것을 연결 시켜주는 매개체로서 ‘most’를 사용한다. 이 소설 이후 ‘다리(most)’라는 상징은 그의 작품에서는 ‘연결’의 매체로 이해되며 사건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쓰이게 된다. (소설 ‘Most na žepi’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자신의 불분명하고 모호한 위치로서의 인간 갈등

셋째: 이 경우가 제일 특징적이다. 다른 작품에서는 ‘다리’라는 ‘연결’과 ‘화해’의 상징물이 등장하지만, 이 작품의 겨우에는 그런 요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굳이 찾아낸다면 그 해결의 매개체는 ‘저주 받은 안뜰 전체’라고 해야 하겠다.

이 ‘안뜰’은 마치 자동적인 신진대사를 하는 유기체처럼 하나의 무대로서뿐만 아니라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다음은 주인공에 관한 문제이다. 화자인 ‘나’는 ‘프로페탈’에 관해 말하고 또 ‘프로페탈’은 ‘청년 차밀’에 관해 말하고, 또 ‘차밀’은 왕자 ‘젼’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이중 주인공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안뜰’ 자체인가, 혹은 ‘안뜰’이라는 하나의 작은 사회의 우두머리인 ‘Karadoz’인가?

모두 다 주인공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의 주제와 연관지어

고려해볼 때 주인공은 ‘차밀, 켄’이라고 해야겠다. Andrić는 항상 비범하고 특출한 주인공을 내세워 ‘전 인간적인(opšteljudski) 공통적인 불행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 ‘Alija derzeleza’는 터키 전사로서 용감하고 비범한 인물이다. 그러나 바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특징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 흔히 Kraljević Marko에 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된다. 즉 이 이야기는 단지 Čarmil과 Džem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영원한 인간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특이한 것은 형식상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불변성, 인간사에 대한 자연의 무관심’이 은연중에 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Ex) ‘프라페탈의 죽음’과 ‘시계 소리들’, ‘드리나강의 다리’와 ‘마을 주민들’...

III

Andrić는 이 소설에서 새로운 타입의 소설을 시도하고 있으며 후기 모더니즘의 대가답게 표현주의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인물을 나타내는데 있어 Method的 요소 (詩에서의 Method와 같은 것)로써 인물의 心理상태를 표현하는 점은 마치 ‘정묘화 화가들의 그림’을 보는 듯 하다.

Andrić 또한 소설의 구성에 있어서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소설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1. Proteza (正) ⇔ 1.
2. Antiteza (反) ⇔ 2. Granska kanflszt
3. Sintenza (합) ⇔ 3. Spojenost

문학사에 있어서 Andrić는 후기 모더니스트(특히 표현주의자)에 속한다. 후기 모더니즘은 1914년과 1938년의 양차대전 사이에 나타났던 예술사조였으며 유고슬라비아 역시 이런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후기 모더니즘은 19세기 말에 출현했던 모더니즘('상징주의, 인상주의, 데카당스'의 총칭)의 더욱 더 심화된 형태였다. 모더니즘 이전의 사실주의 적(Dealistic)인 요소도 어느정도는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미래를 제시하려는 진보적인 예술운동이었다.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고슬라비아 내에서도 '미래주의', '입체주의(큐비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이 나타났고, 정치적인 조류로써 '공산주의 선도의 문학' (흔히 '사회문학'이라고 부름)이 대두되었다.

Andrić는 이중 표현주의 작가의 대열에 서서 이전의 모더니즘 작가들(-그들을 주로 전통에 반박하고 이전의 역사를 내팽개쳐 버렸다.)과는 달리 과거와 현대적인 것들, 그리고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그런 점에서 보다 진보적인 작가라 할 수 있다. 또 그는 유고슬라비아 (특히 세르비아 문학에서의)문학의 산문(proza)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Vuk Karadžić로 부터 시작된 '산문언어'(jezik uprozi), 그리고 Jovan Sterija Popović의 최초의 사회소설, 그리고 Jakov Ignjatović의 리얼리즘 소설과 Svetozar Marković의 사회주의 사상은 유고문

학 내에서 산문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과거 독일문학 중심의 외래문학 수용에서 벗어나 ‘사실주의 시대’에는 당시의 큰 맥이었던 ‘러시아 문학’을 수용하기도 했다. - 그런 이유로 ‘뚜르게네프’, ‘톨스토이’, ‘고골리’의 작품과 비슷한 성질을 띤 작품이 나오기도 한다. 이후 ‘모더니즘’시대에는 유럽 - 특히 ‘서구’ - 프랑스 문학에 눈을 돌려 문학에 있어서 서구 여타 나라와 비견될만한 여러가지 업적이 남게 되었다.

Andrić는 이후 문학의 신세대(그 중에는 유명한 Miloš Crnjanski, Miroslav Krleža가 있다.)의 선봉장이 되어 유고슬라비아 현대문학을 세계문학의 수준으로 구축함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유고슬라비아를 다녀와서...

안 형 태 (90)

유럽의 밤은 일찍 찾아왔다.

초저녁 스위스 쥐리히 역은 각 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분주했고, 유럽의 어느 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을 누구보다도 아끼는 걸인들이 술에 취해 이리저리 쏘리고 있었다.

난 베오그라드 行 열차표를 받아 들고는 ‘드디어 동유럽으로 입성하는구나’ 하는 감격에 빠져선 기차 시간이 다하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안 남은 스위스 돈으로 베오그라드에 전화했다. 마침 교수님 부인에게서 계셨는데 첫 마디 말이 “Nedeljko”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난 나의 여정을 잠시동안 설명해쏘 내일 Beograd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었다.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베오그라드 행 기차에 올라탔다. 유럽 기차는 한국기차와는 달리 기관차 하나에 서로 국적이 다른 기차 차량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오르기 전 정확히 보고 타야 했다. 그래서인지 벌써 여기저기서 서유럽 사람들 보다는 어딘가 색다른 (쉽게 말해 Deretic 교수님을 닮은) 유고인들과 많이 듣던 유고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난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다. 콤팩트먼트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난 벌써 와 앉아있는 유고인들에게 “Dobar dan”으로 인사했다. 그들은 나를 신기하게 여겼다. 동양인이 유고어를 하는 것이 이미 그들과 나 사이에 마음의 문을 열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내가 대학에서 유고어를 배운다는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그들은 나를 외국어에 능통한 천재라고 생각했다. 나도 물론 잘했지만(?) 오래간만에 한국사람을 만난 것

처럼 너무도 기빠 이 말 저 말 닥치는 대로 지껄여댔다. 그들과 나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정말 신나게 퍼 마셨다. 벌써 그들은 내 배낭만한 크기의 가방에 초콜릿이며 과자며 빵이며 유고제 맥주가 가득하게 있었기 때문에 난 아무 부담없이 먹을 걸 축내주었다. 또 난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매우 신기해 했다. 결국 끝에 가서는 그들에게 한국식 이름을 지어 주었다. ‘철수와 민수’가 그것인데 철수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계속 ‘쫄수’라고 발음하는 것이었다. 하여튼 유고인들은 서유럽인들에 비해 정이 많은 사람들 같았다.

유고 국경에 이르렀다.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이어서 골아 떨어져 있는데 빨간 배레모에 기관총을 든 국경 수비대가 올라와 패스포드 컨츄럴을 했다. 나를 유심히 쳐다보고는 “Dobro došli”라고 말하더니 냉큼 여권에다 국경인 ‘Jesenice’라는 스탬프를 팡 찍어주었다. 난 점점 불안해졌다. 민간인 여행객 자격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들어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난 그때 칼로 스탬프를 지우려고 애쓰기까지 했다. 오히려 지워졌으면 유고에서 나갈 때 밀입국자라고 몰려 너근히 경찰서에서 하루 밤 신제 질 뻔 했다. 동유럽에의 입성은 이렇게 긴장감과 초조함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금 내 여권을 펴보면 체코, 폴란드, 헝가리에서 발급해 준 VISA를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다. 동유럽! 그곳은 오히려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아침 8시경 나는 Zagreb 에 도착했다. (일단 유레일 패스는 유고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난 구경에서 Jesenice - Zagreb까지의 표를 샀다. 국경에서 사는 표는 바가지 요금이므로 Beograd까지는 Zagreb에서 사기로 하고 Zagreb에서 내렸다.)

좀 추운 날씨였다. 노란 색칠을 한 중앙역이 인상적이었다. 요기를 할까 해서 맥도널드에 갔다.

Date신청을 하고 싶을 정도로 예쁜 아가씨들이 눈이 뜨기기도 전에 가슴에 와 닿았다. 난 유고에서 돈 관리에 대해 무척 신경이 갔다. 왜냐하면, 유고에서 지갑보단 돈가방을 들고 다녀야 할 정도로 돈의 부피가 컸다. 뭘 한번 사도 두 손에 가득히 잡히는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난 우선 Zagreb대학을 향했다. 책을 사기 위해서였다. 사고 싶은 책은 너무도 많은데 가격도 문제이거니와 제목조차 이해하기 힘들었다. 종업원의 어드바이스로 몇 권을 산 뒤 사전 파트로 가 보았다. 씨익 미소 짓는 나의 모습, 거기엔 모두 우리 과에서 학우들이 사용하는 그것들뿐이었다. 솔직히 한국에서 공부할 때 사전 사용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 여기까지 왔는데 다 그것이 그거였다. (학우들! 힘내세요)

훨씬 무거워진 배낭을 짊어지고 자그랩의 쥐구멍까지 찾아 다녔다. 몹시 피곤했다.

난 베오그라드 행 열차 시각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중앙역으로 돌아와 쌓인 피로도 풀 겸 또 친애하는 학우들에게 편지를 썼다. 몹시 지친 몸이라 글의 내용도 학우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불성실했던 것 같았다.

역에서의 두 시간, 쓰리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날 계속 주시했고 틈만 나면 흠쳐갈 기세였다. 그래서 난 동양인이라는 일반적인 서양인들의 관념에 따라 그들을 겁 주려고 태권도의 기본 폼이나 비디오에서 많이 본 쿵후의 날쌔운 동작을 의식적으로 흘렸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성공했다. 또 이런 일도 있긴 있었다.

Dubrovnik로 가는 열차 안에서 유고어린이들이 자꾸 성룡 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 애들은 마치 성룡을 무술의 대명사인 듯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성룡했고 꼬마들은 마냥 좋아했다. 덕분에 어느 한 아이에게서 마케도니아어 그림책과 소설책을 얻을 수 있었다.

Beograd엔 저녁에 도착했다. 벌써 난 키릴 문자권에 들어온 것을 너저분한 벽보들을 보며 깨달았다. 교수님 부인에게서 마중 나오셨다. 이윽고 티코 만한 택시에 올라와선 신시가지로 향하고 있었다. 아파트촌 사이를 뚫고 도착한 곳은 강을 끼고 지어진 3층 아파트 건물 거기가 Deretic교수님 댁이었다. 교수님 딸 Irina가 물론 따뜻하게 반겨주었고 더불어 그녀의 친구들과도 인사를 했다. 잠시 우리는 유고어를 주고 받다가는 금세 영어로 돌변하게 되었다. 왜냐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이다. 자세한 한반도 통일문제, 유고 국내문제는 쉽사리 유고어로는 불가능 했었다. 얼마 후 말보루 담배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친구들은 가고 난 교수님 서재에서 Irina와 여담을 조금 더 나눈 후 함께 잠이 들었다(!?!)

Irina는 내가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녀의 식구들과 더불어 경주 등지를 여행하면서 한국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그녀의 친구 Ivana를 내가 베오그라드 체류기간 동안의 가이드로 붙여 주는 등 법석 떨었고 친구들 앞에선 한국제 옷을 칭찬해 보이기까지 했다. 한편 그때 교수님 부인에게선 한국의 '88라이트'는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순한 담배라며 연신 피어대셨다. 그렇게 나는 베오그라드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칼레메그단은 물론 베오그라드大 총장실에까지 들어가 환담을 나누었다.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디스코텍에 까지 길고 긴 하루였다. 나

는 구경거리였다. 어디를 가나 나를 주시하였고, 웃어주었다. 난 그때 ‘야관’야관’하는 아이들의 놀림을 정말 참을 수 없었다. 난 엄연히 ‘꼬레야’이건만 모두 ‘야관’이었다. 이제 우리도 깨어 공부한다면 유고에 아니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는 선진국임을 자부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디스코텍은 나의 독무대였다.

몸짓은 친해질 수 있는 비결이기라도 된 듯이 금새 유고의 젊은이 사이에서 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도나우 강을 거닐며 친구들과 얘기하고 뉴스를 보며 토의 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나갔다. 난 트롤리 버스에 몸을 실고 그들과 석별에 정을 나눈 뒤 더 무거워진 배낭을 메고 Irina와 마지막 키스를 나눈 뒤 Dubrovnik를 향했다.

베오그라드에서 몇 일 동안은 나의 기억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멋진 추억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하늘을 닮은 아이에게

김 지 향 (88)

아이야,

별이 똑똑 떨어져 내릴 듯한 예쁜 겨울 밤이다.

찬 바람이 불을 스치고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과연 겨울이라 해도 좋을 듯싶구나. 들에 핀 이름 모를 들꽃 보다는 더 순수하고 그리고, 유난히 파란 하늘을 좋아했던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늘 저편으로부터 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구나.

아이야,

겨울 날 별을 바라보며 걸을라치면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난로 옆에 서서 먼 산을 그냥 바라볼 수 있으면 좋고, 창이 있어 산이라도 보이는 공간이 있으면 어디든지 앉아서 한 잔의 보리차를 마실 여유가 생겼으면 싶은 그런 작은 바람이 든다.

아이야,

현재의 생활에 충실하며 살아 가련다.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내일이 또한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지. 인생이란 슬픈 꿈에 비유되어서도 안되며, 시찌프스의 신화처럼 허망함에 비유되어선 안 되는, 끊임없이 공전하는 진실임을 깨달으련다.

아이야,

행복을 느낄 때는 마음이 포근해지고 주위를 둘러 볼 여유가 생기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앞서감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경직되고 바빠지는 차갑고 바쁜 생활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情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

지.

아이야,

메마른 가지위에선가 산새가 날아와 한 나절 지저귀더니 매서운 바람에 쫓기어 파란 하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어두운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또 그렇게 방황하며 돌아오지 못할 산새를 생각하면 그렇게도 아픈 마음이 별빛이 되어 쏟아져 내리는구나. 별빛도 사라진지 오랜데, 난 어디로 그 산새를 찾아 나서야 하는거니?

아이야,

문득 단정한 복장의 활기찬 샐러리맨 보다는 언 손을 호호 불며 신문 한 뭉치를 끼고 버스에 오르는 소년의 슬픈 눈을, 엄마의 품에서 해맑게 웃어대는 아이의 웃음보다는, 밤 늦게야 빨간 볼을 비벼대며 거친 숨소리를 내며 들어오는 엄마의 긴 그림자를 기다리는 꼬마의 기침 섞인 숨소리를 사랑하던 너의 그 순수함이 그리워지는구나.....

아이야,

열손가락을 펴들고 하늘을 향해 해맑게 웃어대던 넌, 꼬옥 하늘이 되겠다며 미소 짓던 넌, 지금쯤 구름 저편 어디에선가 나를 향해 웃음을 던져주고 있겠지. 그런 이유로 난 언제까지라도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듯싶구나.

일천구백팔십팔년 십일월 어느날.....

모모 이야기 -영원한 삶 속의 우리-

백 중 필 (88)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랑의 이야기만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석기시대도 아닙니다. 철기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숨겨져 있었던 시대이었나 봅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사랑만이 가득했었고 미움과 증오가 없었던 아름다운 시대였습니다.

모모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모의 나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고 있었으니깐요. 모모는 사랑을 줄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증이라는 사랑이 아닌 가장 인간다웠던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조금은 어렵고도 쉬웠던 그런 사랑이었지요. 모모는 사랑을 맹목으로 알았습니다. 아직도 사랑의 대상이 이 세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모는 사랑을 줄줄 아는 사람이었으나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아낌없는 사랑을 베푼 후에 새벽 별이 질 때까지 잠 못 이루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했습니다.

기다림으로 허물어 가는 모모의 마음은, 서럽도록 아파오는 우리들의 뒷모습이었는데도 모릅니다. 사랑은 기다림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독선 속에서 시행착오로 점철된 과오의 아픔을 모모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대가 다른 우리의 모순이

모모를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쉬워함과 그리워함을 모모의 얼굴빛에서 찾아보는 목시록의 깨알 같은 글씨들....

낮은 바람이 불 때면 모모는 발판 끝의 플라타너스를 생각합니다.

깨끗이 서있는 플라타너스의 모습은, 우연한 해후를 기다리는 그의 그림자였던가 봅니다.

을씨년한 바람결이 플라타너스의 가지를 스치고 모모의 발 앞에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든 모모는 먼 여행을 생각해 냅니다.

사랑을 찾아봐야겠다는 강박관념이었을까요?

세상의 어느 구석에선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또 하나의 행복을 찾아 모모는 동굴을 나서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모모의 존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기억까지도, 벌써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쇠의 감옥병에 한장 한장 찢어 붙여가던 모모의 일기장은 어느덧 역사의 뒷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죽어가고, 모모의 사랑이 철학에 빗대어져 죽어가고, 사랑의 기억 또한 운명이라는 이름 앞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모는 거울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옛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영원의 빈 손짓만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勞와 喜

김 철 민 (88)

어느 짙어가는 가을 오후에 학교 한 구석에서는 떠들썩한 소리에 맞추어 무리들이 모여 들고 있었다. 그리고 맞은 편에는 ‘원어가요제’ 라는 플랜카드가 바람소리에 맞추려는 듯 날카롭게 짚어대고 있었다. 한 구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으려는 듯, 서로의 표정을 지켜보면서 걷고 있었다. 무대 뒤의 또 다른 무대에서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가지각색으로 초조함을 달래는 무리가 보였고..... 우리의 순서는 세번째였다. 두번째 무대에 오른 영어과 학생의 노래의 뜻을 파악해 보기도 전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소리가 speaker를 통해 들려왔다. 동료 女학우가 피아노에 자리를 잡자, 사회자는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네번째로 나오게 된 주문은 우리과에 대한 인사말과 우리과의 자랑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우선 ‘Dobar dan’이라는 인사말에, 우리과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두서없이 쏟아내었다. 이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고, 짧은 시간 속에 박수를 뒤로하고, 무대 뒤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무대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벤치 위에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이 가요제를 위해 준비해 온 지난 한 달을 회상해 보았다. 30명밖에 안되는 과에서 이번 가요제를 위해 8명이 지원하였다. 우리들은 자료의 부족과 서로의 의견충돌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 속에서 1주일을 허비했고, 겨우겨우 구한 노래집에서 우리가 부를 곡을 뽑는 데는 약 1주일을 허비해야 했다. 한국 한국 곡 피아노로 쳐보고, 화음을 맞추어 보면서.....

이제는 시작해도 되겠지 생각하면 노래 강당의 부족으로 인한 수고로움이 몰려왔고 겨우 구했다 싶으면 힘있는 과의 無言의 압력에 굴복하기도 했었다. 하루에 한 시간씩, 한 시간정도 노래 부르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 나는게 배고픔 이었고,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면 피곤함과 목아픔에 시달려야 했다. 신설학과였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 이였기 때문에 他과보다 더 힘든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우리는 그래도 어느과보다도 단합이 단합이 잘 되었다.

연습때면 언제나 노래를 부르지 않는 친구들도 와서 격려해주었고 때론 우리가 화음이 잘 안맞을 때면 지적도 해 주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걱정해 주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간의 믿음을 형성하게 되었다. 관람석에 와보니 과회장과 Radenkovic교수님, 조교님, 그리고 대부분의 과 친구들이 우리를 맞아 수고를 위로해 주었다. 어느덧 13Team의 노래가 끝나고 초대가수의 노래에 대한 답례의 박수를 끝으로 심사발표순서가 되었다. 사회자는 우리를 사뭇 긴장시키고 나서 동상발표차례가 되자 우리과의 과명을 외치며 우리를 불러내었다. 학교 한 구석을 나오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확신을 얻게 되었고, 과원들의 격려와 정성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늦가을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이 우리의 기쁨을 이해 하는듯 회오리를 만들며 한 구석 너머로 올라가고 있었다.

사랑의 기술 II

이 태 훈 (91)

사랑, 말만 들어보아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

숨사탕 위를 걷는 것 같은 폭신한 마음으로 모든걸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일 것이다.

하지만 설레는 가슴만 간직하는 것을 神은 용납할 수 없는 모양이다. 때론 손때 묻은 장난감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이 글을 쓰고자 할 때 무척이나 망설였다. 제목처럼 멋진 사랑에 대한 기술이나 방법 또는 묘약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없어서만은 아니었다. 나 자신이 사랑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미완성된 사랑의 자아를 비춰줄 거울을 제대로 닦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단지 사랑이라는 느낌을 영원히 간직하고픈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알고 있어야 될 무언가를 적고자 했다.

어느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느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꿈 많은 사춘기 시절의 이성애에 대한 사랑,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학문에 대한 사랑 등 사랑은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힘이 아닌가 한다.

사랑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세상은 좀더 재미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느낌 그 자체이며 사랑은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삶이라는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우리는 피천득의 수필 『인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고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이 글이 다른 어떤 글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사랑에 대한 호기심 sow는 갈망 또는 동경이 아니었을까? 이 글에 나오는 저자 즉 주인공은 아사꼬와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었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다.” 저자는 못 만나는 사랑보다 안 만나는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로맨티스트였다.

물론 혹자들은 이 말에 반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사랑은 대상을 가까이 접하여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싹을 피워 나간다.”는 일반적인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랑에는 논리가 필요치 않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무슨 논리가 필요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떠한 논증이 필요하겠는가?

사랑에는 정해진 틀이 없으며 또한 학문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이것은 사랑을 소유하지는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름 위에 비친 무지개를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과 똑 같은 꼴이다.

한편,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이성간의 사랑에는 서로가 고통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미움의 감정까지 나뉘어져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은 것이지만 그 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극에서 극으로 옮겨가기 쉽게 만들어진 때문일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에 실패하기 직전의 상태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잠시나마 떠나 보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있는 동안은 그의 육체에 혼란스러워 영혼을 알아 보지 못한다.

또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지 말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랑은 당신 곁을 떠나버리고 영원한 구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는 이미 당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을 확신해라.

사랑을 확인하려 들지 말며 사랑을 시험대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당신의 가슴이 따뜻하다면 사랑은 이미 당신 가슴속에 퍼져 있는 것이다.

요즈음은 혼한 것이 사랑이요, 또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것 같다. 예부터 중국인들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철학하고 있었다.

‘하나는 하나이고 하나가 아닌 것도 하나이다.’ 이 말을 새겨보며 잃어가는 사랑을 찾기 위해 견고한 사랑의 화살을 준비해야겠다.

오늘 따라 더욱 더 사람들이 푸른 하늘처럼 맑아 보인다.

로켓트를 찾아서

민 병 일 (91)

1호선은 아침에 타든 저녁에 타든, 의정부 행이든 인천행이든 간에 언제 타 보아도 만원이다. 회사원처럼 보이는 양복차림의 사내, 책을 가슴에 안은 예쁜 다리의 아가씨, 단돈 천원을 목청껏 외치고 있는 셀러리맨, 전철은 이 시대 인간 군상들을 모두 전시해 놓은 늙은 박물관 같다. 모두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 모두 저마다 다른 생각과 다른 꿈들을 가지고 있겠지.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겠고, 변호사를 꿈꾸며 학교 도서관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밀린 집세를 혹은 자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까운 친척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하여튼 창문 사이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누가 보아도 시원하리만큼 눈부시다. 내가 한창 녀을 놓고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 스피커에선 어느새

부천역을 알리고 있었다. 딸꾹질하듯 몇 번 덜컥거리던 전철이 몇자마자 아귀다툼을 하듯 한떼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왔다. 나는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양팔을 모두 들어 손잡이 두개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내 옆구리를 비집고는 한 너댓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가슴에 안은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다. 나는 기분 나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 노려 보았다.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야쿠르트 병 하나. 꼬마아이는 거의 다 비워진 야쿠르트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아이의 까만 눈동자 속으로, 성애 낀 창문처럼 점점 희미해져 가는 나의 어린 시절이 보이는

듯 했다. 부산에서 살았던 마당 넓은 집이며 하늘을 뒤덮던 늙은 감나무, 그리고 파란색 세발 자전거와 뒤뜰, 뒷동산...

내가 다섯 살 때인가 여섯 살 때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즈음에 한동안 야쿠르트병에 미쳐 있었다. 아니 미쳐 있었다는 표현보다는 내 정열을 다 쏟았다는 표현이 적당하겠다. 그 당시 부모님들이나 누나들이 알았었다며 비웃었을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그 야쿠르트병 하나가 내 삶이었으며 꿈이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나도 웃음이 나온다. 그때 나는 야쿠르트병으로 로켓트를 만들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매일매일 배달되어오는 야쿠르트는 나의 중요한 실험 자재였고, 가끔 어머니께서 빨래를 널러고 나오시는 것 외에는 거의 출입이 없는 뒤뜰은 나의 은밀한 실험장소였다. 스케치북에다 크레파스로 설계도까지 그려가면서 구상을 하던 어느 날 드디어 계획은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로켓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물론 야쿠르트 병을 포함해서 성냥,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스케치북 구석을 찢어서 그린 태극기가 전부였다. 나는 일단 야쿠르트병을 세워 놓고 성냥개비 열 개 정도를 밑부분에다가 스카치테이프로 빙~ 돌려가며 붙이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성냥머리가 땅바닥을 향하도록 해서 붙이는 것이었다. 추진기니깐. 일단 성냥개비를 다 붙이고 나자 그럴 듯 했다. 이제 태극기를 옆면에다 붙이기만 하면 완성이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승무원이 업었다. 누굴 태울까? 솔직히 내가 타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로켓트가 너무 작았다. 한참을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찾아낸 승무원은 재미였다. 아니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재미는 이미 로켓트에 타고 있었다.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성냥개

비 하나를 꺼내어 옆면에 그었다. 불이 붙었다. 이제 점화만 하면 된다. 기쁨과 긴장이 교차하면서 등줄기에선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셋에 붙이는 거야. 그러면 굉장한 소리를 내며 나의 로켓트는 저 하늘 너머로 날아가겠지.’ 나는 엄숙하게 카운트다운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두울..... 셋!

....

뒷일은 생략하는 편이 낫겠다. 그때의 실패로 인하여 어린 마음에 며칠 동안은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다. 그러다가 곧 유치원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잊어 버리고, 이제는 벌써 대학생이라니. 문득 웃음이 나온다. 어린 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흐뭇해 하는 그런 평범한 웃음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지만,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위해서 대학에 왔는가,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수많은 꿈들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하는 자기회의에서 비롯된 쓴웃음 또한 부정할 순 없으리라.

작년 이맘 때 쯤에는 ‘번개에 머리를 맞아 천재가 된다면’ 또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대학생이 되어 있다면’ 등의 막연한 생각들을 하면서 현실에서의 무조건적인 도피를 꿈꾸기도 했었다. 그 당시 썼던 일기장의 내용을 억지로 떠올려 보면 대강 이렇다.

“목욕물에 비누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들성들성 떠 있던 구름 조각들이 이내 스르르 녹아 버렸다.

바라 볼수록 깊어 보이는 하늘

바라 볼수록 짙어 보이는 푸르름

세상엔 가을이 왔나 보다.

빼앗긴 청춘에도 가을은 오는가?

.....교실에 붙여놓은 학력고사 달력이 한 장씩 뜯겨질 때마다 역지로 움켜지고 있는 자신감도 덩달아 한 겹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어디까지 끌려가야 하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나를 슬프게 한다.”

그 당시에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책가방의 무게 속에서 한 움큼의 자유조차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찌들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절에도 틈틈이 책을 읽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있었다고 기억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가? 그렇게 갈구하던 한 움큼의 자유, 아니 감당 못할 만큼의 엄청난 자유가 내 앞에 있는데도 나는 무얼하고 있는가? 대답할 수가 없다.

문득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내가 얻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책에서 얻는 진리 보다는 포르노에서 느끼는 쾌감을, 순수한 인간관계보다는 계산적 인간관계를, 나만의 아픔보다는 내 자신의 안락을, 국산 카세트 보다는 초미니 일제 카세트를, 튼튼한 두 다리에 대한 감사 보다는 자가용이 없다는 비교적 열등감을, 어머니의 일주일 반찬 값 보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한끼 식사를 원하고 갈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진 않았나 싶다. 그 엄청난 자유 뒤에서 책은 방 구석에 주저 앉아 있고, 늘어난 용돈 뒤에서 어머니는 김치 찌가리와 찬 밥으로 끼니를 때우시지는 않았는지, 각성의 바늘이 가슴을 찌른다.

“다음 정거장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야쿠르트병을 입에 물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메고 내릴 채비를 하였다. 잠시 후 전철 문이 열리고 나는 서둘러 내렸다. 슬쩍 돌아 본 창문 속으로 아이의 웃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지막하게 외쳤다. “꼬마야! 너는 너의 로켓트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의 그 순수함과 꿈들을 망각하지 말아라, 영원히...”

나는 전철이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꿈을 망각한 시대에 태어난 꿈을 망각한 도시인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결단력이다. 나를 찾을 수 있는 결단력인 것이다.

입구로 통하는 계단 위로 사람들은 올라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 구멍 밑으로 노오란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가방을 움켜쥐고, 그네들과 함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나의 로켓트를 찾아서.

다가오지 않는 삶

김 현 (88)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랐고
누구와의 만남을 가져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채
지금,
이 곳에 서 있는 나에게서

어렴풋이 보일 듯
나로 향했던 삶으로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뒤돌아 보며
좌절의 아쉬움을 맛보아
안타까움 속에서
한계성을 느껴야 했기에

한 걸음 더 나서고 싶었던
젊음의 이상은
부딪치는 현실의 아픔 앞에서
연약하게 무너지며

품어오던 꿈들마저
저버리게 하였는데

가슴에 담을 수 있던 진실이
나만의 것이었고
너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사랑마저 우리에게
나타낼 수조차 없으므로

삶은,
마음을
마음으로 다가가서지 못한 채
이제
그 몸짓을
아쉬움으로 뺏어야 한다.

자책의 기도

이 종 영 (88)

잠든 듯 순결한 수면에 방울이 떨어져
하나의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잔잔한 마음에 눈물이 떨어져
모지지 않은 동그라미를 그리게 하소서.
그 동그라미가 한계에 부딪쳐
산산이 흩어져 다시 평온할 제
내 모든 것을 잊어 버리도록 하소서.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망각의 보석함에 담도록 하소서.
은빛 너울지는 눈 속에 하얗게 누운
에텔바이스처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청순하게 하소서.

굴레

곽 동 현 (89)

외롭다는 것과 혼자 있는 것 둘의 차이는
나의 피
나의 가슴
그리고 나.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사랑 없이는 영겁의 세월 속에 검은 주검
일 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대로.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대로.
시간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도 좋으련만.

울고 싶지만
눈물이 메마르고
바람 한 점 없는 오늘

내 머리카락이 날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혼자이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
고독하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

어느 쪽이 더 슬픈지 모르지만

나는 두 마리 늑대에 찢긴
피 묻은 옷자락 되어
아스팔트 위를 뒹굴면 좋으련만.

나의 끈은 왜 이리 질긴지
두 마리 늑대는 울고만 있을 뿐

고독을 사랑하는지
고독을 증오하는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나의 고독
어쩔 수 없는 나의 굴레

언제쯤 벗어날지
언젠가는 벗어날지

그건 나도 모르지.

무덤 속에 행복.
무덤 속에 불행.

세 월

이 승 미 (92)

24살의 웃기지도 않는 나이
육체와 시간만이
어른으로 만들고
걷지 않았던 길 끝엔
내가 있어
지금도
흐르는 길 위에 서 있을 뿐
밀바닥에 깔린 소녀적 감성은
굳어진 얼굴을 뚫을 수가 없고
언제부턴가
타산적인 사고는
내 뇌를 지배해 버렸다.

맞춤복 보다 기성복을 찾는 이 시대는
똑같은 24살의 여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넌려진 내 모습들은
나를 잊게 하고
난 끊임없이 옷을 입고 있다.

헐린 심장 속의
허영심과
자존심 번진 얼굴 위의

알량한 욕구가
얼룩져
내 안의 또 다른 자아와
하나가 되기까지
허락된 시간들

그러나
그 무엇도 나를 기다려 주진 않는다.

진짜 친구를 사랑하는 법

정 태 동 (88)

1. 서두르지 말 것.
2.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왜 늦었는지 이해하려고 할 것.
3. 친구가 고민할 가치도 없는 것을 고민한다 해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것.
4. 내가 힘들어서 개기기 시작하면 잘하고 있는 친구도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것
5. 나에게 돈이 생겼을 때 친구가 필요한 게 없나 살펴보고 선물할 것
6. 친구가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을 하나 안 하나 잠자코 지켜보면서 그 친구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미워하기 보다는 잘못을 저지른 즉시 부드럽게 지적해주고 서로의 불신을 씻을 것.
7. 내 물건이 소중한 만큼 친구의 물건도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할 것
8.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모든 문제를 털어놓는 것도 좋지 만 진짜 신뢰는 서로 일을 같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김을 알 것.
9. 친구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옳은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할 것
10. 친구가 잘하면 칭찬해 주고 따라 배우며 절대로 질투하지 말 것.
11.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

- 12. 자꾸 귀찮게 할 것
- 13. 사사건건 따질 것
- 14. 배가 고플 때 밥 사줄 것.

유고어과 학우 여러분들
변화와 전진을 창조하는 유고어의
멋쟁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말라 드라마’ 를 끝내고서

허 지 영 (94)

우리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아래서 치뤄지는 말라 드라마의 일정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공연 몇주전이 되도록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형편이었기에 그 걱정과 고민은 계속 더해만 갔었다. 처음 조편성을 했을 때는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과는 달리 시간이 더할수록 실제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의 상상 속에서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의 ‘선녀와 나무꾼’의 멤버들은 일단 한 자리에 모두 모이는 것조차도 어려웠다. 과행사를 빌미로 친분을 더욱 두껍게 해야겠다는 생각아래 규정인원을 초과한 7명을 한조로 만든 것도 무리였지만, 너무나도 각기 다른 개성의 소지자들인 만큼 어렵게 모임날짜를 잡아도 왜 그렇게들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많았든지, 빠진 사람들을 제외 하고라도 잘 해보려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왜 안오냐면서 잘잘못을 따지기에 급급했고 그런 상황이었기에 작품에 관한 의견 수렴은 정말로 어렵기만 했다.

그래도 우리들은 열심히 해 나갔다.

명수당에서, 학회방에서, 강남역 모 커피전문점에서 모자르기 만한 세어 실력으로 어렵고 힘들게 대본을 작성했고 다른 조는 생각도 못했을 M.T까지 다녀오면서 -어느 정도의 어거지가 포함되지만- 조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 와중에 대본분실이라는 대형사고가 터졌고 그때 몇몇 조원들이 공연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의 그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저지르고 볼 일이기에 다같이 행동해야 옳다고 믿었던 나의 기대가 아주 무너져버렸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본은 다시 만들어졌고, 선녀와 나무꾼을 계속 행하여졌다. 최종 리허설 때 불성실한 모습에 교수님께 꾸중도 들었고 조원들간의 계속되는 갈등에 서로들 많이 지쳤지만 연습만은 열심이었다. 공연 며칠 전부터는 모두들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연습을 했고 극중 효과를 위해서 쓰일 소품이나 재료를 구하기 위해 동대문시장을 찾아가며 많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많은 사연들과 우여곡절 끝에 선녀와 나무꾼은 무대에 설 수 있었다. 비록 그 어느 부문에서도 상을 타지 못하고 공연 평가에서도 하위 점수를 받았지만 우리는 만족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 보다는 망토를 안 입은 슈퍼맨이나 뺑뚱기 세례 속의 춤추는 거지 등 뛰어난 볼거리를 보면 그런 이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서로 더 잘 이해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신의가 생겼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치뤘던 말라 드라마의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더욱 깜짝 놀랄 작품으로 최우수 작품상과 더불어 여우주연상까지 본인이 욕심 내고 있음을 밝힌다.

1년을 돌이키며...

안 지 선 (94)

누구나 대학에 처음 들어올 땐 설렘과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겠지만 재수를 한 나는 그 누구보다 원대한 꿈을 안고 그 첫 발을 내딛었다.

차를 타고도 입구에서부터 한참을 들어오는 넓은 캠퍼스, 유난히 추운 곳, 나에게 외대의 첫인상은 이 두가지였다.

그러나 나의 설렘은 추위도 이길 수 있었고, 하루하루를 기쁨에 들떠서 생활했다. 난생 처음 유고사람(외국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전혀 몰랐던 유고슬라비아란 나라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업 시간엔 열심히 Dobar dan, Dovidjenja를 외워서 외국인 교수님을 만나면 오로지 이 두마디로 일관했다. 그리고 과연 데모는 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집회도 몇 번 따라 다녔다. 아직도 잊지 못할 그날의 감동. 어느 봄 나는 쌀 수입개방 반대라는 이름 하에 대규모의 집회가 열린 보라매 공원에 갔다. 나의 힘,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의 힘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 감명 깊게 본 'Power of one'이란 영화를 떠올리며 열심히 구호도 외치고, 보라매 공원에서 여의도 광장까지의 가두시위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난 데모란 것에 대해 아무런 명분도 확신도 없이 하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기에 그만 두었다.

그렇게 몇 번의 집회, 몇 번의 M.T, 두번의 시험 그리고 의미 없는 미팅 몇 번으로 한 학기를 보냈다.

성적은 엉망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한게 없는것 같아서 좀 더 의미있고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 2학기 수직생 신청을 하였다. 2학기부터는 정말로 성실하게 보낼 것을 다짐하며 방학 중 사전 편찬 작업도 열심히 했고, 2학기가 시작되자 전공 공부도, 수직생 일도 열심히 했다.

그러나 형편없는 나는 또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거창하게 삶의 의미를 들먹거리며 방황의 나날을 보낸 것이다. 전공 공부를 안한것은 물론이고, 수직생으로서의 책임도 뒷전인 채 매일매일을 스스로 자학하면서 고통스럽게 보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싶은 게 가을을 탄것도 같고, 사춘기(?)를 겪은 것도 같다.

어쨌든 1년을 돌이켜볼 때,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나의 1학년은 50점이다. (F중에서도 왕F) 후회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 일인걸 후회해서 뭣하리.

사람들은 잘도 떠들어 댄다. 지난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한번 해 볼 작정이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깨끗이 잊을 수야 없겠지만, 후회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 인생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생각이다.

아직은 모자라고 어린 스물한살의 1학년.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시절은 없다는 대학 4년을, 나도 기쁜 마음으로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벌써부터 왕산에는 차디찬 겨울바람이 우리를 움츠리게 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찬바람을 맞으며 또 다른 새내기들이 몰려 올텐데... 기쁘기도 하고 되내기가 되는 것이 슬프기도 하다.

준비학교를 회고하며

이 회 승 (90)

원래 이 글은 후기의 형식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나의 게으름 때문에 회고기가 되어버렸다. 작년 2월에 신입생으로서 맞았던 준비학교를 이제는 선배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 1년이라는 세월을 새삼 느끼게 하고 한편으로는 내 앞을 지나간 나날들만큼, 과연 내가 바라는 것만 많았던 후배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선배로 자랐을까 하는 걱정을 떠올려주기도 한다.

작년 이맘때의 난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준비학교 입소식을 하기까지도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얼떨떨한 기분으로 마치 제 3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마련된 프로그램에 하나씩 참여해가면서 대학생들의 여러가지 단편들을 보고 듣는 것이 즐거워 졌다. 그 당시 내게는 생소했던 민중 가요라든가 혹은 마당극, 또 고등학교와는 판이한 분위기, 선배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새로움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즐거워졌고, 특히 7.5%에 해당하는 내가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경제 원칙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특혜(?)들이 재미를 더해준 것 같다.

낮의 프로그램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이 밤에 과끼리의 모임인데, 우리 과는 90학번의 저조한 출석률을 자랑하며 그리하여 한방에 모두 함께 집결할 수 있는 가축적인 분위기를 과시하고 있었다. 다들 잠잘 생각은 하지않고, 당시 윤락부장이었던 89학번 박 모 선배에 주도하여 다채로운 게임을 즐겼다. 게임의 진

수량 별착에 있는 것인데, 그 중 물먹기에서는 88학번 박 모 선배가 열컵, 그 뒤를 90학번 김 모 군이 질세라 연거푸 여덟컵을 마심으로써 90학번의 잠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나는 다행히 물먹기에는 거의 걸리지 않아서 안도를 하고 있다가 실수를 해서 결국은 체코어과에까지 원정을 가서 재롱을 피우고 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난 그때 참으로 뻔뻔스러웠던 것 같다. 그것이 다 신입생으로서의 무모한 기상덕분이었다면 우스운 변명이 될까?

(신선한 90학번)이라는 명칭을 이제는 91학번들에게 넘겨 줘야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나를 서글프게도 한다. 왜냐하면 1학년이란 때가 대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추억과 아쉬움 속에서 1학년이라는 과거를 놓아 보내고 새로운 선배로서의 자리를 맞으려 한다.

M.T를 다녀와서

김 희 준 (90)

고등학교 시절, 대학선배들이 그리는 몽유도원으로만 익혔던 M.T. 출발 전날 밤 나는 소풍을 하루 앞둔 국민학생마냥 잠을 뒤척였다. 지금껏 미루어왔던 일종의 유희에 대한 기대, 오랜만의 타지로의 여행, 좋은 사람들과의 동행이 날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용문산을 향한 버스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사에 보탬이 될까 돈사업을 하신 모 선배와 90학번 수명. 단백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산나물 백반식사. 남의 것이 우리의 것인 마냥 살아온 나에게 대동놀이는 저 깊어서 솟아오르는 힘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선후배간 친선 축구시합은 시장 끼만 더했고 물론 형님 동생간의 친분을 두텁게 했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미스 유고는 경악 그 자체였다. 윤 아무개등 세기의 미인들은 웬만한 여성을 능가하는 아름다움을 과시했고 여학생들의 질투를 사기에 충분했다. 나의 젊음을 타오르는 장작처럼 불태워 이상에 도달하리라 마음 먹었던 캠프파이어시간 그리고 유고어과가 주(酒)고어과로 소문나게 한 술은 빼놓을 수 없다. 술병을 비우고 술잔을 기울이며 짧은 기간이나마 함께 지내온 동안 느껴온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먼저 생활해본 선배들의 경험담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대학생활을 점쳐보는 귀중한 그 무엇이 되었으리라. 그러나 1박 2일 동안의 M.T에 건 기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는 그 이하였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다. 물론 짧은 이틀 동안의 만남으로 많은 얼굴을 익힐 수 있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유고어과속에서의 나를 생각해 본 값진 경험이었다. 대학을 지성으로 보고 싶었던 나는 마치 M.T가 술과 유흥으로 변색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또 술로서 대화의 장을 마련함은 좋지만 과음으로 인해 이성을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결국 술은 자기자신의 자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식사를 식당에서 먹음으로써 시간을 아끼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사를 어렵게 준비하면서도 하나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침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 일부만이라도 읽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좀 더 나은 M.T가 된다면 두 시간 동안이나 땀흘리며 쓴 글은 성공이라고 본다.

오는 추계 M.T때는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40여명의 신입생을 위해 동분서주하신 선배님 여러분들과 90%가 넘는 참석률을 보인 90새내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Hajdemo Jugosloveni !!!

소주, 맥주, 막걸리 그리고 위스키...

이 상 민 (92)

잠결에 내 귓속을 파고드는 엄마의 아침 기상구호 소리가 가만히 누워있어도 어지러운 나의 머리를 쿵쿵 찌른다. 그리고, 오늘따라 회색 빛 커튼 사이로 눈부시게 새어 비치는 겨울햇살이 더욱 더 나의 잠을 설치게 하는구나. 2년간 해 뜨는 아침이면 꼭 눈을 떠야 한다는 의무감에 가게 집 늙은 할아버지가 뻑뻑한 셔터를 열 듯 눈을 떠본다. 항상 술 먹은 뒤 다음날 아침 아담한 나의 방을 보면 하나의 전위예술 작품을 보는 듯 하다.

책꽂이 상단 모서리에 걸려있는 짝을 찾을 수 없는 흰 양말이라고 말하면 난감할 정도의 양말과 장롱 위에서 하룻밤 7시간 가량을 먼지와 함께 보내야 하는 티셔츠, 반쯤 벗어 무릎에 걸쳐져 있는 청바지와 의자 밑에 깔린 내 잠바....

어슬렁 어슬렁 기어 나와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본다. 오늘은 유난히도 왼쪽 눈이 부었다. 눈알이 많이 충혈된 것을 보니 또 소주를 많이 마신 게 분명하다. 입술도 꽤 많이 부었고 얼굴도 왠지 더 거칠한 것 같다. 그래도 속이 편한걸 보니 안주는 꽤 괜찮았나 보다. 기분을 낼 때는 술 중에 소주가 제일이다. 그러나 소주는 양면성을 지닌 술인 것 같다. 슬플 때는 아무리 안 그런 척 하여도 석 잔이면 얼굴에, 눈에 슬픔이 어리고, 기쁠 때는 아무리 안 그런 척 하여도 입가에 미소가 그윽하다. 왠지 기분이 울적하고 쓸쓸할 때 소주를 마시면 눈에 안약을 떨어트린 듯 눈물이 흐른다. 명백하게 슬픈 이유가 있는 이는 천하를 잃은 듯 눈물을 흘리고 같이 술자리 한 이마저도 어우러져 눈시울

이 뜨거워 진다. 내가 이러한 분위기를 싫어하는 이유인지는 몰라도 술플 땀 소주를 될 수 있으면 피한다. 단지 소주가 아닌 술, 아니 술 광고 마저 피한다. 술은 기쁘고 편한 상태에서 취할 때 술이 가지는 모든 장점이 발휘된다. 서로간의 허물없는 대화도, 씩스럽지 않은 노랫가락도, 결코 슬프지 않은 눈물도, 그리고 헤어짐을 걱정하지 않는 사랑과 우정까지도....어제는 후자 쪽에서 술을 마셔서 그리 기분이 좋았나 보다. 그런데 항상 기분이 좋아서 소주를 자주 마시는 것일까?

샤워를 하고 나니 한결 몸이 가볍다. 오늘은 날씨가 웬지 포근하게 느껴진다. 창문 밖으로 달리는 차들의 엔진 소리마저도 경쾌하게 들린다. 전봇대 한쪽 귀퉁이에 모여 앉아 한 사발의 막걸리로 피로를 잊는 미화원 아저씨들이 보인다. 작년 추석 때 할머니가 빚은 막걸리가 생각이 난다. 노랑다기 보다는 거무락락한 빛깔이 맛깔스럽지는 않지만 입술을 대접에 살짝 대서 혀에 닿기만 하면 바닥이 보일 때까지 입술을 대접에서 땔 수가 없을 정도로 맛이 좋은 막걸리였다. 한 아저씨가 버열건 낮에 땀을 닦으시며 일어나 쓰레기로 가득히 쌓인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로 사라진다. 단지 농도가 짙은 담배 연기만을 내뿜으시며....막걸리는 은근히 술 맛을 돋구는 술이 아닌가 싶다. 술은 제조할 때도 은근히 발효되어 향아리 전체가 익듯이 표면에 소눈갈만한 거품방울과 함께 오랜 시간을 거쳐 비로소 막걸리가 된다. 그래서 막걸리가 우리민족의 은근과 끈기의 민족성을 투영하는 술이 아닌가 싶다. 내가 아는 선배도 막걸리를 좋아하시는데 그 선배 역시 과묵하고 속이 깊으시다. 아마도 속이 깊고 과묵한 사람이 막걸리를 좋아하나 보다. 한참 이렇게 밖을 내다 보고 있을 때 마지막에, 아저씨가 주위를 치우시며 시원하게 트

림을 하신다. 나는 창문을 닫는다. 아는 이는 다 알 것 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휴일인데도 버스 안에는 사람이 꽤 많았다. 엄마 무릎팍에 앉아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부르는 유치원생 꼬마가 너무 귀엽게 보였다. 사람들의 입김으로 뿌옇게 된 차창을 빨간 병어리 장갑을 낀 손으로 닦는 손마저도 고결하게 느껴진다. 버스에 탄 사람들 아니 차창 밖 거리를 바삐 걷는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 걷고 있으리라. 오늘도 역시 도서관은 만원이다. 4절지 도화지만한 책상 둘레로 파일을 붙여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해 저마다의 공부로 열람실은 뜨거웠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뻑뻑하게 쫓혀있던 내 담배갑의 담배도 시간이 흘렀음을 알리듯 듬성듬성 비어있다. 난 조용히 책을 챙겨 도서관을 나왔다. 도서관 정문을 나오면서 코가 확 트임을 느낀다. 어둑어둑해진 하늘이 귀가를 재촉하지만 대학인이라면 한번쯤 쳐다보는 호프집 네온싸인이 날 유혹한다. 본능적으로 헤어진 내 집갑을 펼쳐 꼬깃꼬깃한 천원짜리 지폐를 세어보지만, 오늘은 커다란 맥주잔을 부딪힐 벼이 없다. 할 수 없이 호기심 많은 중학생처럼 그저 쳐다만 보며 호프집을 지나친다. 솔직히 나는 맥주를 잘 못 마신다. 그래서 맥주보다 소주를 더 좋아하는지 모른다. 한잔만 먹으면 낮이 붉어지고, 두 잔이면 취기가 오르고, 석 잔이면 배가 불러 더 이상 끌리지 않는다. 어떤 이에게 맥주를 왜 마시냐고 질문하면 그는 커다란 컵 5분의 1 정도의 거품을 없애려고 마시면 다 마셔버린다고 하고, 어떤 이는 커다란 컵에 가득 차 있는 맥주가 점점 없어져 바닥을 보이는 맛에 먹는다 하며, 어떤 이는 갈증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그날 하루 일과의 체중까지도 위아래로

다 없애주기 때문에 먹는다고 한다. 난 맥주가 가득 들어있는 맥주 컵을 보면 내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하다. 맥주를 컵에 따르면 거품이 넘치도록 부풀다가 꺼지고, 오래 두면 쉽게 김이 빠지듯이 처음의 계획은 끝도 없이 방대하고 거창해도 결국에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이 그 계획은 지나간 헛된 생각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내 자신이 젊기에 많은 양의 맥주를 다 마셔버리는 성취감과 그에 상응하는 시원함을 느끼듯이 나의 포부를 이루고 싶은 것이다. 내 벗도 맥주를 좋아한다. 그런데 너무 좋아해서 귀가할 때면 친구들의 부축을 필요로 한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우리 집 정문의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눌렀다. 12층에서 1층까지 숫자가 하나하나 바뀌어 내려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가끔 허망할 때가 있기도 하다. 현관을 들어 서니깐 동태찌개 냄새가 마루에 그윽하여 내 코 안을 진동한다. 저녁 묵은가? 아이고, 우짤일로 술 안 묵은노.”하는 엄마의 말소리가 청찬 반, 조롱 반으로 들려온다. 대충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다. 이젠 식탁 구석자리에 항상 아버지의 반주로 놓여있던 막걸리잔 대신에 푸른 케일즙이 그득한 컵이 놓여있다.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다. 어렸을 적 술 드시고 온 후에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청춘 시절 무용담도 들을 수 없고 이 세상 최고로 보였던 아버지의 위치가 어느덧 힘들게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가장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막걸리 잔은 찬장 속 깊이 위치하여 잔 속에 먼지만을 채우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 미화원 아저씨의 거창한 트림소리가 생각나는 것일까? 밖에는 한 두대 가량의 차들만이 지나고 엔진소리가 꼬리를 이어 화음을 이룬다. 이처럼 고요한 밤이면 생각나는 것은 길다란 글라스에 담겨진 위스키 한잔.

투명한 갈색 빛의 위스키는 온몸을 휘감는 위력을 지녔다. 내 몸 속의 불을 당기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지녔다. 이렇게 묘하면서 무언가 전율을 느끼게 하는 술에 만취 한다는 것은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윗입술에 살짝 적시어 혀끝으로 느끼며 길다란 글라스에 한번쯤 그녀의 얼굴을 그리는....이것이 바로 이 술의 진 맛이 아닐까 싶다. 소주건, 막걸리건, 맥주건, 위스키건 하영든 술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매개체이며, 자기자신에 빠질 수 있고, 자기자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이다. 악한 이건, 선한 이건, 우둔한 이건.

『Poslednji List 日心』
- 본격 포스트모더니즘 극 -

김 영 길 (88)

서기 1992년 10월 28일 D-day 11일전

어둡고 흐린 날씨에 바람까지 세차게 불고 있다. 우리팀은 정동진, 박현일, 이운호, 이동운 그리고 나.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동진 그는 생각했다. 마지막 시험. 그리고 대학입학. 그렇다. 마지막이란 없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 날의 한강(정을병)', '마지막 남자(김 남)', 마지막 들려주는 자장가(박경중)', '마지막 등불이 꺼지기 전에(안윤화)', '마지막 밤의 여로(Elie wiesel)', '마지막 비밀(Nicholas Bethell)', 마지막 사랑을 위하여(Thomas Berger)', '마지막 3일(Richard Rohmer)', '마지막 여름(Ricardu Huch)', '마지막 영어 공부(Christine Timmous)', '마지막 우상(홍성원)', '마지막 막잔(황순원)', '마지막 편지(Lena Canada)', '마지막 황제(Bear Edward)', 마지막 수업(Alphonse Daudet)' ...그리고.....그리고.... "마지막 잎새(O.Henry)."

그는 애초에 퀴즈 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대본을 작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마지막 잎새"를 택하고 말았다.

다음날 D-day 10일전

우리는 바뀌어진 대본을 신중히 검토했다. 장점은 단순한 대사와 각 배역에 할당되는 고른 대사 분포, 그리고 역시 대사가 간단해서 원어로 번역하기 수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대사 못지않게 단순한 대본내용과 약간은 유치한 발상이라고 우리들 각자는 토로하고 말았다. 과연.....

D-day 8일전

이동운은 이 날 집에서 실제 총과 거의 비슷한 콜트, 메그넘 등의 모형권총 4자루와 장총 1자루를 학교에 가져왔다. 정말 실제와 흡사했다. 우리들은 그것에 가짜 모형탄환을 장전하고 서로에게 발사하며, 서로의 Sadism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모두가 다 몰두되었다.

동운은 어떤 연극을 하던지 간에 소품으로 이 총들을 꼭 사용해야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굳혔다.

D-day 6일전

안개 자욱한 새벽 녘.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맴돌았다. 동운과 나는 서양어대 본관에서 만났다. 마침내 우리는 그곳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09시 50분경 우리는 무사히 그림자처럼 서양어대 본관에 있는 Video-room에 잠입했다. 우리는 心中에 두고 있던 Video 2편을 골라, 준비해온 초 고성능 녹음기로 몇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복사했다. 모든 일은 신속히 진행되었어 40분이 소요되었다.

.

D-day 5일전

우리는 녹음된 내용을 신중히 요약, 정리해서 원래의 대본과 어울리게 녹음된 내용을 적절히 삽입시켰다. 물론 필요 여하에 따라 대본내용을 과감하게 수정, 삭제하였다. 그 결과, 드디어 서기1992年 11月 4日, 천지가 개벽하여 울부짖던 바로 그날 기숙사 427호실에서, 후일 우리나라 연극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던 大作이 완성되었으니, 그 이름하여 “Poslednji List” 였던 것이다.

D-day 드디어 그날

사랑과 배신으로 점철된 길은 의혹의 썩은 낙엽들을 연상하며, 관객들은 작품에 깊이 몰입되었다. 혹시나 다음 장면을 놓칠까 봐 숨을 죽이며, 불타오르는 人間의 생리적 욕구까지 그들은 참아야 했던 것이다.

완벽한 대사암기, 장대한 소품 준비, 그리고 화려한 Casting, 또 거의 프로에 가까운 특수 음향효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작품은 작품상, 주연상, 조연상, 특수 효과상 등 전 부분에 Nominate되어, 신세대 선두주자로서 차의 우리나라 연극계를 이끌어 나갈 가공할 만한 팀으로써 급부상 하였던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과 수업내용 중에는 1,2학년 때 그들의 작문 실력을 높이기 위한 원어연극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그동안 쌓아온 유고어 실력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本人은 여기서 우리과에 원어 연극반이 새로이 탄생한다기에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를 보내며, 겸연쩍게도 Poslednji List 1기를 자처하고 싶다.

사실 O. Henry 의 작품 속에서는 숨겨져 있었고, 또 숨겨져 있어야만 했던 Marko와 Jovan의 병적인 정신질환이 이번 [Poslednji List] 으로 말미암아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말았다. 그 후 Marko와 Jovan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서 本人은 앞으로 원어 연극반의 구성원들이 될 Poslednji List 2기들이 Marko와 Jovan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의 파란만장했던 뒷얘기들, 즉 “Poslednji List 2” 를 장대한 서사시로써 새로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푼 기대감으로 후일을 기약하며....

일천구백구십삼년 이월 십 이일

신입생 여러분들께

이 기 택 (91)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그 동안 시험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대학생활도 힘차게 시작되겠죠. 새로운 신입생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너무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외대 유고어과에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도, 2년이란 시간이 너무도 빨리 갔습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아쉬움이 생깁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보람되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저는 과내 모든 행사에 거의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행사가 제 대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제 특기 중 하나는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의 보람을 찾는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물의 밝은 면을 보도록 노력하죠.

제가 참여한 행사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91학년도 신입생 준비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학교는 학교 기숙사에서 열렸는데 그 당시 날씨는 너무 추웠답니다(추워서 말도 잘 못했음). 그런데 많은 자상한 선배님들의 사랑이 이 추위를 쫓아 버렸답니다. 준비학교의 목적은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의 전반에 걸친 문화를 알리는데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를 꼭 차게 준비해서 저희들을 너무도 바쁘게 움

직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났지만 이상하게도 금새 불평과 짜증이 열정으로 바뀌었지요.

몇 가지 행사를 소개하자면 “단대 별 장기자랑, 과 깃발 경연 대회, 집체연극, 사물놀이, 지신밝기, 아웃사이드 공연 등등” 다 새로운 행사들이 2박 3일동안 치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 깃발 경연대회란 선배님들은 과의 특성을 설명하고, 신입생들은 이것들을 종합해서 과를 상징할 수 있는 깃발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도 황당하고 어리둥절 했지만 신입생들의 생각과 마음이 모아지니까 그럴듯한 깃발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특성”동구 별”, “통일 빛”, “발칸 힘”, “창조 유고슬라비아과” 이런 모든 상징들이 융해된 깃발은 내용과 상징성으로 최고였었죠. 그리하여 종합 3등을 하였는데 저희들의 저력을 서양학내에서 펼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몇 일 있으면 여러분들의 준비학교도 곧 개최 될 텐데 이번에는 고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 신입생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바가 자못 커지겠네요.

둘째, 방학을 보다 알차게 보내려고 했다. 방학 중에는 주로 이문동에서 지냈는데,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 전공 공부에 집중을 했다. 물론 아르바이트도 하려고 했으나 현재 나에게는 아르바이트 보다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졌다.

저희 과의 특성이 특수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필수적인 것이 결합하기 전에는 그 특수성을 발휘 할 수 없다. 그 필수적이란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경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영어(듣기, 말하기, 쓰기), 시사,

특히 상업이나 경영 그리고 무역에 관한 상식을 넓히는 것 등등.

신문을 많이 구독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영자신문도 함께. 물론 영자신문을 전체 보기란 힘들겠지만 제 방법을 소개하자면, 처음부터 우선 읽고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밑줄을 긋고, 대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Article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나중에 밑줄 친 단어들만 따로 단어장을 만들면 효과적이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영어와 시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저희 학교에서 어학연수를 5주 동안 모현학사에서 매년 실시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영어 어학 실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학연수 내용은 홍보책자가 나중에 배부되겠지만,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되어있지요. 말하기는 외국인과, 듣기는 통역대학원 출신의 강사님들과 함께 하는데,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가지 제가 못한 것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여행을 될 수 있는 한 짬을 내어 자주 가고, 연애도 또한 정열적으로 하시고, 독서도 또한 많이 하십시오.

아 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 하냐고 걱정하시겠지만, 저는 총명한 신입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획적으로 차례차례 잘 해낼 줄 믿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에게 성실할 때 여러분이 보낸 대학시절은 알차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비옥한 밑거름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지난 1년 이야기

이 문 왕 (92)

먼저 힘들었던 입시 지옥에서 탈출하여 상아탑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고어과라는 탁월한 선택을 한 새내기들에게 깊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제가 준비학교에 신입생으로써 참가했던 것이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선배의 입장이 되어 후배들에게 이런 글을 쓰게 되다니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부족하나마 대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도 모를 얘기를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라는 것 입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와 느낀 것은 역시 대학이라는 곳은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누군가가 내 자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주기 보다는 내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생각으로 생활에 나간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1년이 가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내가 진정 무엇을 위해 대학에 왔는가조차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생에 남길 만한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입시라는 커다란 무게에 눌려 그다지 정말로 인생에 남길 수 있을 만큼의 추억을 만들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입시라는 커다란 관문을 일차적으로 통과했으니 - 아직 취업이라는 관문이 남아있음. 대학 생활 4년 동안 멋진 추억거리들을 남기라는 말입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저는 두 가지 커다란 추억거리를 1학년 시절에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는 연합 모꼬지 때 미스 유고 선발 대회에서 이름뿐이지만 명색이 2등이라는 자리에 올랐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외대의 커다란 자랑 거리인 세계 민속 예술 축전에 출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된 것 같아 보여도 내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들이 될 것입니다.

새내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비록 1년 밖에 아직 대학이라는 곳을 경험해 보지는 못 했지만, 내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후배들을 맞이했을 때 대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

90에게 바라는 글

김 영 식 (89)

지금은 우수를 더해가는 가을 밤.

마지막 잎새를 보며 나의 한 해를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보면 후회와 시행착오의 꽃내기 시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던 나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날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다만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90학번 여러분 감히 제가 조언을 할까 합니다. 그럴 자격의 유無는 둘째치고 안 가본 길을 먼저 지나와 보았다는 하나의 이 유만으로도 후배들에게 이야기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大學 이라는 곳은 고등학교와 다른 능동성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공간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임수경 學友가 큰일을 한 것도 그러한 태도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민주와 통일을 위해 사생활과 낭만을 희생시켰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해수욕장의 낭만과 계곡에서의 유희를 마다한 채 복한을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大學生活에 있어서 철새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깨달음도 없이 지겹게 강의나 듣다가 끝나자마자 집이나 가는 것은 동물적인 생활이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과 동료들과 허심탄회한 조그만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서클生活도 하면서 학

생 苦心하는 친구를 가지는 것도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저 안일한 生活을 추구하려는 고독한 철새가 되지 맙시다.

둘째, ‘대학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흔히 대학에서의 생활이 경쟁의 장소요, 이기주의적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中-高等學校시절이 그러합니다. 입학고사 준비를 위해 친구와 서로 만나 이야기도 안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단어 하나 수학문제 하나 더 풀기 위해 바둥 치는 현실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요?

대학이라고 하는 자유와 사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드넓은 공간에서 삶에 취해 고민해 보고 체험해 보는 사이에 진정한 친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의미가 커다란 것입니다. 취미생활과 대인관계에 힘써야 할 중-고등학교시절에 그저 공부에 몰혀서 보냈기 때문에 대학에서 만이라도 그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취업이나 앞일을 ‘기우’하는 바람에 대학에서 조차 이기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전공 시험날

양 현 영 (89)

8시 40분 School bus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나갔다.

비록 외워지지는 않아도 한 손에는 문법책을 봐야지 마음이 편한 까닭에 줄을 서면서도 계속 입으로 중얼거린다.

“그래. 줄 쳐놓은 것만이라도 보자. 내가 뭐 장학금을 탈 것도 아니고 c만 받아도 아니 F만 면해도 3학년 때 다시 안 들을 수 있잖아!”

School bus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는다.

“30분이면 2과 정도는 다시 볼 수 있겠지. 그리고 3과는 학교에서 하자.”

그러나 한 장도 못해서 ‘미빙냉장’이 보이고 ‘학교입구’가 보이고 ‘학생회관’이 보인다. 강의실로 돌아가기 전 불안한 마음을 가라 앉히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율무차를 한 잔 뽑은 후 뛰어 올라간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평소엔 수업시간에도 잘 안 보이던 애들이 서너명 앉아 있다. 아! 이제 한 시간 남았다. 이 색깔 저 색깔 형광펜으로 바꾸어 가며 연습장에 휘갈기며 써본다.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을 뒤로 하고 누군가 들어와서 말을 건다.

“공부 많이 했니?”

“많이 했다. 왜?!”

통명스럽게 쏘아 붙인다. 그는 무안한 듯 저만치 앉아서 무엇인가 외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들어온다. 저번 시험 본 후에 처음 보는 애들도 있다. 시험 시간이 다가 오고 강의실이 소란해

진다.

애들은 시험에 유리한 자리배치를 한다. 이 모양과 김 모균 옆 자리에 경쟁이 시작된다.

마지막 5분. 강의실이 무척 시끄럽다. 박 모균이 막판이란 기분으로 크게 외기 시작했다.

“복도에 나가서 외워보자.”

2분 남았다. 자리에 앉는다. 애들이 무언가 책상에 쓰기 시작한다.

“이건 꼭 나온다”

“뭔데, 나도 좀 쓰자.”

드디어 몇 개 끄적거린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쉴다. 조교님이 들어 오신다. 시험지가 배부되어 시험은 시험은 시작되고 다들 열심히들 쓰고 있다 아는 것 몇 개 쓰고 유작에 눈이 멈춘다.

“아! 외웠던 건데” 안타깝다.

“이럴 때 눈이라도 좋았으면” 그때다. “거기 이모균, 그만 좀 봐.” 뜨끔한다.

한 두명씩 나가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강의실을 나온다. 마지막까지 X모균과 X모양이 버티고 있다. 복도에서 애들이 불안한 얼굴로 서로 서로 말한다.

“XX야! 이번엔 F 면할 수 있겠니?!”

88학년도 7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88년이 저물었다.

오늘, 89년의 벽두에 서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 깊은 일이라. 本 편집부는 유고어과 설립 1주년의 기념사업 일환으로 교내 외에 관심을 모았던 우리 유고어과의 주요뉴스 7가지를 선정하였다. 과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 7尤 뉴스를 선정하는 것이 상례이나 편의상 이번에는 편집부에서 무대별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이번 7尤 뉴스는 그 비중에 따라 순위를 따지지 않고 대략적인 발생 순서 별로 기술되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둔다.

지난 3月12日~13日 양일간 신설 3과(유고, 체코, 헝가리) 춘계 MT가 셋터 금남 캠프장에서 열렸다. 단대장 김양수 형을 대동한 MT에서 신설 3과는 서로의 우애를 다졌는데 이날 우리 과 박모군은 저녁 9시경 돌연 실종(?) 한때 과원들은 아연 긴장하기도 했으나 화장실 옆 숲에서 발견되었는데 사실인즉, 지나친 과음으로 인해 몸을 주체할 수 없어 화장실 옆에서 잠시 숙침中이었다고...

학년초기에 각종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과분위기가 한대 경색, 급기야는 지난 3月 16日 살풀이굿을 벌이기도 했다. 진득이 형을 祭主로 한 이날 굿관은 유고어과에 낀 액운을 물리치기 위한 것 이었는데... 묘하게도 이후에는 별 다른 사고가 없어서 한 패 살풀이 굿의 효력설이 나돌기도...

지난 8月10日~12日까지 푸르른 동해의 한 바닷가에서 유고어과 하계 MT를 빙자한 Camping이 김영길, 황진득, 민승기, 한현일, 정태동이 참가한 가운데 단출 하게 열렸다. 삼척 해수욕장으로 놀러 간 이들은 당초 1박2일 코스로 갔지만 하루 더 제끼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2박3일로 연장했다고...

둘째 날 저녁 옆 민박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20代 초반의 여성 3명이 투숙하자 김영길군이 꼬셔보겠다고 들어가다가 그 집 주인 할머니께 호되게 야단맞고, 이 후 여자 노이로제에 걸린 김군은 6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도 신음 중에 있다고...

여름방학 中, 2학기 개강을 얼마 남겨두지 않아서 이종영군이 돌연 휴학을 선언, 평소 같이 신림동 일대를 누비던 동료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연인즉, 2학기부터 재수를 하여 89학년도 학력고사를 보겠다며 수험준비에 열을 올렸다는데 10月 중순경 이운호군 앞으로 배달된 편지에서 현재 대전 집에 요양 중에 있으며 올해 시험보기는 다 틀렸다고 전언... 1학기 내내 함께 염문을 뿌리고 다니던 체코어과의 한 여학우는 종영이가 없는 요즘은 학교가 온통 텅 빈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

큰 무대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던 유고어과 운동선수들이 동구어과 친선 경기대회에서는 예견되었던 강세를 보이며 축구, 배구에서 우승, 동구권어과 사이에서는 최강임을 자부했다.

이 날 체육대회는 앞으로 진행될 공구어大 분리에 대비, 동구5개어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체육대회를 모두 마친 후에는 대동제 행사로 아쉬운 막을 내렸다.

동대주최 원어가요제에서 유고어과 사상 최초로 공식대회 첫 수상기록을 낳게 되었다. 김철민, 정태동, 하명희, 김지향, 박광원, 조상연, 백미정 등이 참가한 이 날의 가요제에서 Moja mala nema mane라는 곡으로 명예의 동상을 차지, 상금 2만원을 함께 수상하였는데,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섰을 때 사회자의 간단한 질문에 하명희양이 괜히 수줍어하며 사회자 등뒤로 숨는 등 귀여운 해프닝을 벌여 긴장하고 있던 이들이 잠시 긴장을 풀며 웃기도...

지난 12月 8日, Mirko Radnković 교수님 자택인 한남동에서 회화시험을 끝으로 88年 공식, 비공식 마지막 시험을 치른 모든 과원들은 곧바로 단국大 정문으로 집결,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하고 이태원 Night Club으로 진출하였다. 公式的으로 과원들이 모두 참가하게 된 모임으로는 마지막이 된 이번 모임은 여느 때의 행사보다도 분위기가 훈훈했고, 흥을 띄었는데 이유인즉, 女학우들이 신명이 나서 춤을 추었기 때문이라는 믿을 수 없는 후문이 있다. 여하튼, 무사히 마친 이날의 행사를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유고어과의 모든 활동이 일단락 매듭지어졌다.

유고어과 뉴스

영욕으로 얼룩진 80年代가 저물고 희망과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찬 90年代의 서막이 열렸다. 돌이켜 보건대 변혁과 개혁이라는 이름의 열병으로 세계가 온통 술렁이던 89年.

아울러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유고어과 또한 지난해처럼 갖가지 사건과 뉴스거리로 얼룩졌던 적도 없으리라.

본 편집부는 제2호 한우리지를 발간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교내 외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사실들을 중심으로 유고어과 89학년도 7大 뉴스를 선정 발표코저한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뉴스를 ‘한우리’에 공식 발표하기 전에 보안유지에 실패, 이미 다량의 뉴스가 공공연히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독자 제현의 깊은 아량을 갈구한다.

‘유고어과의 지위를 한 단계 격상시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태동君이

제2대 과회장에 취임 정태동체제를 출범시켰다. 수려한 용모, 이지적인 이미지, 날카로운 판단력,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용기와 조국애에 빛나는 그는 만 1년간의 임기 중 『전공과목 F학점 폐지』 『야외수업 강화』 『휴강시간의 확대』 등에 그의 정치력을 집중하였으나 기대이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89춘계 MT가 지난해 3月11日~12日 양일간 강원도 강촌에서 열렸다. 참신한 89학번과 노숙한 88학번이 함께한 이날MT에는 88의 일부 휴학생들(이운호, 조상연, 김영길)이 참가하기도 했는

데 이들 중 김모군과 이모군은 11日밤 10시 반경부터 폭음, 인사불성이 되었으며 특히 김모군은 후배들을 불러놓고 “확실히 가르쳐 주겠다. 군대 갈려면 입영희망원부터 먼저 내라.”는 등의 술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추태를 연발, 후배들로부터 꽤 재미있는 선배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나 정작 본인은 휴학을 하고도 군대영장이 나오지 않아 초조해 하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듯..

· 한편 새벽녘에 88들의 계획적인 열차려로 인해 2cm가량 황순표군의 안경이 깨지고 허철홍군이 무릎이 찢어지는 등 엄청난 무리적 피해를 당한 89들은 이후 지나친 과음, 소주 60병과 맥주 30병을 먹는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결국 정현군이 화장실에 졸도 끝에 변기에 안경을 빠뜨려 버리는 해프닝까지 연출.

2학기에 열린 제2회 동구어대 체육대회에서 우리과는 2년 연속 종합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축구, 배구, 농구, 발야구, 계주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우리과는 축구와 발야구에서 각각 우승, 체육 유고어과의 저력을 과시했는데, 이날 경기장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스포츠 영웅 김주오군이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일약 스타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날 김군의 경기모습을 지켜본 양모양의 한마디 “정말 믿을 수가 없더군요. 축구장에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어느새 배구장에서 그의 기막힌 스파이크 장면을 볼 수 있구..... 그가 아프가니스탄 국적만 가지지 않았더라도.....

왕산 설립10주년 기념으로 드높은 가을 하늘아래 개최된 청맥제 원어웅변대회와 번안 민중가요제에서 유고어과는 각각 3위를 차지하며 교내 외에 비상한 관심을 유도..... 원어웅변가요제에 참가한 88김지향은 특유의 아카데미칼한 목소리로 대학의 현실

과 올바른 대학 문화에 대해 열변을 토했는데 열광한 관중들에 의해 6차례나 커튼콜을 받기도.....

2학기 개학에 즈음하여 89김현철군이 중고 프라이드를 구입, 통학을 함으로써 유고어과에도 마이카시대의 개막을 선포..... 특히 김군의 프라이드 승용차는 점심시간 때는 어문관→학생회관, 공강시간에는 어문관→모현(당구장), 방과후에는 학교→기숙사 간을 수시운행, 과학우들을 실어 나름으로써 제2세대 셔틀버스로 각광받기도..... 그러나 ‘공포의 총알택시’라는 별명답게 하루도 사고 없이 차를 몬 적이 없는 그는 결국 10월 중순경 모현→광주간 15km지점에서 전복사고를 당하면서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과실을 범했으나 불행(?)히도 그는 아직도 건재하다고.....

알란 탐, 김성욱, 제임스 본드 등의 예명으로 한때 왕산 사고계를 석권하다시피 했던 89조원성군이 2학기 등록 후 단 세 차례 등교, 그의 정체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케 했다. 특유의 꺼병한 몸놀림과 그의 둔탁한 머리에서 나오는 유치하고 졸렬한 발상으로 정서가 메마른 현대인의 가슴에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했던 그는 2학기 내내 10대 후반의 아가씨와의 동거소문, 강남 모까페에서의 DJ생활 등 무수한 소문에 시달려 왔으나 현재는 해외유학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숙사생도들의 꿈 잔치 가을 청량제에서 전 1학년 과대표 유맹목군과 강릉의 희망 박근홍군이 즐거워야 할 청량제에서 통한

의 눈물을 안주 삼아 서로 술잔만 주고 받는 추한 모습을 보여
그들을 알고 있는 주위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이유인즉,
꽤 괜찮은 파트너가 동참기로 된 이날 축제에서 이들 두 명의
파트너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 모현 세탁소에서 멋지게 양복
을 빌려 입고 이들을 기다리던 두 학우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
주었기 때문.

유고어과가 보낸 1990년

지난 1988년 홀로서기를 배우며 출범했던 유고어과가 거듭된 도약을 거쳐 이제는 당당한 모습을 갖춘 채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그 어느 한 해도 조용하게(?) 지나갔다 할 수 없을 만큼 다사다난한 시간들이었다. 이제 대망의 91년을 앞두고 말 많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많았던 1990년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편 집 부

1. 그동안 우리 유고어과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성기 교수님께서 이제 루마니아어과로 되돌아 가셨고 새로이 김성환 교수님께서 유고어과 학과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가시는 김성기 교수님께 서운한 마음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로 오신 김성환 교수님께 환영의 박수를....

2. 7.5% —> 무슨 수치인가?

88학번 5명, 89학번 7명의 저조한 여학생 수에 대한 실망과 함께 은근하게 90학번에서의 결실(?)을 노렸던 88,89학번 선배 및 90학번 남학생들은 늘어난 정원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숫자가 단지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3. 2월 15~17일 동안 모현학사에서 신입생 준비학교가 열렸

다. 비록 그다지 참석률이 높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새 생활, 새 친구들과의 만남과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준 바람직한 2박3일이었다. 그러나 밤에 있었던 과별 대화의 시간에 90학번 이 모군의 조직 폭력배 전력 등의 고백은 선후배 모두를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잠시 밀어 넣었다나 뭐라나.

4. 90년도 춘계 연합 M.T가 용문산 용문장 여관에서 3월 9~10일 양일간 있었다.

매우 높은 참석률을 보인 이 M.T에서는 다채로운 내용의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 MISS 유고 선발대회는 주목할 만 하였다.

MISS 유고로 뽑힌 윤 모양의 요염하고도 매혹적인 자태, 이지적 매력의 김 모양, 집시 아가씨 이관♡양, 그리고 순박한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이향♡양 등 모두로 인하여 유고어과 남,녀 학우 모두의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 뛰었다는 후문이....

5. 1학기 종강파티를 겸한 회식이 김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성남 경원대 앞 맥주집에서 있었다. 즐겁고 활기찬 대화와 함께 알코올기운이 꽤나 오르는 도중,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간 89학번 김 모군과 경원대 몇몇 불량배가 사소한 시비 끝에 유혈사태가 벌어져 모두가 긴장하였으나 곧 경찰이 출동하여 사태가 수습, 모두를 맥빠지게(?) 하였다.

6. 지난 가을 제3회 동구 5개어대 체육대회가 많은 각과 학우들의 함성과 기대 속에 시작했다. 이 날 우리 유고어과는 탁월

한 기량과 잘 훈련된 기동력을 선보이며 예상대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였다. 비록 강세를 보여 왔던 축구를 아깝게 놓쳐버렸으나 역시 기대가 모아졌던 농구는 신 모, 김 모, 도 모, 손 모군등의 화려한 개인기를 자랑하며 우승에의 큰 몫을 차지하였다. 또한 제주에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타 과 선수와는 월등한 차이를 벌이도록 달려준 90학번 안 모양의 모습 역시 거의 환상적이었다 하겠다.

7. 지난 9월 11일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온 국민의 우려 속에 우리 왕산 전 학우는 긴장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 귀가로의 사투를 벌이기도.

이 날 오후 2시까지 학교를 빠져나가지 못한다며 다리가 무너져 교통이 두절된다는 등의 무성한 잡음과 혼란 속에서 다리복구 임시 특공대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특히 겨우겨우 서울에 도착한 김 모, 이 모양은 전철이 끊긴 재난 앞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보이며 물 바다를 건너 건너 그날 밤 자정전에 집에 도착하는 인간 승리를 이루었다.

8.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서대인의 큰 잔치인 청맥제가 열렸었다. 기대가 모아졌던 번안 가요제에서는 우리 유고어과 90학번 많은 학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상하지는 못하였으나 다음 날 열린 웅변대회에 참가한 89학번 유 맹목군은 Deretic교수님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참가자 2명 중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9. 그동안 유고어과 체육의 신동이란 칭호를 들어오며 모든

종목의 운동에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89학번 김주오군이 돌연 입대, 유고어과 체육계의 앞날에 먹구름이. 비록 그를 볼 수 있던 장소는 강의실이 아닌 운동장뿐이었지만 그 이상만큼 타 학우들의 가슴에 공허감을 안겨 주었다. 더구나 같은 날 축구계의 귀재 90학번 윤 경보군, 농구의 88학번 박광원군이 입대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실을 어디서 메워야 할지 이후 차기 체육부장 이상훈군의 고뇌가 예상되고 있다.

아주 옛날에는.....

준비학교

91년 새내기들의 높은 참여 속에 준비학교가 모현학사에서 2박 3일간 열렸다. 영하 20여도의 콧털 얼리는 추위 속에서도 학생들의 높은 참여의식으로 성공리에 대학생활의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수 있었다. 이번 준비 학교에서는 91학번 노 모군이 ‘아파트’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가 하면, 현 모군의 하얀색 모자, 김 모군의 X 목걸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개성으로 탄생했다.....

연합MT

3월 초 강촌에서 있던 연합 MT에서는 폭설로 인한 눈 잔치가 불만 했다. MT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91 굴리기는(주모자 90, 후원 89) 폭설로 인해 무산되고 눈 싸움으로 대체 되었다. 91 V 모양의 괴성으로 시작한 눈 싸움은 89 김모군의 생포로 끝을 맺었다.

번안 민중 가요제

청맥제 기간 주에 있었던 번안 민중 가요제에서 91학번의 ‘얼굴 찌뿌리지 말아요’로 유고어과는 최대 인원 참가, 참가팀중 유일한 안무로 진기록을 새우며 입상권에 들어갔다. (청맥상) 상품으로 나온 통닭 2마리에 매달린 20여명의 학우들은 닭 목젓까지 깨끗이 먹어 치웠다. (닭은 벼슬이 없는 불량품이었음)

우리는 92년도를 이렇게 살았어요!

준비학교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될 준비학교를 뭘 모르는 92새내기들은 참여하지 않으면 잘리는 것으로 오인, 목숨을 걸고 참여. 첫 날 자대 강당에서 열린 장기자랑에서 ‘92 서모 군’은 ‘91 이모 군’과 “매일 매일 기다려”를 괴성에 가까운 새로운 창법으로 열창해서 관객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또한 마지막 날 밤 기숙사 4층 휴게실에서 열린 선후배 간의 만남은 시종 훈훈한 정 속에서 웃음으로 일관. 단 그 날 저녁 방 안은 우리 학우들이 협동으로 만들어 낸 발냄새의 황금기였다.

새내기환영회

다른 모든 과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night club에서의 신입생 환영회가 향락적 퇴폐적 분위기 속에서 성대히 거행. (강남 Oxford)

이 때 김모 군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근 나이트에서 연마해 온 최신 춤들을 선보이며 화제거리에 올랐고 ‘92 서모 양’이 약간의 에어로빅이 가미된 요염한(?) 춤을 선보이면서 우리과 연장자(88, 89)들의 시선을 한 데 모았다.

1학기 연합 MT

과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3월 28, 29일 양일에 걸쳐

용문사에서 행해진 MT 도착 당일 비교적 빡빡한 스케줄에 답답했던 학우들은 밤이 오자 이에 분풀이라도 하듯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 되었다. 특히 우리과의 연례 대회인 미스 유고 선발대회에서는 '92 안모 군'이 미스 유고眞에 선발되어 못 남학우들의 키스 세례를 한 몸에 받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학우들의 분위기는 고조되어 새벽녘에는 거의 PAS판을 연상시켰다.

동구어대체전

동구어대 5개 과가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이번 체전에서 우리과는 노메달의 수난을 겪고야 말았다. 등위는 종합 5위. 조로 예선에서 탈락한 우리 학우들은 '90 이모 학형'이 주축이 되어 땅따먹기, 다방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다채로운 게임에 참여. 흡사 유치원 놀이터를 연상시켰다.

왕산체전

가을 시원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거행된 왕산 체전에서 우리과 최대의 경사가 나고야 말았다. 여자 발야구 4강 진출!!! 이는 실로 우리과 개설 이후 최대의 경사임에 틀림없었다. 특히 왕산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홈런을 쳐 타 학우들에게까지 박수 갈채를 받은 유모 양과 상대 수비수의 쌍코피를 터뜨린 후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게임을 포기한 이 모양 등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다. 특히 이 양의 착한 마음씨에 상대과 남학우들이 매료되어 우리 과방에 이 양을 만나러 오기도 했다는 말

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

1, 2학년 상황연기

전공인 세어 작문 수업에 일환인 상황연기가 교내 방송국인 FBS-TV 카메라를 앞에 놓고 행해 졌다. 1학년의 경우, 남우 주연상은 “新 흥부와 놀부”에서 열연한 금승현 군에게 여우 주연상은 “신데렐라와 제비”에서 천사로 분장한 이지현 양이 차지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들이 수상한 까닭은 단 한가지, 말은 배역 자체가 낮은 I.Q를 요했다는 것이다.

졸업생 환송회

93년 2월에 졸업하는 10명의 졸업생들을 위한 환송회가 석촌 호수 주변의 모레스토랑에서 행해졌다. 김성환 교수님께서 『만남』과 『옥경이』를 열창하셨고, 연로한 88, 89학번들의 율동조차 웃음을 자아냈다.

우리는 93년도를 이렇게 살았어요!

새내기 준비학교

93년도 새내기 준비학교는 각 단대별로 진행되어 공구어대는 고양 유스호스텔에서 2박3일 동안 재학생과 새내기간의 따뜻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재학생과 새내기가 각 조로 나뉘어져 조별 장기자랑 및 조 대항게임은 앞으로 줄기차게 있을 모꼬지를 대비시키려는 듯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들만 앞에 끌려나가 온갖 수모(?)를 겪기도 했다.

과별 뒷풀이 시간에는 아직까지는 술에 약한 93학번 새내기들이 10분마다 한 명씩 끌려나가는 등 우리과 미래의 주류학이 걱정되기도 했으나, 준비학교 이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92학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도 고인들 형님을 즐겁게 해드렸다는 후문이다.

신입생 환영회

2년째 night club에서 열린 신입생 환영회가 강남 Oxford에서 작년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 하는 춤판 한마당을 벌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93학번의 박모군은 현란한 브레이크댄스로 93학번 여학우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성공 하기도 하였다.

놀라운 것은 뒷풀이로 모 rock café를 간 93학번 학우들의 춤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이었다.

연합 모꼬지

93년도 연합 모꼬지가 청평에서 1박 2일로 열렸다.

먼저, 밖에서 각종 게임과, 기마전 등으로 체력을 단련하였고, 저녁엔 조별 장기자랑으로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연합 모꼬지의 하일라이트인 미스유고 선발대회에서는 예뻐야 한다는 역대 대회의 통념을 깨고, 이승우 학우가 ‘진’이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도우미로 분장을 한 이군은 지나치게 외설적인 타후보와는 달리 정숙하고 조신한 태도로써 영예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 뒤 화려한 뒷풀이로 밤새 술을 즐기면서 선후배, 동기간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모꼬지였다.

변안 민중 가요제

동구어대 축제인 폭풍제 행사의 일부인 변안 민중가요제에서 우리과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불렀다.

89학번인 박정석 학우의 수준 높은 지도아래 화음의 극치를 만들어 영예의 1등상인 ‘폭풍상’을 차지했다. 특히 93학번 한모군의 끈적끈적한 술로는 동구어대 여학우들의 갈채를 받았는데 몇몇 학우들은 약간 소름이 돋기도 했다고 한다.

왕산제전

10월 18일부터 4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왕산 제전에서 우리과는 또 한번의 신화를 창조해 내고야 말았다. 바람처럼 나타난

휴학생 2명(89 김주오, 90 도준형)의 절묘한 콤비플레이, 93학번 힘의 농구인 김유광 학우와 유난히 팔이 길어 원숭이를 연상케 하는 민병일 학우(91)의 멋진 활약으로 유고어과 최초로 농구 4강 진출을 이룩한 것이다. 특히 예선 3차전, 불어과와의 시합에선 20점차로 뒤지다가 게임종료 5초 전에 극적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켜 우리과 여학우들이 선수들의 팬클럽을 조직하는 등 농구돌풍이 거세게 불었던 체전 이었다.

유고어과 축제

우리과 사상 처음으로 우리과만의 단독적인 축제를 열었다. 처음이니만큼 두려움에 떨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우리과 여학우들이 만든 유고 전통음식이 불티나게 팔렸고, 유고 영화제도 성황리에 끝마치는 등 다른과 학우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좀더 내용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제2회 유고어과 축제를 치뤄낼 것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MALA DRAMA(상황연기)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우리과의 작은 행사 MALA DRAMA가 술한 화제와 이야기거리를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93학번의 A few good man팀은 ‘이수일과 심순애’를 멋대로 각색하여 ‘연인’이란 제목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와 포복줄도할 연기로 1학년 작품상 및 남우 주연상을 휩쓸었고, ‘B사감과 러브레터’에서 표독스러운 연기를 보인 장이진 학우가 여우주연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2학년들은 ‘양들의 침묵’팀이 작품상을 수상했다.

졸업생 환송회

94년 2월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위한 자리가 4년을 지내왔던 왕산이 아닌 이문동에서 행해졌다. Zoric교수님의 송별식도 같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선배님을 떠나 보내는 아쉬움과 후배들을 두고 떠나는 선배님들의 안타까움이 교차되는 자리였다. 한편 Zoric교수님은 식이 끝난 후에도 아쉬운 마음으로 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94年 ~ 95年 3月 유고어과 주요행사

광명에도 별뜰날 있다

제7대 안인균 정권에서 제8대 ‘다시 일어서는 유고어과’의 문광명 학우(90) 정권으로의 교체가 있었다. 비록 단일 후보로 출마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지지로 과회장에 당선이 되었다.

당시 투표인 한 명당 식권 하나를 돌렸다는 후문도 있었지만 조사결과 그럴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걸로 판명되기도 했다. 암튼 제8대 유고어과 집행부의 힘찬 사업을 기대해본다.

Popović 교수님 환송회

너무나 우리를 위해 수고하셨던 Popović 교수님 환송회가 겨울방학 중에 94학번들과 이문동 OO호프집에서 있었다. 처음으로 대하는 교수님과의 술자리라 어색했지만 소주가 더 좋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분위기는 급속도로 좋아졌다. 우연히 마주앉은 김OO군의 Body Language에 질리셨는지 교수님은 2차로 노래방을 가자며 젊음을 과시하셨다. 94학번들은 이날 교수님께 전자수첩을 선물해 드렸는데 교수님께서서는 이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호바아아아알라”라고 말씀하셨다.

수안보에서 소주로 목욕하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95새내기들을 데리고 인문대, 사회대와 함

게 수안보 사조마을로 2박 3일간의 OT를 갔다. 밤불놀이, 대동놀이, 방탕, 중앙공연 등이 거행되었고 뛰니뛰니해도 뒗풀이.....

우리와 뒗풀이는 가관였다. 하나 둘 쓰러지는 인간들... 그 틈을 탄 과회장에 ‘닐리리 맘보’ 그리고 95새내기 노OO군의 끊이지 않는 구호 ‘어퍼’ 등등 근 150명에 달하는 소주를 모두 비우고서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술집을 찾는 괴력을 발휘했다. 암튼 저마다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피말렸던 MALA DRAMA

유고어과 학우들의 피를 말렸던 그러나 나중엔 웃을 웃음마저도 말려버린 Mala Drama가 성황리에 마쳐졌다. 1학년 ‘선녀와 나무꾼’조는 외설, 변태적 소재로 찔릴뻔한 위기가 있었고 ‘사랑과 영혼’조의 밀가루반죽 장면도 외설시비가 있었다. 순수 아마추어를 능가하는 이번 Mala Drama에서는 ‘윤경보, 김병권’ 학우가 남우주연상을 ‘신설주, 이은영’ 학우가 여우주연상을 탔다. 올해에는 특별히 Mala Drama가 선택사양으로 공연하고픈 사람만 한다고 하는데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바란다.

연합 MT

이번 연합 MT는 예비역 선배님들의 대거 등장으로 예비군 훈련장을 방불케 하는 다소 군기빨이켜던 MT였다. 경기도 장흥에서 있었던 MT에서는 유고어과 남성들의 여성미를 발산하는 MT의 결정타 “Miss Yugo”선발대회가 펼쳐졌는데 95학번들의 가히 상상을 초월한 ‘뭉땡이’를 볼 수 있었다. “젓소 부인” “500

원에 오라이” 등 다소 해석하기 힘든 인물들이 있었고 이날 몸뚱이 중 최고였던 이OO군의 “OO빨 서면 40이에요”라는 대학생 이하의 대답이 나와 방청객들을 발광케 했고 끝까지 자기 이름을 “노종득”이라고 우긴 새내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겐세이를 하는 등 95새내기들의 끼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곧이어 이어진 뒷풀이에서는 120명의 레몬소주를 2시간 만에 비워서 술 주문이 끊이지 않았고 몇몇 학우들의 추태(?)가 있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홍대에서 열린 다음날 뒷풀이는 대낮부터 부루스 타임이 연출되 짝없는 남, 여 학우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암튼 이번 연합 MT는 “DOBRO”다.

날적이에서

7/1 četvrtak. P.M. 11시 40분

(오랜만에 세어를 써보는 거라서 목요일이 četvrtak인지 철자는 제대로 썼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일산에서 한달 보름 동안 노가다를 뛰고 곧장 왕산으로 왔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을거다. 하지만 나는 혹시 누구라도 있을까 해서 월급봉투를 고스란히 들고 학교로 왔다. Ali 아무도 없다.

백만원이 넘는 돈은 나 혼자 쓰기 벅차서 왔는데...(정말이다.)

옆에는 맥주병과 주니퍼 병이 뒹굴고 있다. 그리고 월급탄 기념으로 장만한 ‘삼성 MY-S693’ (드디어 핸드 리버스를 버리고 오토 리버스를 장만함) 에서 흘러나오는 메탈리카의 ‘The unforgiven’이 징그러운 정적을 조금이나마 부수고 있다.

*잠시 삼성 MY-S693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겠음.

삼성 MY-S693 : 1. 오토 리버스가 된다. (현대문명의 눈부신 발전을 보는 듯 하다.)

2. 라디오도 나온다. (FM은 스테레오 분리도 된다. 정말 신기하다.)

3. 중저음 보강이라는 기능도 있다. (처음 들어보는 신기술이다.)

4. 스피커가 내장되 있다. (귀가 의심스럽다.)

5. 건전지가 두개 밖에 안 들어간다.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문득

사람들이 그리웁다.

모두들 어디로 갔는지... 공강이 시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

은 정말 슬픈 일이다. 며칠만 일찍 왔어도 순철이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방금 경비 아저씨가 학생증 검사를 하고 갔다. 휴학생이라고 얼굴을 까먹었나 보다. 나는 반가워서 먼저 인사를 했는데. 이올배반!! 언어도단!!]

‘아무도 없다’라는 상황설정이 ‘나만이 완벽하게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대변될 수 있다면 그리 슬프지 않을 것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부실한 내 존재를 더욱 더 초라하게 하는 것 같아 목이 메인다.

New trolls의 ‘Adagio’가 흐르고 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생기는 순수한 감정을 속이지 말자. 자신의 현 위치를 직시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삶에 있어 진정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 믿는다.

난 나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다.

단 하나의 꾸밈도 없이...

— 喆 —

12/2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안다.

그러나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리움은 무너진 뒤에도 슬픈 아름다움이 있다.

詩

‘플랫트 포움에서.’

세때들에게로의 망명...

날적이에서.....!기!기!

95. 3. 2.

개강을 했ندا. 휴학했는데 쪽 팔림을 무릅쓰고 학교에 왔다. 파방- 열나 복잡하다. 그래도 좋다. 95애들 너무 좋다. 짹 깨물어 먹고 싶다. 마치 속에 찹 들은 사탕이라고나 할까? 휴학해도 내 비유는 살아있다. 이 날적이를 95애들이 많이 애용하길 바란다.

95. 3. 2.

종득이 강의시간에 크게 “유고여”하고 대답하다. 석연 가방 자기 의자에 기댔다고 눈썹집. 자영 엉덩이 아프다고 상택에게 호소. 강의 10분만에 ending-실망. 교수 약간 sexy.....

95. 3. 6.

학교에 너무 일찍 도착했다. 쟈장 아무도 없네. 학교 다닐 때는 죽으라고 늦게 다녔는데 휴학생이 된 후로 부지런해졌다. 역시 사람은 군대에 가야 진정한 인간이 되는가 보다. 1년간의 너무너무 힘든 군생활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군대 간다고 껌 치면서 휴학한 놈들아 하루속히 가거라. 오늘은 뭘 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누... 황금 같은 방위 휴가를 이런 식으로 까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매일 학교오니까 드립게 할일 없는 놈인줄 알지만 사실 그렇다.

95. 3. 7.

학교에 또 왔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보는 사람마다 “왜 출

근 안 해요?” “휴가 언제까지 예요?”하면서 내가 꺼지기를 바란다. 나쁜 사끼들. 혁이가 와야지 애들이 구박도 안하고 무서워할 텐데... 애들은 개강총회 대자보 만든다고 정신이 없다. 나만 심심하다. 씨벌...

95. 3. 8.

강문영과 이승철이 부부란다. 난 몰랐다. 이런! 오늘 네 명의 남자가 나의 배를 부르게 했다. 먹을 복이 터졌다. 우리과는 CC가 너무 많다.

95. 3. 13.

지겨운 한 주가 또 시작되는 월요일. 새터에서 사진 한 장 안 나온 나는 뛰여. 지난 토요일은 정말 환상적인 날이었지. 정모의 넥타이춤, 종드기의 혈령이춤 눈 뜨고는 차마 못 봐주는 모습이었지. 주말은 역시 내게는 독이다. 나테하고 게으른 2일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친구란 무엇일까? 철학적인 과제를 남긴 채 이만 줄인다.

95. 4. 12.

세상에서 가장 드럽고 썰렁한 얘기-----“똥이 얼었다.”

95. 4. 13.

병일이랑 아침부터 술 먹기로 해서 학교에 일찍 갔다. 헌데 그 녀석은 벌써 와서 로비에서 피워대지도 않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머리가 짧아져서 흑시나 했는데..... 진짜 영장이 나왔다네. 병일이 앞에선 크게 웃으며 춘천이라 잘 됐다고 놀렸다. 짜식

안 나온다고 투덜대더니 드디어 나왔군. 매일 만난다고 해도 5
일 남았다. 그 놈과 정이 들었나 보다.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 놈 가는걸 아쉽게 만든다. 남들에겐 영장 나왔다고 말도 못
하는 순당이 새끼. 놈의 빈자리가 벌써부터 큰 것을 느낀다.

95. 4. 19.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드러운 얘기-----“호랑이가 똥쌌
다.”

요즘 우리과 사람들은……

－ 자취하는 학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광명, 윤정호, 박명석 학우가 혼숙을 노종득 학우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종득학우는 외로와 죽겠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의 집을 찾는 사람이 없다.

－ 93 김유광 학우가 종전에 김.사.모(김유광 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모임을 다시 95새내기 중심으로 확장시키려는 음모(?)가 있음을 입수했다. 유고어과 김씨들이여 (특히 95) 그의 눈웃음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됩니다.

－ 94 강달연 학우가 새내기들 사이에서 가칭 “유고어과 BEST DRIVER”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 물루랄라인데 그를 충분히 능가한다는 선배님들의 시샘이 있어서 조만간 유고어과 자동차 경주대회가 정문-어문관 코스에서 있을 예정이다.

－ 93 서재식, 이승우 학우가 R.O.T.C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들 사정상 교내에서 그들을 아는 척 하기조차 어렵다. 생활이 힘들기는 힘든 모양이다. 역시 방위가 CAP이다.

－ 우리과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요즘은 뜸하다)과 행사마다 어김없이 참가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덴마크 국적의 야곱이란 인물로서 95여학우의 펜팔 친구로만 알려져 있는데 과 차원에서 명예 95학번으로 영입할 계획은 추위도 없고 과방 청소나 명수당 잔디 깎기 또는 식권 판매원 정도는 알선해

줄 의도는 있다고 한다. 아예 말뚝 박아라.

- 94 전병일 학우가 드디어(?) 군대에 갔다. 과 사람들 모두들 그의 입대를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 앞으론 공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한편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던 94 김병권 학우는 아직 영장이 안 나왔다는 핑계로 계속 학교에 출입해 주위에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95 정용준 학우가 교내에서 잠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검은 독수리”로 착각한 나머지 얼마 전 얼굴과 팔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하루빨리 오토바이에도 ABS나 AIR BAG을 설치해야겠다. 암튼 우리과 오토바이족(?)들 안전운행 하세용!!!

속보!

위 기사를 쓴지 1주일 만에 94 강달연 학우가 그에게 있어선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크기인 레미콘과의 정면충돌로 다시는 그의 18번 DIANA를 못 들을뻔한 대구 가스폭발 사고에 견줄만큼 큰 사고를 당하고 현재 상계백병원 911호에 입원에 있다. 학우들의 많은 문병과 함께 그의 빠른 회복을 빈다.

[사진모음]

1. 옛 추억 사진모음

















2. 20주년 예술제 사진모음















[외대발전기금 및 학과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동문, 재학생, 교수 대표로 구성된 20주년위원회는 기념사업의 기본정신을 ‘오늘날의 학과를 가능케 한 모든 이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정하고, 그 하나의 실행 방법으로 ‘학과발전기금(졸업생 및 학과교수)’과 ‘외대발전기금(재학생)’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금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대발전기금: 38 명, 1,070,000 원

•학과발전기금: 65 명, 30,510,000 원

외대발전 기금 기부자: 엄현석 외 37명

(* 기부자 명단은 모금에 참가한 총원만 밝힙니다.)

학과발전기금 기부자

(* 기부자 명단은 학번 및 가나다순으로 기재합니다.)

▶ 김성환 교수, 권혁재 교수

▶ 88학번

김상헌, 김지향, 김철민, 김 현, 민승기, 박광원, 백종필, 변지훈,
안인균, 이경중, 이상로, 이용석, 이운호, 정태동, 조상연, 황진득

▶ 89학번

김지훈, 오문준, 이동운

▶ 90학번

류정훈, 원호섭

▶ 91학번

강승욱, 권순철, 김재기, 김하영, 노승우, 민병일, 이기택, 이윤재,
이윤환, 이태훈, 장세덕, 전영선, 전환석, 최치영, 현택근, 황형준

▶ 92학번

고재열, 금승현, 박성혁, 박시영, 양화석, 유선우, 윤기연, 이상민,
이승훈

▶ 93학번

김인래, 남충범, 박영임, 송인경, 정진호

▶ 94학번

강재식, 김동하, 김병권, 나우민

▶ 95학번

박영현, 정용준

▶ 96학번

공성현, 조희숙

▶ 99학번

곽범석, 이욱형

▶ 02학번

이준형

▶ 무기명 1명

[편집후기]

1995년에 발간된 제7호를 끝으로 1988년 학과 설립 이래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꾸며온 문집 ‘한우리’는 중단되었으며, 2008년 학과 설립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예술행사들과 더불어 기념문집 ‘한우리’를 다시금 발간하게 되어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기념문집 ‘한우리’는 소중한 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에서 보내온 축하서신과 과거와 현재 우리 학과에 재직하셨고 재직중이신 교수님들의 소중한 글들, 재학생의 재기발랄한 경험담, 그리고 이미 졸업한 동문들이 꾸몄었던 기존 ‘한우리’에서 다양한 양식의 글들을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기념문집 ‘한우리’를 편집하면서 재미있는 글에 웃음짓고, 학부생으로 자못 진지하게 쓴 논문양식의 글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번역을 도와준 이준형, 양혁재, 변여정 학생, 그리고 편집을 도와준 오은비, 조은빛나, 장윤정 학생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번역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를 교정해주신 김성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학생들이 힘을 모아 매년 문집 ‘한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수: 김성환 교수님

편집: 오은비, 조은빛나, 장윤정

번역: 이준형, 양혁재, 변여정

책임편집: 김상헌

유고어과/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20주년 기념문집 ‘한우리’

2008년 12월 24일 인쇄

2008년 12월 27일 발행

발 행 인: 김철민

책임편집: 김상현

발 행 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89

TEL 031-330-4224

인 쇄: 다해 (TEL 02-2266-9247)
